

I.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1. 의의와 중요성

청소년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터전이며, 청소년들은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미래의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야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제반의 사회적 기본 토대들을 형성하고 쾌적한 성장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반대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여러 형태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의 지역사회 주역으로서 주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의 청소년 자원봉사 방향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실천활동을 통해 현실 사회를 이해하고, 학교교육에서 얻는 지식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는 실천경험들을 다시 자신에게 재 조명함으로써 학문적 성취와 자기개발의 기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청소년문화유산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한 영역으로서 청소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내의 문화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해 봄으로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및 역사를 봉사활동을 통해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모방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과 우수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는 찬란한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실천과정에서 문화재 접촉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능력을 제고시키며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의와 중요성을 가지고 정부가 제정한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추진된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은 국가의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방향에 부합되면서 대국민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아울러 청소년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더불어 언론사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간의 공동사업추진이라는 고리를 통해 전국 규모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실천가능하며, 이러한 연계체계

를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2. 추진 배경과 과정

1) 추진 배경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의 추진배경은 시기적으로는 정부가 19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제정하고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자.”라는 슬로건하에 대 국민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보존활동을 도모하고 진흥한다는 외부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성인 자원봉사활동과 차별성이 없는 활동거리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에게 맞는 수요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활동거리 개발의 필요성과 활동터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속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요청이었다. 아울러 전국 5대 광역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중앙센터인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공동사업이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각 지역별 센터와 중앙센터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전국 15개 시·도와 중앙센터간의 역할 정립과 공동사업추진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배경에서 97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2) 추진 과정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은 5대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1997년 2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의 초기계획을 기획·수립하여 일차적으로 지방센터 실무자와 사업의 공동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였다. 사업의 공동추진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초기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 문화체육부와 중앙일보사와 협의한 바, 문화체육부는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는 후원기관으로, 중앙일보사는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키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세부적인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의 협조 요청과 합의 도출

문화유산 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협의대상 관계기관인 문화재 관련기관, 교육부, 그리고 각급 학교들과 먼저 연계체계와 협조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화체육부 담당공무원 및 문화재 관리국 공원관리과장, 서울 소재 5대궁 관리사무소장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문화유산 봉사활동 사업의 취지와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하여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이 연중(매주 토요일)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데 합의를 도출하였다.

두번째로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가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하도록 요청하였고, 시·도 교육청은 이의 내용을 각급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즉 각급 학교에서 서울 및 5대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세번째로 참가학교 교사 및 문화재 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연석회의에서는 각 학교의 일선 교사들과 문화재 관계자들을 연계시켜주고 동시에 상반기 동안에 참가가 확정된 학교의 교사와 문화재 관계자에 대하여 실천결의대회 계획을 통보하고 행사개최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였다.

(2) 사업진행상의 세부 추진계획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은 먼저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실천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1997년 3월 29일에 개최된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실천결의 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해당지역에서 봉사활동에 참가하고자 신청한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에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행사였다.

또, 각 센터별로는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대상 문화재에서 봉사활동을 전달지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치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져 활동상황을 평가하는 회의를 실시하여 문화유산 봉사활동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였다. 다른 한편 봉사활동 추진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였는데, 이는 매월 실시되는 봉사활동상황은 서울 및 5대광역시의 각 센터에서 해당 문화재와 학교, 센터가 상호 연락을 취하여 각 문화재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들의 실적을 매주 파악하고 센터별로 익월 10일까지 중앙센터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역별로는 매주, 전국적으로는 매월 자원봉사활동의 상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문화유산 봉사활동의 진행은 각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되 중앙센터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을 관장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전국적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3. 계획의 개요

1997년 3월 29일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실천결의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실시된 청소년 문화유산 자원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사업 목적

- 문화체육부가 19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제정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하여 알고, 찾고, 가꾸는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
- 청소년들에게 문화재 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과 우수성을 인식시켜 주고 우리의 찬란한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함
- 문화재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 실천과정에서 문화재 접촉을 통한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 능력제고와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사업기간 : 1997. 3. 29 - 1997. 12. 3

○실시장소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 일원에 소재한 문화재

○사업주관 :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사업주체

-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및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 중앙일보사

○후 원 : 문화체육부,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활동영역과 내용

- 문화재 주변 환경미화(고건물 청소, 배수구 청소 등)활동 및 질서계도 활동
- 문화지도 그리기, 문화재 탐방활동, 문화사진 전시회 활동 등

〈표 I-1〉 문화유산봉사활동의 영역과 활동내용

영역	활동내용
문화재지역 환경정화	청소, 잡초뽑기, 쓰레기줍기, 배수로정리, 수목에 물주기, 안내판·보호책등 바로 세우기
관람질서유지	관람객들의 잘못된 관람태도를 적발, 계몽하는 활동 (유적지내 취사, 불꽃놀이, 문화재에 대한 낙서, 탁본 행위, 출입금지구역에의 출입이나 건축물에 올라가는 행위등)
유적지 안내	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갖추고 관람객들에게 설명, 안내하는 활동
문화재보호 감시 및 신고	문화재 훼손행위나 파손현장을 발견하여 행정당국에 신고
문화재보호홍보	지역신문 등에 향토문화재 애호내용등 기고, 문화재 훼손방지 등 문화재보호 캠페인, 팸플릿 배포등

○소요예산 : 24,000,000

-중앙센터 9,000,000원, 5개 지방센터 총 15,000,000(각센터당 3,000,000원)원

Ⅱ.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로 창조된 문화가치가 있는 사물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길이 보존해야 할 민족의 재산인 동시에 인류공영의 문화유산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중요성

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문화비전 2000위원회』가 기초하고 만들어 1997년 12월 8일 공포된 문화유산헌장에서 잘 알 수 있다. 문화유산헌장의 전문(全文)을 살펴보면,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무분별한 개발이나 근거없는 복원사업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문중의 ‘문화유산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으로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유산 헌장을 제정한다.’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선조의 뛰어난 문화예술의 정수체인 문화유산의 향유에 대한 권리와 보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현존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으며, 동시에 우리 후손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이 헌장에서는 밝히고 있다. 또, 문화유산 헌장에서는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이 곧 나라 사랑의 바탕이라고 인식하면서 국민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데 노력을 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유산보존의 중요성은 가정, 학교, 사회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라는 조항은 문화유산보존의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우리민족의 역사의 자랑스러움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해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3. 문화재의 구분

문화유산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유형과 지정여부, 그리고 지정권자에 따른 세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관리·보존되고 있다.

〈표 Ⅱ-1〉 문화유산의 구분과 종류

유형에 따라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화서·조각·공예품 등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민속놀이 등
	기념물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패총·고분·성지·궁지 등 의 사적지,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경승지, 학술상 가치가 큰 동물·식물·광물·동굴 등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관련된 자료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비지정문화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나 문화재보호법 및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것.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중요재로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중요 민속자료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됨.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됨
	문화재 자료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문화보호조례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자료 : 문화재 보호 학생봉사활동 편람, 문화체육부·문화재관리국)

Ⅲ.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운영현황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의 연간사업 추진현황은 <표 Ⅲ-1>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연간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총 37,857명의 인원이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전국적으로 172개 문화재에서 502개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이것을 총 봉사시간 수로 환산하면 156,093시간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일 프로그램 그리고 전국적 규모로 연중내내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경우는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시간수나 연인원으로 보아서는 이번 문화유산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상당한 호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연간 실적

	참 가 문 화 재 수	참 가 학 교	참 가 횟 수	참 가 연 인 원	봉 사 활 동 총 시 간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19개 문화재	78개교	366회	12,222명	36,606시간
부산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3개 문화재	143개교	416회	4,038명	40,967시간
대구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65개 문화재	43개교	124회	4,204명	16,823시간
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4개 문화재	96개교	393회	11,189명	39,511시간
인천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32개 문화재	104개교	261회	4,866명	18,287시간
광주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9개 문화재	38개교	미산출	1,338명	3,899시간
계	172개 문화재	502개교	1,560회	37,857명	156,093시간

(봉사활동 총시간수는 인원수×봉사활동시간수로 계산하였음)

다음으로 각 센터별로 실시한 연간 봉사활동인원은 <표 Ⅲ-2>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월별 참가현황에서 보듯이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가 총 12,22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전 센터가 11,18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센터의 경우에는 참가인원이 연인원이 아니라 월별 총인원으로 집계하였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집계기준의 차이이며 봉사활동시간수에 있어서는 <표 Ⅲ-1>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연간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40,967시간으로 가장 높은 봉사활동 시간수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9~12월)에 참여한 인원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상반기 6월과 하반기에는 10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기말 고사와 중간고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2>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월별 참가현황

(단위 : 명)

	한국청소년 개발원 자원봉사센터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계
3월	3,100	2,189	1,280	1,714	1,123	414	9,820
4월	1,646	306	677	713	1,001	192	4,535
5월	1,300	389	574	461	1,761		4,485
6월	1,457	331	556	384	915	201	3,844
7·8월	1,179	266	654	875	1,542	225	4,741
9월	1,295	200	150	224	1,386		3,255
10월	1,313	188	163	373	648	112	2,797
11월	897	166	150	122	2,813	194	4,342
12월	35						35
계	12,222	4,038	4,204	4,866	11,189	1,338	37,854

1.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1) 사업보고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1997년 3월 29일 청소년문화유산 봉사활동 실천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997년 12월 13일까지 총 19개의 문화재에서 12,222명의 학생들이 총 36,606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처음 실천결의대회에서 5대궁과 각 학교를 자매결연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고자 했으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들의 거리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이 상당부분 무리한 요소들이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을 문화재와 학교가 가능한 인접되어 실시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사업의 운영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우선 자원봉사지도자를 문화재에 배치하여 문화유산 봉사활동을 지도케 하는 방법과 각 문화재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각 문화재관리사무소 직원들중 1인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지도하는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한 대상문화재는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서오릉, 한우물동 6개 문화재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한 문화재는 나머지 13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청소년자원봉사자의 문화재 배치는 우선적으로 매학기 시작 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자원봉사활동 신청자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자원봉사지도자와 각 문화재에 사전에 통보하고 학생들을 배치하였는데 매주·매월 단위로 자원봉사활동현황을 집계하였고, 각 지방센터의 경우도 매월 단위로 집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였다.

자원봉사지도자의 경우 격주로 해당 문화재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사전배치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토의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의 담당자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자원봉사지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그들 자신들의 활동상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제시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의 입장을 가졌을 뿐 지도자들의 위치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그들의 의견과 토의내용을 중심으로 다음달의 자원봉사활동을 준비하였다.

〈표 Ⅲ-3〉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실적을 참조하여 보면 97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전체 현황을 알 수 있다.

〈표 Ⅲ-3〉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실적

월	봉사활동 문화재	연간참가 학교수	총활동 인원	봉사활동 총시간	봉사활동 내용
3	경복궁 근정전	31개교	3,100명	9,300시간	실천결의대회
4	경복궁 외 18개 문화재	25개교	1,646명	4,938시간	문화재 조사 고건물 청소 환경미화 질서계도 안 내
5	창덕궁 외 17개 문화재	24개교	1,300명	3,840시간	
6	창경궁 외 12개 문화재	24개교	1,457명	4,371시간	
7	경복궁 외 12개 문화재	12개교	1,179명	3,537시간	
9	경복궁 외 10개 문화재	30개교	1,295명	3,885시간	
10	경복궁 외 8개 문화재	25개교	1,313명	3,939시간	
11	경복궁 외 7개 문화재	27개교	897명	2,691시간	
12	창덕궁 외 1개 문화재	4개교	35명	105시간	
계	19개 문화재	202개교	12,222명	36,606시간	

2) 활동실적

(1) 참가문화재(총 19개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서오릉, 한우물, 효창공원, 백제고분군, 태·강릉, 의릉, 정릉, 선정릉, 영취원, 서울동묘, 사육신묘, 헌인릉, 낙성대, 운현궁

(2) 참가학교 수(총 78개교)

① 고등학교(25개교)

경기고, 경북고, 과학고, 광문고, 광운전자공고, 대광고, 동성고, 동일여고, 동작고, 배문고, 선린정보산업고, 선일여상, 성동고, 신평여고, 신진공고, 예일여고, 용문고, 인현고, 일신여상, 정신여고, 정의여고, 중앙여고, 중앙고, 창문여고, 충암고

② 중학교(53개교)

가락중, 강남중, 강남여중, 경도중, 고명중, 관악중, 관악여중, 구의중, 당산중, 덕수중, 대광중, 도봉여중, 동마중, 문성중, 미성중, 방이중, 배명중, 배화여중, 번동중, 봉림중, 봉천중, 봉천여중, 북악중, 삼선중, 삼성중, 상도중, 상도여중, 상신중, 서울

사대부중, 서현중, 석관중, 석촌중, 성사중, 성일중, 성수중, 숭실중, 신림중, 신림여중, 신일중, 아현중, 양강중, 연희여중, 영등포중, 영림중, 원일중, 오금중, 자양중, 정신여중, 정화여중, 중원중, 증산중, 창덕여중, 청운중

3) 참가 연인원 및 봉사활동 총시간

366회에 걸쳐 12,222명이 참가하였고 총 봉사활동 시간은 36,606시간으로 나타났다.

4) 문화재별 월별 봉사활동 내역

(1) 경복궁

① 문화재 소개

● 경 복 궁(景福宮)

○ 지정번호 : 사적 제117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6

조선시대의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으뜸인 정궁(正宮)이었다. 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북궐(北闕)이라고도 불리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일으키고 1395년에 지은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때 모두 불타버리고 지금의 궁궐은 1869년 고종 때 지어진 것이다.

처음 궁의 규모는 390여칸으로 크지 않았으며, 왕이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던 근정전(勤政殿), 왕비가 거처하는 연침, 나라일을 보는 보평청, 중추원, 삼군부 등이 함께 세워졌다. 궁의 명칭은 [시경] 주아(周雅)에 나오는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 만년 그대의 큰복을 도우리라(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에서 두자를 따서 경복궁이라고 지었다.

1412년(태종 12)에는 경회루를 지었으며, 세종 때에는 근정전과 광화문을 새로 고쳤다. 또한 한글 만드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밖에 측우기나 해시계 등 문화적, 과학적인 업적을 이 경복궁내의 집현전과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 내었다.

조선왕조의 으뜸 궁궐이던 경복궁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창덕궁, 창경궁과 함께 타서 없어지고 말았다. 왜란이 끝나고 24년이 지난 후 도성의 궁궐이 복구되기에 이르렀으나 경복궁은 복구되지 못하고 창덕궁과 창경궁만이 복구되었다.

경복궁이 중건된 것은 1865년 고종이 임금 즉위 후였다. 그러나 1894년에 일본 군대

의 궁중 난입과 일본인 자객에 의해 민비가 시해되는 등의 사건이 있고난 후 왕은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으며, 경복궁은 복구된지 30년만에 주인 잃은 빈 궁궐이 되고 말았다. 1910년 국권을 잃자 일본은 근정전, 사정전 등 몇 개의 건물을 빼고는 궁안의 건물들을 거의 철거해 버렸으며, 1926년에는 근정전 앞에 일본의 총독부 청사를 새로 짓고 이듬해에는 궁의 정문인 광화문까지 다른데로 옮겨버려 궁궐로서의 모습을 크게 잃어버리고 말았다. 1945년 광복이후 궁은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② 월별 활동상황

경복궁의 경우에는 결의대회 때 경북고, 도봉여중, 선일여상, 상신중, 미성중, 선린정보산업고 등 총 6개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상·하반기 꾸준히 봉사활동이 진행된 문화재이다. 경복궁의 경우에는 <표 Ⅲ-4> 경복궁의 월별 활동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총 14개 학교가 45회 참석을 하여 총 1,729명의 인원이 5,177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표 Ⅲ-4〉 경북궁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4	선일여상	1	82	3	246	문화재 조사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안 내 질서계도
	개별신청	1	4	3	12	
	중앙고	1	76	3	228	
	송실중	1	100	3	300	
	성동고	1	48	3	144	
5	선일여상	1	77	3	231	
	개별신청	1	2	3	6	
	송실중	1	100	3	300	
	성동고	1	100	3	300	
	상도여중	1	28	3	84	
	배화여중	1	23	3	69	
6	선일여상	1	49	3	147	
	개별신청1	3	3	9		
	송실중	1	80	3	240	
	상도여중	1	25	3	75	
	북악중	4	92	3	276	
	중앙고	1	52	3	146	
7	선일여상	1	53	3	159	
	북악중	1	70	3	210	
	중앙고	1	47	3	141	
	송실중	1	20	3	60	
	덕수중	3	155	3	465	
	성동고	1	27	3	81	
9	중앙여고	2	23	3	69	
	창덕여중	2	45	3	135	
	청운중	1	26	3	78	
	자양중	1	13	3	39	
10	창덕여중	2	37	3	111	
	양강중	1	57	3	171	
	중앙고	1	61	3	183	
	중앙여고	1	69	3	207	
11	선일여상	2	28	3	84	
	중앙여고	1	9	3	27	
	중앙고	1	61	3	183	
	청운중	1	6	3	18	
	충암고	1	27	3	81	
계	14개교	45회	1,729명		5,177시간	

(2) 창 경 궁(昌景宮)

① 문화재 소개

●창 경 궁(昌景宮)

○지정번호 : 사적 제 123 호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1

원래는 별궁으로 지어졌으며, 도성내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궐”이라고도 불린다. 궁이 있는 자리는 고려시대의 남경(南京) 수강궁(壽康宮)터로 전하며, 1418년(세종 즉위년)에는 상왕(上王)이 된 태종이 머무는 집으로 전물을 지어 수강궁이라고 불렀다. 1483년(성종 14)에 창경궁이 수강궁 자리에 창건되었으며, 당초는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 윤씨, 덕종의 비 소혜왕후 한씨,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 한씨를 모시기 위한 곳이었다.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던 궁은 1616년(광해군 8년)에 재건이 이루어졌다. 창경궁에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중 특기할 만한 것은 숙종때 장희빈을 처형하고 그 일가를 숙청하였던 일이 신사년에 있었으며, 영조때에 사도세자의 변고가 있었다.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본인들에 의하여 궁은 새로운 일본식 건물이 들어서고 궁궐 전체를 동물원, 식물원 내지 박물관화 시키면서 웅장하던 건축군은 원형을 잃어버렸다. 1984년에 들어와 궁의 복원사업이 착수되어 우선 창경원이라는 명칭을 본래대로 창경궁으로 고치고 궁내의 동물사를 모두 서울대공원으로 이전시키고 뽕나무를 제거하였으며, 1986년에는 문정전이 복원되고 면정전이 정문사이 좌우의 행각이 복원되었다.

이 궁은 장조, 순조, 헌종 등의 많은 왕이 태어난 곳이며, 광해군때 중건된 정문·정전 등이 보존되어 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창경궁의 경우 결의대회에서 동성고, 창문여고, 송실중, 배화여중, 석관중, 대광고, 신일중 등 총 7개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나, 중앙고와 동성고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표 Ⅲ-5>에서 알 수 있듯이 총 10개 학교에서 1,427명의 학생들이 32회 참석하였고, 총봉사활동 시간은 4,293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표 Ⅲ-5〉 창경궁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북악중	1	47	3	141	문화재 조사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안 내 질서계도
	중앙고	3	165	3	495	
	도봉여중	1	20	3	60	
5	동성고	2	131	3	393	
	중앙고	1	48	3	144	
	도봉여중	1	30	1	30	
6	동성고	1	40	3	120	
	중앙고	3	124	3	372	
	도봉여중	1	20	3	60	
	중원중	2	18	3	54	
7	덕수중	3	288	3	864	
9	정의여고	3	58	3	174	
	중앙고	2	62	3	258	
	자양중	2	131	3	393	
10	동성고	1	93	3	279	
	중앙고	1	53	3	159	
	중앙여고	1	60	3	180	
	경도중	1	3	3	9	
11	선일여상	1	20	3	60	
	동성고	1	16	3	48	
계	10개교	32회	1,427명		4,293시간	

(3) 창 덕 궁(昌德宮)

① 문화재 소개

● 창 덕 궁(昌德宮)

○ 지정번호 : 사적 제 105 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처음에는 이궁(離宮)으로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때 정궁(正宮)인 경복궁이 소실되고 조선말기에 복구될때까지 약 300여년간 역대 임금이 이 궁에서 정사를 봄으로써 본궁의 구실을 하였다.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관대궐” 또는 “동궐”이라고 불렸다.

창덕궁이 창건된 것은 조선초기에 한양천도가 있던 1405년(태종 5)이며, 하나의 별궁(別宮)을 도성내에 두기위하여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1412년에는 궁의 정문인 돈화문이 비로소 세워지게 되었고 세조가 즉위하면서 인정전을 짓고 궁내의 각 건물들의 이름을 고쳤는데 이때 고쳐진 전각들의 명칭은 대체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창덕궁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정전과 정문 등으로 이루어지는 외전과 정침 및 주변전각들로 구성된 내전, 그리고 후원이다. 창덕궁의 후원은 일명 금원(禁苑) 또는 비원(秘苑)으로 불린다.

임진왜란으로 창덕궁은 전소(全燒)되었는데 1609년(광해군 1)에 중건되면서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으로서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치르는 역사의 주무대가 되었으며, 창덕궁에서는 효종, 현종, 영조가 즉위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지 2년 뒤인 1912년에 창경궁과 함께 창덕궁의 인정전과 후원을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하여 조선왕조 궁궐의 위엄을 실추시켰다. 광복이후 창덕궁은 시민에게 개방되었으며, 현재 창덕궁 안에는 많은 종류의 문화재가 있는데 국보로 돈화문과 인정전, 보물로는 인정문, 선정전, 회정당, 대조전, 구선원전이 있고 그밖에 수령 700년의 향나무 한그루와 수령 600년의 다래나무 한그루가 천연기념물로 남아 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창덕궁에서는 용문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총 10개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에 참가하였다. 이들 학교중 중앙고등학교가 총 246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총 27회에 걸쳐 연인원 802명이 참가하여 2,400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창덕궁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용문고	1	46	3	138	문화재 조사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안 내 철서계도
	중앙고	1	72	3	216	
	아현중	1	25	3	75	
	상도여중	1	3	3	3	
5	용문고	1	1	3	3	
	아현중	1	20	3	60	
	대림여중	1	35	3	105	
6	용문고	1	11	3	33	
	아현중	1	12	3	36	
	중앙고	1	60	3	180	
7	중앙고	1	65	3	195	
	덕수중	3	158	3	474	
9	중앙고	1	23	3	69	
	자양중	3	141	3	423	
10	송실중	1	17	3	51	
	중앙고	1	26	3	78	
	아현중	1	9	3	27	
11	아현중	1	4	3	12	
	송실중	3	44	3	132	
12	송실중	1	21	3	63	
	성사중	1	9	3	27	
계	계	10개교	27회	802명	2,400시간	

(4) 덕수궁(德壽宮) - 궁중유물전시관

① 문화재 소개

● 덕수궁(德壽宮) - 궁중유물 전시관

○ 지정번호 : 사적 제 124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 총면적 : 6만 1500㎡

이 궁은 조선시대에는 경운궁으로 불리었다.

궁이 있는 자리는 조선 초기에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 있었던 곳으로 선조가 임진왜란 뒤 서울로 돌아와서 이 집을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정릉동행궁(貞陵東行宮)’이라고 불린 이곳에서 선조가 죽고 뒤를 이어 광해군이 여기서 즉위하였다. 그해에 창덕궁이 완성되었으므로 광해군은 이곳을 떠났으며, 경운궁이라는 궁호를 붙여 주었다.

1897년 조선왕조가 열강들 사이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야 비로소 궁궐다운 장대한 전각들을 갖추게 되었다. 이때 전후로 궁내에는 많은 건물이 지어지기도 하였으나, 1904년에 궁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곧 복구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1905년에 즉조당, 석어당, 경효전, 준명전, 흠문각, 함녕전 등이 중건되었으며, 중화문, 조원문 등이 세워졌다. 1906년에 정전인 중화전이 완성되고 대안문(大安門)도 수리되었는데, 이 문은 대한문(大漢門)으로 개칭되고 궁의 정문으로 되었다. 1907년 제위이전 이후에도 태상황(太上皇)이 된 고종은 계속 경운궁에 머물고 새로 즉위한 순종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 때 궁호를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바뀌었다.

덕수궁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약 10년간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난 곳이며 전통목조건축과 서양식의 건축이 함께 남아있는 곳이다.

② 월별 활동상황

궁중유물전시관에서는 총 11개 학교가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는데 55회에 걸쳐 연인원 1,181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의 시간수는 3,543시간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학교는 연희여중으로 11회에 걸쳐 339명이 참가하였다.

〈표 Ⅲ-7〉 공중유물 전시관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연희여중	4	130	3	390	문화재 조사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안 내 절서계도
	성수중	1	27	3	81	
	구의중	3	30	3	90	
	창덕여중	1	37	3	111	
5	연희여중	5	125	3	375	
	구의중	5	46	3	138	
6	연희여중	2	84	2	282	
	구의중	4	28	3	84	
	봉림중	1	7	3	21	
	신진공고	1	2	3	6	
	창덕여중	1	19	3	57	
7	구의중	1	9	3	27	
	봉림중	2	16	3	48	
	덕수중	3	124	3	372	
9	창덕여중	3	110	3	330	
	구의중	3	30	3	90	
10	구의중	2	11	3	33	
	창덕여중	2	87	3	261	
	중앙고	2	78	3	234	
	양강중	1	41	3	123	
	강남중	1	81	3	153	
11	구의중	3	20	3	60	
	강남중	1	5	3	15	
	종산중	1	7	3	21	
	중앙고	1	47	3	141	
계	계	11개교	55회	1,181명	3,543시간	

(5) 종 묘 (宗廟)

① 문화재 소개

● 종 묘 (宗廟)

○지정번호 : 사적 제 125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번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봉인한 사당이다.

유교사회에서는 왕이 나라를 세우고 궁실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종묘와 사직을 세워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며, 경천애인사상을 만백성에게 널리 알리고, 천지신명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올렸던 것이다. 따라서 왕이 도읍을 정하면 궁전 왼편에 종묘를 오른편에 사직을 세우게 하였다.

태조는 송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뒤 현재의 종묘와 사직을 세웠다.

종묘는 임진왜란때 불에 타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중건되었다.

종묘는 원래 정전(正殿)을 말하며, 태묘(太廟)라고도 하는데 이는 태조의 묘(廟)가 있기 때문이다. 역대 왕과 왕후는 사후에 그 신주를 일단 종묘에 봉인하였다가, 공덕이 높아 세실(世室)로 정한 제왕 이외의 신주는 일정한 때가 지나면 조묘(廟)인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 모셨다. 이것을 조천(遷)이라고 한다. 종묘에는 현재 19실(室)에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의 신주를 모셔놓고, 영녕전에는 정전에서 조천(遷)된 15위의 왕과 17위의 왕후, 그리고 의민황태자(愍皇太子)의 신주를 16실에 모셔 놓고 있다.

정전은 국보 제 227호, 영녕전은 보물 제 821호로 지정되었다. 정전의 신실은 서쪽을 상(上)으로 하여 제 1실에 태조의 신주가 봉인되었고, 영녕전은 주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정중(正中)에 추존조사왕(追尊祖四王)을 모시고 서쪽과 동쪽으로 구분하여 서쪽을 상으로 차례대로 모시고 있다. 이것을 소목제도(昭穆制度)라 한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8〉 종묘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대광중	2	61	3	183	문화재 조사 환경정화 질서제도 안 내
5	대광중	4	15	3	45	
6	대광중	4	10	3	30	
계	1개교	10회	86회		258시간	

(6) 정릉(貞陵)

① 문화재 소개

●정릉(貞陵)

○지정번호 : 사적 제208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87-16

조선 태조의 제2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이다.

처음 능지를 정한 곳은 안암동이었으나 산역을 시작할 때 물이 솟아나와 지금의 정동에 자리를 정하게 되었다.

능이 성북구 정릉동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1409년(태종 9)이며, 이것은 오로지 태조가 제 8왕자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데 대한 태종의 사감에서였다.

태종은 능을 옮긴지 한달이 지나자 정자각을 헐고 석물을 모두 묻어 없애고, 팟교에 있던 흙다리가 무너지자 십이신상 등의 석물을 실어다 돌다리를 만들게 하였다.

1699년(현종 10) 송시열의 계청으로 비로소 종묘에 배향하고 능묘로 봉심하기로 하였으며, 이경석등의 계청으로 능을 수리하고, 재실을 중건하여 수호군을 정해주기에 이르렀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9〉 정릉의 월별 활동 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대광중	3	32	3	96	문화재 조사 환경정화 질서계도 안 내
5	대광중	3	24	3	72	
	창문여고	3	39	3	117	
6	대광중	3	67	3	201	
	창문여고	4	37	3	111	
9	북악고	3	85	3	255	
	경북고	1	2	3	6	
	고명중	3	7	3	21	
	삼성중	1	2	3	6	
10	북악중	8	107	3	321	
	삼선중	1	4	3	12	
	창문여고	1	8	3	24	
	변동중	1	2	3	6	
11	북악중	4	78	3	234	
	고명중	2	6	3	18	
	삼성중	1	4	3	12	
	과학고	1	2	3	6	
계	9개교	43회	506명		1518시간	

(7) 서울 동묘(東廟)

① 문화재 소개

●서울 동묘(東廟)

○지정번호 : 보물 제 142 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238-2

중국 후한의 관우를 봉사(奉祀)하는 묘로서 정식명칭은 동관왕묘(東關王廟)라 한다. 조선말기에는 관왕을 관제로 숭상하여 관제묘라고도 하였다. 또한 관왕묘는 무묘라고도 하는데 이는 공자(문선왕)를 모시는 묘를 문묘라 하는데 대하여 관우(무안왕)의 묘를 상대적으로 호칭하는 이름이다.

동묘는 임진왜란때 왜병(倭兵)을 격퇴함에 있어 관우의 영혼의 힘이 컸다하여 명(明)의 신종(新宗)이 난후(亂後)비용과 친필로 쓴 현액(懸額)을 보내왔으므로 1601년(선조 34)에 창건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동관왕묘 이외에도 1598년(선조 31)에 남관왕묘, 1883년(고종 20)에 북묘, 1902년(광무 6)에 서묘가 세워졌으나 현재는 동묘만이 남아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10〉 서울동묘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대광중	3	11	3	33	정화활동 질서계도 안 내
5	대광중	2	5	3	15	
6	대광중	1	2	3	6	
계	1개 학교	7회	86회		54시간	

(8) 영 휘 원(永徽園)

① 문화재 소개

●영 휘 원(永徽園)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205

조선왕조 제26대 고종황제의 후궁인 순헌귀비 엄씨의 원이다.

엄귀비는 1854년(철종 5)에 탄생하였으며, 8세에 입궐한 후 고종의 후궁이 되어 영친왕(이은)을 낳았다. 1911년 7월 20일 58세에 세상을 떠났으며, 위패는 시내 종로구 궁정

동에 있는 칠궁(七宮)에 진봉(進奉)되어 있다.

엄귀비는 생전에 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광무 9년(1905) 양정의숙을, 이듬해 진명여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뒤에 숙명여학교 설립에 기부하기도 하여, 근대의 사학(私學)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11〉 영취원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대광중	4	38	3	114	문화재 조사 환경미화 질서계도 안 내
9	서울사대부중	2	76	3	228	
	정화여중	2	34	3	102	
	성일중	2	13	3	39	
	대광중	1	2	3	6	
	동마중	1	1	3	3	
계	6개교	12회	164명		492시간	

(9) 효창공원

① 문화재 소개

●효 창 공 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산1 총면적 : 약 17만 m²

원래 정조의 맏아들로 태어나 세자책봉까지 받았으나 다섯 살 때 요절한 문효세자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효창원으로 하였다.

묘역이 광활하고 솔림이 울창하여 같은 묘역안에 정조의 후궁이며 문효세자의 생모이기도 한 의빈 성씨의 묘, 순조의 후궁인 숙의 박씨의 소생인 영은공주의 묘 등이 같이 있었다. 일본인들이 이 효창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894년 청일전쟁때 일본병력이 효창원 앞 송림 안에 만리창이 있던 곳에 야영하면서 부터이다. 그 뒤 일제강점기에 경성부가 효창원의 일부를 공원용지로 책정한 것은 1924년 6월이고 8월부터 순환도로, 공중변소 등을 시설하면서 일반인의 이용을 허용하였다. 도시계획상의 공원이 된 것은 1940년이며, 당시 공원면적은 31만 7000m²였다. 공원의 북쪽에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의 묘소가 있으며, 1949년 김구선생의 유해도 이곳에 안장되었다. 공원 경내에 1969년에 원효대사의 동상과 반공투사 위령탑이 건립되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12〉 효창공원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4	신광여고	1	21	3	63	문화재 조사 환경정화 질서계도 안 내
	배문고	1	95	3	285	
5	창문여고	1	1	3	3	
6	배문고	1	94	3	282	
계	3개교	4회	211명		633시간	

(10) 태·강릉

① 문화재 소개

●태 능(泰陵)

○지정번호 : 사적 제 201 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 223-19

조선조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의 능으로 1565년(명종 20)에 정하여졌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원비 장경왕후와 동원에 있는 중종의 정릉을 봉은사 곁에 묻히려 하였으나 장마철에 물이 들어와서 새로 태릉에 묻히게 되었다.

태릉은 운채와 십이진상이 새겨진 병석을 들렀으며 모든 석물제도는 〈국조례의國朝禮儀〉에 따랐다. 능의 관리를 위하여 직장(直長, 종 7품) 1인, 참봉(參奉, 종 9품) 1인을 두었다.

●강릉(康陵)

조선 명종과 명종비인 인순왕후 심씨의 능으로 1567년 명종이 죽자 이곳을 능지로 정하였으며, 1575년 왕후릉도 왕릉과 나란히 얹혀 쌍릉을 이루게 하였다. 두 능은 16세기 복고풍의 특색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능의 관리를 위하여 영(丞) 1인과 참봉 1인을 두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13〉 태·강릉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광운전자공고	1	30	3	90	문화재 조사 환경정화 질서제도 안 내
5	중원중	1	65	3	195	
6	중원중	3	9	3	27	
계	총 2개교	5회	104명		총 321시간	

(11) 서오릉

① 문화재 소개

● 서 오 룡(西五陵)

○지정번호 : 사적 제198호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

○총면적 : 55만 3616평

서오릉이 능지로 선택된 계기는 1457년(세조3) 세자였던 원자(元子) 장(璋:뒤에 덕종으로 추존됨)이 사망하자 풍수지리설에 따라 능지로서 좋은 곳을 찾다가 이곳이 추천되어 부왕인 세조가 답사한 뒤 경릉(敬陵)터로 정하여 짐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뒤 1407년(성종1)에 덕종이 아우인 예종과 계비(繼妃) 안순왕후(安順王后) 한씨(韓氏)의 창릉(昌陵)이 들어섰고, 1681년(숙종7) 숙종의 비인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의 익릉(翼陵)과 1721년(경종 1)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의 쌍릉(雙陵)과 2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의 단릉(單陵)인 홍릉(弘陵)이 들어서면서 큰 왕족의 능이 무리를 이루어 “서오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밖에 이곳에는 명종의 첫째 아들인 순희세자(順懷世子)의 순창원(順昌園)이 경내에 있으며, 또한 숙종의 후궁으로 많은 역사적 일화를 남긴 희빈 장씨(禧嬪張氏)의 묘가 1970년에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에서 이곳으로 이장되었다.

② 월별 활동상황

서오릉은 자원봉사지도자와 학교교사 그리고 센터와의 3자간의 협력체제와 의사소통체제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는 터전으로서 일반적인 여타 자원봉사활동터전과는 달리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꾸준히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터전이라 할

수 있다. 서오릉의 경우 많은 수의 학생들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 졌는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학교와 활동터전 그리고 자원봉사 지도자 마지막으로 센터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표 Ⅲ-14〉 서오릉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상신중	3	78	3	234	문화재 조사 환경정화 질서계도 안 내
5	에일여고	3	65	3	195	
9	연희여중	3	136	3	408	
10	연희여중	2	100	3	363	
	송실중	4	121	3	300	
11	연희여중	4	169	3	507	
	송실중	1	27	3	81	
계	4개교	20회	696명		2,088시간	

(12) 선정릉

① 문화재 소개

●선 정 룡(宣靖陵)

○지정번호 : 사적 제 199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8-5

선정릉은 능인 선릉과 중종의 능인 정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이 능지로 선정된 것은 1495년(연산군 1)에 성종의 능인 선릉(宣陵)이 들어서면서 부터였다.

그 뒤 1530년(중종 25) 성종의 제 2계비인 정현왕후 윤씨가 죽자 이 능에 안장하고 동원이강형식(同原異岡形式)으로 조영하였다. 정릉(靖陵)은 중종의 능으로 1544년에 중종이 죽자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원당리에 소재한 제 1계비 장경왕후 윤씨의 능인 회릉(禧陵)과 동원이강으로 하였으나, 1562년(명종 17) 문정왕후 윤씨가 삼성동 지금의 위치로 능을 옮겼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15〉 선정릉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정신여고	3	77	3	231	문화재 조사 환경정화 질서계도 안 내
5	정신여고	4	74	3	222	
6	정신여고	3	100	3	300	
9	영림중	1	22	3	66	
	자양중	1	7	3	21	
10	자양중	1	17	3	51	
계	3개교	13회	297명		891시간	

(13) 의릉

① 문화재 소개

● 의릉(懿陵)

○지정번호 : 사적 제 204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산1

○총면적 : 114.658 평

조선 제 20대왕(숙종의 제 1자로 희빈 장씨의 소생)과 그의 계비 선의 왕후 어씨의 능이다.

일반적으로 쌍릉은 좌우로 조성하나 이능은 앞뒤로 비껴 능역을 조성하였다.

경종은 숙종의 셋째 아들로 병약하고 자손이 없어 즉위년(1721)에 이복동생인 연잉군(영조)을 세제로 봉하였고 즉위 4년만인 37세에 승하하였다.

선의왕후는 함원부원군 어유구의 딸로 숙종 44년(1718)에 세자빈, 경종 즉위년에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소생없이 26세에 운명하였다. 왕릉과 왕비릉이 각각 단릉(單陵)의 상설을 모두 갖추고, 뒤에있는 왕릉에만 곡장을 둘러 쌍릉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16〉 의릉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광운전자공고	1	28	3	84	문화재 조사 환경정화 질서계도 안 내
5	개별신청	1	6	3	18	
계	1개교	2회	34명		102시간	

(14) 현인릉

① 문화재 소개

● 현 인 릉(獻仁陵)

○지정번호 : 사적 제194호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 13-1

○총 면 적 : 41만 1014평

현릉과 인릉의 합칭으로 조선왕조 제 3대 태종과 왕비 원경왕후 민씨의 능이다. 현릉은 원경왕후가 죽자 현위치인 광주(廣州)의 대모산(大母山)을 능지로 선정하였으며, 태종이 국상에 법석(法席)은 물론 원찰(願刹)도 금하여 현릉은 원당이 없으며 다만 현판류 8점이 남아있다.

현릉의 상설(象設)은 고려왕조의 현릉과 정릉의 제도를 답습하여 망주석을 제외한 모든 석물(石物)을 또 한벌 갖추어 쌍으로 배치하고 있다.

인릉은 조선왕조 제 23대 순조와 왕비 순원왕후 김씨의 능으로 자좌오향(子坐午向)의 동원합봉(同原合封)으로 이루어졌다.

인릉은 외형상 일반적인 단릉과 같이 혼유석 1좌만 있는 2실로 합장하였으며 명등석은 영릉(英陵)을 모방하였다.

능의 입구에는 능참봉가(陵參奉家)가 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17〉 현인릉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서현중	3	34	3	102	문화재 조사 환경정화 질서계도 안 내
5	서현중	5	107	3	321	
6	서현중	1	92	3	276	
	경기고	1	158	3	474	
계	2개교	10회	391명		1,173시간	

(15) 낙성대

① 문화재 소개

● 낙 성 대(落星堡)

○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4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48

○ 총면적 : 3만 1350㎡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이다.

낙성대의 옛이름은 금천(衿川)이며, 강감찬이 출생할 때 별이 떨어졌다 하여 낙성대라는 이름으로 전하여오고 있다.

서울시에서 1973년에 안국사를 짓고 사당안에 장군의 영정을 모셨으며, 이것이 곧 낙성대이다.

이곳에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삼층석탑이 있으며, 탑에는 “姜邯贊 落星堡”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1972년에 지방유형문화재 제 4호로 지정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안국사가 완성된 1974년 6월에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낙성대의 경우에는 하반기를 살펴보면, 〈표 Ⅲ-18〉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다양한 학교에서 소규모의 인원이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봉사활동을 한 학교들이 낙성대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은 이곳의 자원봉사활동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곳도 정릉과 마찬가지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보다는 자신들의 성장의 환경이자 터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며, 봉사의 시기도 처음의 프로그램 기획의도와는 달리 평일이나 주말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또래 집단끼리 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낙성대 역시 지역사회에서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표 Ⅲ-18〉 낙성대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동일여고	4	10	3	30	문화재 조사 환경정화 질서제도 안 내
5	동일여고	2	4	3	12	
	미성중	1	4	3	12	
6	동일여고	2	6	3	18	
7	동일여고	1	6	3	18	
9	봉천중	7	18	3	54	
	문성중	1	2	3	6	
	상도중	1	2	3	6	
	신림여중	1	2	3	6	
10	문성중	2	12	3	36	
	봉천중	3	21	3	63	
	봉천여중	3	10	3	30	
	문성여중	2	5	3	15	
	관악중	2	18	3	54	
	관악여중	1	2	3	6	
	강남여중	1	1	3	3	
11	관악중	4	46	3	138	
	봉천중	4	18	3	54	
	신림중	1	1	3	3	
	동작고	2	15	3	45	
	인현고	2	29	3	87	
	원일중	1	3	3	9	
12	봉천중	1	2	3	6	
	관악중	1	3	3	9	
계	16개교	50회	240명		720시간	

(16) 사육신묘

① 문화재 소개

●사 육 신 묘(師六臣墓)

○지정번호 : 지방유형문화재 제 8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1동 185-2

조선시대 1456년(세조 2)에 단종복위운동을 하다 순절한 6인의 묘로서 원래는 박팽년, 유응부, 이개, 성삼문의 묘만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1977년 하위지와 유성원의 가묘를 추방함으로써 사육신의 묘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이들 충신은 1445년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세조가 되자 충성심을 변치 않다가 세조원년(1456)에 사형을 당하였다.

그후 1681년(숙종7)에 그들의 충성심을 추모하여 민절서원을 세우고 1782년(정조6)에 이르러 신도비(神道碑)가 건립되었으며, 민절서원은 대원군에 의해 철폐되고 그 자리에 1954년 6각의 사육신비를 세웠고, 육신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인 의절사와 정문인 불이문이 있는데, 모두 9178년에 사육신 묘역의 정화사업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19〉 사육신묘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봉림중	3	20	3	60	문화재 조사 환경정화 질서제도 안 내
	영등포중	2	27	3	81	
5	봉림중	3	18	3	54	
계	2개 학교	8회	65명		195시간	

(17) 한우물

① 문화재 소개

●한우물 및 석구상과 주변산성지

○지정번호 : 사적 제 343호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 2동 산 634번지

● 한우물

호암산 정상에 한샘에서 흘러나온 샘물을 모이게 석축을 쌓아 만든 못으로 용복(龍伏), 천정(天井), 석구지(石拘池) 한우물(寒우물-찬우물)이란 여러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석축은 통일 신라시대 때 처음 쌓은 것인데 그후 조선시대 때 개축한 것으로 1990년 서울대학교에서 발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현재 석축은 동서 길이가 22m, 남북길이가 12m, 길이가 1.2m의 장방형체이다.

이 한우물의 유래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에 기우제용, 또는 군사용으로는 음료수로 사용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도읍설화에 의하면 서울장안의 화재발생을 막기위해서 소화용의 뜻으로 방화(防火)를 상징한 것이란 말도 있다.

● 석구상(石拘像)

한우물 동북방 50m지점에 서울장안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웠다는 조선시대 도읍설화와 관련된 석수상이 있다. 그래서 전에는 해태상으로 전하여 왔으나 1990년 한우물 발굴조사때 석축지에서 <石拘池>라는 명문이 새겨진 석재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 석수상이 석구상임이 확인 되었다. 길이는 11.7m 폭 0.9m 높이 1m 이다.

● 산성지(山城地)

호암산성은 호암산 정상부를 두른 통일 신라의 테뫼식 산성으로 둘레는 1250m 인데 이중 약 300m구간에 석축이 남아있다.

1990년 발굴 조사에서 연못 2개소, 건물지 4개소가 확인되고 많은 유물(청동 술가락 등)이 출토되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20〉 한우물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미성중	2	132	3	396	환경정화 방화선작업 문화재탐방
5	미성중	2	132	3	396	
6	미성중	2	132	3	396	
7	미성중	1	66	3	198	
8	미성중	2	132	3	396	
9	미성중	2	132	3	396	
10	미성중	2	132	3	396	
11	미성중	3	198	3	594	
계	1개 학교	16회	1,056명		3,168시간	

한우물의 경우에는 학교의 교사와 자원봉사 활동 지도자가 동일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 활동터전과 구분되는 독특성을 띄고 있다. 즉, 여느 터전과는 다르게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터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지도자들의 노력의 여하보다는 학교에서의 자원봉사 담당 교사의 역할과 관심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의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에 한우물의 경우에는 교사와 지도자가 통일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생김으로서 자원봉사를 요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조정하는 센터,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지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상호의 협조체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극복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협조체계 특히 학교의 담당교사와의 강력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18) 운현궁

① 문화재 소개

●운 현 궁

○소 재 지 : 종로구 운니동 98-50번지

〈표 Ⅲ-21〉 운현궁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개별신청	1	13	3	39	고건물 청소 유물정리 환경정화
5	개별신청	1	7	3	21	
계	1개 학교	2회	20명		60시간	

(19) 백제고분군

① 문화재 소개

●백제고분군

○소 재 지 : 강동구 방이동 산 47-4번지

〈표 Ⅲ-22〉 백제고분군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1회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서현중	3	34	3	102	문화재 조사 환경미화 질서계도 안 내
5	서현중	2	14	3	42	
6	정신여중	1	16	3	48	
7	정신여중	1	7	3	21	
9	당산중	2	53	3	159	
	방이중	2	24	3	72	
	오금중	1	5	3	15	
	가락중	1	5	3	15	
	석촌중	1	1	3	3	
	배명중	1	1	3	3	
	일신여상	1	1	3	3	
계	총 9개교	16회	161명		483시간	

2. 부산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 사업보고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각급학교에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활동자의 거주지를 고려 가까운 곳으로 학생들을 배치하고, 학생들이 한달에 평균 4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운영되었다. 특히 봉사참가자 수는 다른 센터와는 틀리게 자원봉사참여자 총수로 구성되어 있다.

2) 활동실적

(1) 참가 문화재수 : 총 23개 문화재

(2) 참가학교현황(143개교)

① 고등학교(50개교)

개금고, 건국고, 경남고, 경남공고, 경남상고, 계성여상, 광성공고, 구덕고, 금정전자공고, 남산고, 남성여고, 덕원공고, 대덕여고, 대동고, 대연여상, 대저고, 대진전자공고, 동래원예고, 동여고, 동인고, 동주여상, 동천고, 문현여상, 부산고, 부산공고, 부산공예고, 부산남고, 부산남여상, 부산서여상, 부산여고, 부산전자공고, 부산진여상, 브니엘고, 사대부고, 사직여고, 삼성여고, 서부산공고, 서여고, 성모여고, 성심여상, 영도여고, 주례여고, 중앙여고, 학산여고, 해동고, 해사고, 해운대고, 해운대여고, 해광고, 해화여고

② 중학교(93개교)

가야여중, 감천여중, 개금여중, 개성중, 거성중, 거제여중, 경남중, 광무여중, 광안여중, 광안중, 구서여중, 구포여중, 구포중, 금곡중, 금사여중, 금정여중, 낙동중, 남도여중, 남성여중, 남여중, 다대여중, 대신중, 대연여중, 대연중, 대천중, 덕명여중, 덕원중, 덕천중, 동래여중, 동래중, 동명여중, 동삼여중, 동신중, 동아중, 동주여중, 동평여중, 동평중, 동해중, 동현중, 망미여중, 모라중, 문현여중, 반송여중, 반송중, 백양중, 부곡여중, 부산서중, 부산여중, 부산중, 부산진여중, 부산진중, 부흥중, 사상중, 사직여중, 사직중, 사하여중, 사하중, 상당중, 석포여중, 성동중, 수영여중, 신곡중, 신도중, 신선중, 안락중, 엄궁중, 여명중, 연산여중, 연산중, 영남중, 영도여중, 영도중, 온천여중, 용호여중, 용호중, 이사벨여중, 장림여중, 장전중, 장평중, 재송여중, 재송중, 주례중, 중앙여중, 초읍여중, 초읍중, 충렬여중, 토현중, 하남중, 학산여중, 학장여중, 해운대여중, 화명중

(3) 참가 연인원 및 봉사활동 시간수

416회에 걸쳐 4,038명의 연인원이 참가. 총봉사활동 시간수는 총 40,967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문화유산 봉사활동 참가현황

월	봉사활동문화재	참 가 학교수	봉사활동 총 인 원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내용
3	문화회관 대강당	59개교	2,189명	6,567시간	실천결의대회
4	범어사의 22개문화재	93개교	306명	5,572시간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 지도 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의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동(洞) 유래조사
5	범어사의 22개문화재	90개교	389명	7,270시간	
6	범어사의 21개문화재	73개교	331명	6,197시간	
7	범어사의 21개문화재	68개교	269명	5,065시간	
9	범어사의 21개문화재	36개교	200명	3,836시간	
10	범어사의 20개문화재	30개교	188명	3,479시간	
11	범어사의 16개문화재	29개교	166명	2,981시간	
계	22개 문화재	478개교	4,038명	40,967시간	

3) 월별 활동상황

(1) 용두산 공원 · 대청 공원

① 문화재 소개

● 용두산 공원

○소재지 : 중구 광복동

○면적 : 20,908평

○연혁

1944. 1. 4 공원지정

1973. 10. 9 부산탑 건립

○부산시 기념물 제25호

○주요시설 및 볼거리

○부산항 조망(부산탐), 4.19의거 탑, 시민의 종, 전시관 등

●대청공원(일명 중앙공원)

○소 재 지 : 중구 대청동 외 4개구 8개동

○면 적 : 1,524,277평

○연 혁

1970. 9. 2 대청공원지정

1983. 9. 7 충혼탑 준공

○주요시설 및 볼거리

충혼탑 및 탁트인 부산항 조망 조각 전시장, 중앙도서관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24〉 용두산공원·대청공원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4	중앙여고 덕원중 경남중 부산공고 덕원공고 해동고 건국고	4	2 1 1 3 9 2 2	20	40 20 20 60 180 40 40	동(洞) 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 지도 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5	엄궁중 부산진여상 나성여고 서여고 해동고 덕원공고 대신중	8	8 6 1 1 5 3 2	20	160 120 20 20 100 60 40	
6	남성여고 동주여상 덕원중 부산중 해동고 중앙여고 개금여중	6	5 3 2 2 2 1 2	20	95 60 40 40 38 40 35	
7	부산진여상 부산고 삼성여고 개금고 성심여상	5	2 1 5 6 4	20	30 15 85 120 75	
9	삼성여고 부산공고 연산공고	5	19 3 1	20	378 60 20	
10	사직중	8	3	20	60	
11	장평중	5	46	20	920	
계	23개교		154명		3,031시간	

(2) 부산진지성(釜山鎭支城) · 정공단

① 문화재 소개

● 부산진지성(釜山鎭支城)

○ 지정번호 : 기념물 제7호 (1972. 6. 26)

○ 소재지 : 동구 범일동 690-5

흔히 자성대라고 부르는 이 성은 임진왜란 때 왜적이 부산성을 철고 성의 동남부에 일본 식의 성을 쌓아 지휘소로 이용했다. 왜적이 물러간 뒤에는 명의 만세덕군이 진주한 일이 있어 만공대라고도 했었다.

임진왜란 뒤에 다시 수축되어 좌도수군첨절제사의 진영으로 사용되었다. 1974년 정화공사로 신축된 건춘문(동문), 금루관(서문), 진남대(장대)와 함께 임진왜란때 왜적이 쌓은 2단의 일본식 성벽이 남아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25〉 부산진지성 · 정공단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4	부산서중	7	2	20	26	동(洞) 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부산고		3		38	
	덕원공고		4		52	
	부산진여상		1		12	
	동평여중		1		17	
5	동평여중	8	14	20	267	문화유적 지도 그리기
	부산고		4		61	
6	부산고	6	10	20	175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의로
	동평여중		2		40	
	동평중		1		20	
	부산서중		3		60	
7	부산서중	4	1	20	20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부산진중		3		58	
	동평여중		3		60	
9	성동중	4	19	20	335	지역전설조사
10	성동중	4	34	20	605	
11	성동중	5	7	20	120	
계	8개교		112명		1,966시간	

(3) 수영공원 · 좌수영 성지

① 문화재 소개

●수영공원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녹지대 공원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곰솔 나무와 푸조나무 그외 보호수 3그루가 있다.

공원의 가운데에 안용복 장군의 충혼탑이 서 있고, 그 뒤쪽에는 수영 고전 민속보전회 전수관이 남아있다. 이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적당한 장소이지만 수영의 고적과 민속, 천연기념물을 볼 수 있는 뜻 깊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좌수영 성지

좌수영서의 초기 축성의 연대는 알 수 없고 임진왜란 이전에 이곳에 좌수영을 이전하였을 때 이미 성이 있었다고 한다. 수영성의 위치는 지금 수영공원을 중심으로한 수영동 일원에 있었다.

길이는 1,392m, 높이 0.6~3m 이다. 이 성은 1972년 6우러 26일 부산직할시 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 8호로 지정되어 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26〉 수영공원 · 좌수영 성지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4	망미여중	7	2	20	30	동(洞) 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 지도 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동아중	6	1		15	
	석포여중	8	3		53	
	도현중	8	8		125	
5	도현중	8	2	20	40	
	광안중	8	1		20	
	망미여중	6	2		30	
	광안여중	8	3		56	
6	망미여중	8	6	20	120	
	석포여중		2		40	
	동여고		10		200	
7	망미여중	5	2	20	40	
	석포여중		17		335	
	동여고		6		120	
9	망미여중	5	4	20	80	
10	안락중	5	10	20	180	
	용호중		4		80	
11	안락중	5	5	20	100	
	부흥중		1		20	
	신도중		2		30	
계	11개교		91명		1,714시간	

(4)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① 문화재 소개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천연기념물 제 179호

○ 지 정 일 : 1966년 7월 13일

○ 면 적 : 3,400만평

○ 소 재 지 : 북구, 사하구, 강서구 일원

우리 나라의 최남단인 사하구 다대동에서 장림동, 하단동을 경유하여 북구의 엄궁동, 삼락동, 부곡동에 이르기까지 그 서쪽으로는 강서구의 명지동, 신호동, 및 경남 김해시 일부를 포함하는 광활한 낙동강 유역 일대는 옛날부터 유명한 철새의 도래지이므로 이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낙동강은 특히 그 하구에 크고 작은 삼각주가 많은데 을숙도를 비롯하여 장자도, 진우도 등 이들 삼각주 주변은 수심이 얕고 담수와 해수의 교류가 왕성할 뿐만 아니라 갯벌이 잘 발달하고 있어, 각종 프랑크톤과 소형어류등 철새의 먹이가 풍부하며 삼각주의 곳곳에 무성한 갈대숲과 초원도 철새의 먹이를 생산하고 또 그들의 휴식처와 보금자리가 되므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수많은 철새가 모여드는 곳이다.

낙동강의 하류에 많은 철새가 모여드는 또 다른 이유는 이곳은 지리적으로 대양을 향하여 돌출한 반도부의 최남단에 위치하므로 바다를 건너서 이동하는 철새들의 출입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한편 기후적으로는 이곳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철새들의 월동 및 휴식처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계절에 따라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다양한 철새들이 때로는 강상과 삼각주를 뒤덮고 웅비하는 장관은 낙동강 하류에서만 볼 수 있는 자랑거리라 하겠다. 또 낙동강 하류에서는 지금까지 130종 이상의 조류가 기록되었으며, 이와같은 유례는 다른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에 학술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세계의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27〉 낙동강 칠새도래지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사상중 엄궁중 연산중 대저고 주례여고	6 8 6 5 5	1 16 1 1 1	20	15 300 15 20 20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5	엄궁중 부산진여상 주례여고	8	7 2 1	20	135 26 20	
6	구포중 금곡중 구덕고 부산진여상 부산서여상	5	6 2 2 1 2	20	120 40 40 20 40	
7	대덕여고 금곡중 대동고 개금고 주례중 부산진여상	4	1 2 6 3 2 2	20	20 40 115 60 35 40	
9	구덕고 구포중 주례여고 대동고	5	2 9 1 14	20	40 170 18 274	
10	사직중 구포중 금곡중 대동고	5	1 8 2 2	20	20 112 40 40	
11	구포중	5	17	20	260	
계	15개교		115명		2,095시간	

〈표 Ⅲ-28〉울속도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내용
4	다대여중 덕원공고 경남상고 구덕고 부산서여상 사하중 대신중 장평중	5	33 6 1 2 1 1 2 1	20	604 95 15 40 20 20 40 20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5	다대여중 영남중 부산진여상 해동고 장림여중	5	33 3 1 6 1	20	646 57 20 120 18	
6	다대여중 영남중 엄궁중	6	18 4 1	20	349 77 20	
7	부산진여상 영남중 다대여중 동주여중 중앙여중 하남중 경남고 해광고 부산전자공고	5	2 1 8 2 1 2 1 3 1	20	40 17 139 34 17 34 17 42 14	
9	다대여중	5	5	20	100	
10	영남중 엄궁중	8	6 2	20	120 40	
11	부산여고 다대여중 대동고 장평중 엄궁중	5	2 5 3 10 1	20	40 97 50 173 17	
계	20개교		169명		3,152시간	

(5) 구포동 팽나무

① 문화재 소개

● 구포동 팽나무

○ 천연기념물 제 309호

○ 소재지 : 북구 구포동 대리마을

수령(樹齡) 500년의 부산·경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인데 키는 17m, 둘레는 5.5m이며, 수관폭은 동·서로 21.3m, 남북으로 23.4m이다. 동치에는 큰 혹이 있으며 우산모양을 연상케 하고 있다.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팽나무는 낙엽고목으로 함북이남의 평리에 많이 자라며 여러 가지 잔털이 있다.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10월에 등황색으로 익는다. 정월 대보름날에는 동민중에서 깨끗한 사람을 뽑아 마을의 평안과 풍농, 풍어를 지켜주는 당산(堂山)나무로서 신성시 되고 있다. 1982년. 11.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29〉 구포동 팽나무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덕천중 화명중 구포중 서부산공고	4	6 5 3 4	20	100 95 60 77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5	모라중 덕천중 백양중 부산진여상 서부산공고	6	1 9 5 3 3	20	20 160 80 60 55	
6	덕천중 화명중 백양중 부산진여상	5	3 5 3 2	20	60 100 60 40	
7	주례여고 구포여중 부산진여상 덕천중 구포중 신곡중 해운대고	4	7 5 1 2 2 5 1	20	135 95 20 40 40 75 15	
9	모라중 구포여중	6	9 4	20	180 80	
10	덕천중 구포여중	4	4 5	20	80 100	
11	화명중 부산서여상	5	4 6	20	75 105	
계	15개교		107명		2,007시간	

(6) 연산동 고분군

① 문화재 소개

●연산동 고분군

○부산시 기념물 제 2 호

○연산1동 산90-1번지 일원에 형성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배산 능선상의 정상부를 따라 10기의 수혈식 장방형 고분이 일렬로 배치되어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제작 연도를 살펴보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대에 영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연산동 고분군은 부산지역의 유일한 고층고분이다.

이 고분에서 출토되는 철제소칼(鐵製小札), 환두대도(環頭大刀) 등 철제갑주류는 고대의 한·일 관계 연구와 연산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으며, 또한 신라와 가야의 역학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유적이기도 하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30〉 연산동 고분군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역
4	광성공고 이사벨여중 대연여상 동명여중 성모여고 연산여중	4	2 1 2 5 1 2	20	35 20 30 100 20 40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5	경남공고 광성공고 이사벨여중 거제여중 연산여중 계성여상	6	1 1 8 1 16 1	20	20 13 142 15 304 13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6	연산여중	6	11	20	220	
7	개금여중 연산여중	4	9 6	20	170 115	문화유적 발굴활동
9	연산여중 동명여중	6	5 2	20	90 30	지역전설조사
10	연산여중 동인고 사직중	8	4 1 3	20	80 20 60	
계	12개교		82명		1,537시간	

〈표 Ⅲ-31〉 대신공원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감천여중 구덕고 중앙여중 장평중 삼성여고 동주여중 서여고	7	3 3 16 4 3 1 2	20	60 60 313 72 60 18 40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5	감천여중 중앙여중 대신중	5	2 7 3	20	40 135 58	
6	대신중 중앙여중 광무여중 서여고 부산진여상 남성여고	8	5 4 6 2 1 1	20	85 65 105 40 20 20	
7	대동고 부산진여상 대신중 중앙여중 사하여중 부산여중 남성여중	4	5 1 2 6 2 1 1	20	100 20 40 120 40 20 20	
9	경남중 대동고 중앙여중 엄궁중 삼성여고	5	12 2 6 3 4	20	223 40 111 58 75	
10	경남중	8	10	20	200	
11	경남중	5	6	20	100	
계	17개교		124명		2,358시간	

(8) 신 선 대(神仙臺)

① 문화재 소개

●신 선 대(神仙臺)

○지정번호 : 기념물 제29호 (1972. 6. 26)

○소재지 : 남구 용당동 산185

신선대는 부산시 기념물 제 29호로서 1972년 6월 26일에 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신선대라고 명칭이 불리게 된 이유는 신라말의 기인이었던 최치원 선생이 이곳에서 신선이 되어 유람하였다는 유래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으로서, 산봉우리에 있는 무제등이란 큰 바위에는 신선의 발자국과 신선이 탄 백마의 발자취가 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아래로 보이는 오륙도와 조도, 맑은 날씨에 수평선 멀리 나타나는 대마도의 전경은 명승지로 손색이 없을 만큼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32〉 신선대의 월별 활동현황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총 166회에 걸쳐 125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하였으며 그 봉사활동의 총시간을 산출해 보면, 1인당 월 평균 약 20시간씩 계산하여 전체 2,319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약 14개교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남구일대에 있는 학교로서 많은 학생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표 Ⅲ-32〉 신선대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용호여중 문현여중 대연중 용호중 대연여중 동천고 도현중	7	4 1 1 2 1 1 1	20	80 20 20 40 20 20 17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천설조사
5	대연여상 용호여중 대연여중 문현여중	8	5 11 4 11	20	89 160 98 189	
6	대연중 수영중 광안여중 석포여중 문현여중	8	3 4 2 1 26	20	55 77 40 20 464	
7	대연여중 문현여중 동여고	5	2 8 2	20	40 160 40	
9	문현여중 대천중	5	13 1	20	260 20	
10	문현여중	5	10	20	195	
11	석포여중 용호여중 문현여중	5	3 2 6	20	55 30 110	
계	14개교		125명		2,319시간	

(9) 태종대(太宗臺)

① 문화재 소개

●태종대(太宗臺)

○종 류 :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지정번호 : 제 28 호

○지정월일 : 1972년 6월 26일

○소재지 : 영도구 동삼동 산 29-1

태종대에 대한 기록으로 동래부지에 '태종대는 부남 삼십리 되는 절영도 동쪽에 있는데 해수가 주회하고 하나의 돌다리가 있어 노니는 사람이 겨우 통과하며 속전에 신라 태종 충렬왕이 이곳에 들러 활을 쏜 곳이라하여 이로써 이름하였다.' 라고 전해진다. 이와 같이 태종대란 이름의 기원에 다른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의 태종 임금도 이곳에서 유람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가뭄이 있을 때는 동래부사가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낸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음력 오월 초열흘날에 오는 비를 태종우라고 하는 것은 태종대 및 태종대왕과의 관련에서 지어진 이름이라 추정된다.

태종대의 최고봉은 해발 250m이며 이 봉우리를 중심으로 기암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소리가 우거진 수림과 어우러져 자연경관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명승지를 전국적인 관광유람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67년에 건설부에서 유원지로 고시하였고 전국적인 관광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69년에 교통부에서 관광지로 지정하여, 이때부터 태종대 개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원지로 개발된 이곳에는 4.3km의 태종대 해안일주도로가 1974년에 완공되었고 또 2km에 달하는 산책소로가 완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일주도로의 가장 남쪽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멀리 펼쳐지는 바다의 신비로움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맑은 날에는 수평선 넘어 대마도까지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름나 있다. 주변 여가시설로는 전망대, 등대, 곤포의 집, 자유랜드 등이 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33〉 태종대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영도여중 해사고 남도여중 신선중 남여중 영도여고 덕원공고 영도중	6	8 2 3 7 4 2 1 1	20	120 40 60 129 72 40 10 10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5	영도여중 신선중 영도여고 동삼여중 남도여중	6	6 11 1 5 8	20	115 205 20 100 160	
6	부산남고 덕원공고 남여상 계성여상 부산진여상 남여중 신선중	8	8 6 8 2 1 6 7	20	158 101 142 40 15 118 132	
7	남여상	4	3	20	55	
9	남여상 문현여상	5	3 1	20	58 13	
10	남여상 남여중 신선중	8	11 3 2	20	220 60 40	
11	신선중	5	5	20	100	
계	12개교		125명		2,333시간	

(10) 송상현 동상 주변

〈표 Ⅲ-34〉 송상현 동상 주변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개성중 대저고	4	3 1	20	40 15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5	초읍중 덕명여중 배정중 성모여고 개성중 덕원공고 제성여상 성심여상 중앙여고	8	5 2 2 1 1 3 3 6 2	20	95 36 40 20 20 54 60 100 40	
6	거성중 개성중 거제여중 가야여중 학장여중	7	1 17 1 3 4	20	20 268 20 60 80	
7	초읍여중 개금고	4	2 6	20	40 115	
9	개성중 부산진여중 성모여고	5	4 2 3	20	75 40 60	
계	18개교		72명		1,298시간	

(11) 범방동 삼층석탑(凡方洞三層石塔)

① 문화재 소개

● 범방동 삼층석탑(凡方洞三層石塔)

○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23호 (1989. 3. 10)

○ 소재지 : 강서구 범방동 1345

이 탑은 가락국 시조 수로왕 시대에 절을 지을 때 만들어진 석탑으로 전해오고 있으나, 탑의 구성과 각부의 양식 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건립으로 추정된다. 당시 건조된 사찰은 현재 찾아볼 수 없고 이 삼층의 석탑만이 남아 있다. 2중기단 위에 3층 탑신부를 구성한 일반형 석탑이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35〉 범방동 3층석탑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낙동중 부산서여상 백양중	6	18 2 1	20	390 30 20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5	성모여고 대동고 낙동중	8	1 3 10	20	20 60 160	
6	부산서여상 낙동중	5	2 4	20	40 75	
7	낙동중 동주여상 대동고	4	12 6 5	20	230 100 100	
9	낙동중	5	5	20	90	
10	낙동중 대동고	5	8 2	20	160 40	
계	7개교		79명		1,515시간	

(12) 동백섬과 인어상

① 문화재 소개

● 동백섬과 인어상

동백섬은 옛날에는 섬이었으나 장산폭포에서 흘러내린 물과 좌동 동쪽 부흥봉에서 내려온 물이 합류한 춘천이 좌동, 중동, 우동지역 충적평야의 모래를 실어내려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하고 정상에는 최씨문중에서 세운 최치원 선생동상과 비가 있으며 남단 암반 위에는 최치원 선생의 친필로 전하는「해운대」라는 석각이 있고 해안가에는 황옥공주의 전설이 얹힌 인어상이 있다.

황옥공주에 얹힌 전설이 전하여 오는 인어상은 1974년에 처음으로 설치하였으나 87년 태풍셀마호에 유실되어 현재 상체부분만이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에 보관중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의 명물로 사랑받던 해운대 인어상을 복원하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작품을 공모하여 동아대학교 임동락 교수의 작품을 선정, 89년 2월에 높이 2.5M, 무게 4t의 청동좌상인 인어상을 조선비치호텔옆 동백섬 해변에 설치하였다.

새로 제작된 인어상은 당초 것보다 규모가 크고 모양이 부드러워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으며 백사장 가까운 곳에 건립되어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이 쉽게 보고 즐길 수 있게 되어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동백섬과 인어상의 문화유산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다른 문화재보다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표 Ⅲ-36>동백섬과 인어상의 월별활동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 22개교에서 167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하였다. 총봉사활동 시간수는 3,129시간이다.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문화재보다는 비교적 많은 활동의 횟수를 보이는 데 이는 동백섬이 부산의 유명한 관광장소이고 부산이 가지는 위치적 특성상 바다가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놀이 공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많은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표 Ⅲ-36〉 동백섬과 인어상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해운대여고 재송중 해운대여중 대진전자고	6	9 2 1 1	20	142 30 15 12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5	해운대여고 반송여중 개금여중 부산진여상 성심여상 대연여상 부산공예고 연산여중 신도중 연산중 도현중 재송여중 신곡중	5	4 14 7 9 1 4 3 4 1 2 1 2 2	20	69 272 140 180 20 80 60 80 20 40 20 40 35	
6	해운대여고 연산여중 재송여중 재송중 수영여중 신도중 신곡중 대진전자고 부산공고 부산진여상	8	5 3 7 5 6 11 2 1 5 2	20	100 55 135 100 120 220 40 20 80 40	
7	신곡중 상당중 반송여중 대연여상	4	24 1 6 5	20	450 15 110 85	
9	반송중	5	5	20	94	
10	거성중	5	8	20	150	
11	재송중 남산고	5	1 2	20	20 40	
계	22개교		167명		3,129시간	

(13) 범어사 · 금정산성

① 문화재 소개

● 금정산성

○사적 제 215호

○성내면적 : 2,512평

○길 이 : 17,337m

○소재지 : 금정구 금성동 금정산일대

동래부 및 양산, 기장의 피난점 향전성으로 전장 17,337m, 높이 1.5~5m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성이다. 이 산성은 위치 및 규모로 보아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서 추측된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재 침입에 대비하여 경상감사 조태동이 숙종 29년(1703)에 돌로 쌓기 시작하여 숙종 33년(1707)에 동래부사 한배하가 중성으로 수축하였고, 순조 8년(1808) 동래부사 오한원이 중수하였다.

순조 2년(1824)에는 동래부사 이규현이 이곳에 별장(別將)을 배치하였다. 평상시에는 해월사, 국청사의 승려가 성벽의 보수유지를 담당하고 있었다.

일제의 암흑기에는 일인들에 의해 훼손, 황폐화되었던 것을 1972년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 2년에 걸쳐 동, 서, 남문을 복원한 후 꾸준히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범어사

범어사의 창건연대를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창건사적기나 고적기에서는 범어사가 신라 흥덕왕때(826~835) 창건된 것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 대체로 문무왕때 창건하여 흥덕왕때 증창한 것으로 본다.

범어사는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5대 사찰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특히 경내에 산재한 여러 가지 문화재들과 천연기념물 제 176호인 등나무가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거의 건축사적 종교사적 의의를 지니는 곳이다. 이곳 범어사는 특히나 금정산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사시사철 다양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어서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총 15개교에서 105명의 학생들이 1,876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금정산성과 범어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으로서 환경미화와 문화유적 답사활동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비교적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많은 참가를 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표 Ⅲ-37〉 금정산성·범어사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부산사대부고 동현중 연산여중 부곡여중 동인고 사직여중 토현중 장전중	4	2 2 2 7 1 1 1 1	20	40 30 30 145 20 20 15 15	
5	부곡여중 연산여중 동명여중 동현중 부산사대부고 부산진여상 동래원예고 부산공예고	8	10 3 1 4 2 1 1 1	20	195 60 20 70 40 20 20 20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6	부곡여중 부산사대부고 금정여중 금사여중	6	3 4 3 4	20	30 75 55 75	
7	금정여중 구서여중 부곡여중 동현중 부산사대부고	8	7 3 4 3 1	20	130 60 60 55 20	지역전설조사
9	동현중 부곡여중	6	1 3	20	15 58	
10	금사여중 금정여중	5	20 1	20	354 20	
11	금사여중	5	8	20	109	
계	15개교		105명		1,876시간	

(14) 동래 읍성지

① 문화재 소개

● 동래 읍성지

○ 지정번호 : 기념물 제 5호

○ 지 정 일 : 1972년 6월 26일

○ 규 모 : 1.962m, 높이 0.5~3m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 복천, 칠산, 명장, 안락동 일대

동래읍성지는 동장대가 있는 충렬사 뒷산에서 마안산을 거쳐 서장대가 있는 동래향교 뒷산까지의 구릉지와 현재 동래 시가지 중심지역인 평탄지 일부를 포함하는 지세에 전형적인 평산성(平山城)형식으로 축조되어 산성과 평지성의 장점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읍성이다.

고려말에서 조선초기 사이에 수축(修築)된 것으로 보이는 동래읍성은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때 동래부사 송상현공을 위시한 모든 군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장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임란초기의 최대 격전지이다. 임란이후 방치되어 있던 성을 1731년(영조 7) 동래부사 정언섭이 나라의 관문인 동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거의 성보다 훨씬 규모가 큰 읍성을 쌓았는데, 이 성이 현재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읍성의 기원이다. 읍성에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인생문(人生門) 및 암문(暗門)이 있고 각 문에는 문루(門樓)가 있었는데, 동문을 지희루(志喜樓), 서문을 심성루(心成樓), 남문을 무우루(無優樓), 암문을 은일루(隱一樓)라 하였다. 또 중요한 조문의 이중구조로 되어있으며, 서문·암문·북문에는 성문 보호를 위해 옹성을 부설하였고, 장대, 망루 및 115개소의 보루를 갖추고 있었다. 일제때 <시가지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서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평지의 성벽은 철거되었으며, 남문에서 동문에 이르는 성벽도 민가가 점유하여 마안산을 중심으로한 산지에만 성곽의 모습이 겨우 남아 있을 뿐이었다.

부산시에서는 현존하는 성지를 중심으로 훼손·방치되었거나 유지가 확인되는 곳을 보수·복원하고 있으며, 동래구에서는 남문(구 대동병원사거리), 서문(동래전화국 옆), 암문(동래구청 맞은 편)의 옛터에 표석을 세워 문화유적지의 원위치를 보존하고 있으며, 교육적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38〉 동래읍성지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학산여중	5	3	20	55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동신중		3		50	
	온천여중		6		78	
	충렬여중		7		140	
	대저고		1		20	
	대진정보고		1		20	
	부곡여중		9		180	
	동래중		3		50	
	브니엘고		1		20	
	부산진여상		2		40	
5	금정여중	5	1	20	20	
	동해중		12		185	
	부곡여중		1		20	
	금정여중		1		20	
	동래여중		1		20	
	온천여중		7		140	
	충렬여중		2		40	
	연산여중		2		40	
	여명중		9		165	
	동래중		4		60	
6	부산공예고	5	5	20	87	
	동해중		12		203	
	금정여중		12		220	
	동현중		1		20	
	충렬여중		5		100	
	사직여고		1		20	
	중앙여고		1		20	
	안락중		1		20	
7	충렬여중	4	8	20	160	
	해화여고		7		140	
	여명중		4		80	
	동신중		2		40	
	안락중		1		20	
	동해중		1		17	
	학산여고		1		20	
	동래중		2		36	

월	참가 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9	금정여중 학산여중 동해중 충렬여중 금정전자공고 대진전자고	6	10 3 8 2 1 1	20	200 60 351 40 20 20	동(洞)유래조사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10	동현중 동해중 토현중 여명중 충렬여중	6	9 3 3 2 7	20	55 60 150 40 98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11	토현중 동현중 여명중 동래중 부곡여중	5	4 3 4 1 10	20	70 60 65 15 160	지역전설조사
계	28개교		211명		4,030시간	

〈표 Ⅲ-38〉 동래읍성지의 월별 활동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일의 문화재에서는 부산에서 가장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한 문화재라는 것을 다른 문화유산의 월별활동현황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총 28개의 학교에서 211명의 학생들이 총 4,030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3. 대구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 사업보고

개별 문화재 활동은 청소년들이 지도자와 함께 문화재 조사 및 유래 등을 담당자에게 교육받고, 문화재 주위 환경정화 및 보호,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문화유산 캠프와 문화유산 조사 발표대회는 아래와 같다.

(1) 문화유산 조사 발표대회

- ① 목 적 : 본 센터에 소속된 문화유산 봉사단들이 97년 상반기 동안 조사한 문화유산을 발표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고장에서 문화유산 가꾸기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봉사활동 능력을 실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일 시 : 1997년 8월 6일 (수) 오후 2:00 - 6:00
- ③ 장 소 : 대구청소년수련원 시청각실
- ④ 참가인원 : 본 센터에 소속된 봉사단 200명
- ⑤ 내 용 : ○ 개회식
○ 격려사(본 센터 소장)
○ 1부 발표 : 각 학교별 문화유산 조사 발표(구남여상 외 11개 학교)
○ 2부 발표 : 각 학교별 문화유산 조사 발표(경북여중 외 18개 학교)
○ 1학기 우수 봉사활동 청소년, 지도자 상장 수여
○ 각 학교별 문화유산 조사내용 전시 및 관람
○ 공지사항 및 폐회

(2)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캠프

- ① 목 적 :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청소년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문화유산을 찾고, 알고, 가꾸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캠프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원을 중심으로 답사하고, 민족공동체 놀이 등을 실시하였다.
- ② 일 시 : 1997년 11월 1일 (토) 13:00~ 11월 2일 17:00 (1박 2일)
- ③ 장 소 :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시청각실, 생활관,
달성군,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현풍팍씨 12정려각, 도동서원,
곽재우(망우당) 묘비, 현풍 석빙고.
- ④ 참석학생 : 중·고등학생 75명
- ⑤ 참석학교(총 12개교)
대서중, 경운중, 불로중, 신암중, 감삼중, 평리중, 상서여중, 제일여중, 노전초등, 영남고, 대구상고, 경화여고
- ⑥ 참석 지도자 :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 25명
- ⑦ 행사 내용
○ 첫째날(11월 1일 토)
· 캠프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 개회 및 국민의례
- 인사말씀(대구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 축사(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계장)
- 문화유산의 이해 강의 (대구광역시 임업시험장 이정웅 장장)
- 조원소개, 조명칭, 문패 만들기
- 민속공동체 놀이 및 레크레이션 (한국청소년마을 경남지부 김두진 사무국장)
- 공동체 생활(합숙)
- 둘째날 - 식후 행사
 - 기상, 세면, 체조, 명상, 산책
 - 아침식사, 짐정리, 마무리, 인원점검
 -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민속자료 제3호) : 화원읍
 - 현풍곽씨 12정려각(문화재 자료 제29호) : 현풍면 지리
 - 도동서원 강당 사당 부 장원(보물 제350호) : 구지면
 - 광재우(망우당) 묘비 : 구지면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2) 활동보고

(1) 참가 문화재 수 : 65개의 문화재

(2) 참가 학교 수 (43개교)

① 고등학교(15개교)

경북공고, 경원고, 경화여고, 구남여상, 대구과학고, 대구상고, 대종금속공고, 상서여상, 송현여고, 영남고, 영송여고, 영진고, 현풍고, 화원여고, 효성여고

② 중학교(27개교)

감삼중, 경북여중, 경운중, 경화여중, 관천중, 남도여중, 대곡중, 대구남중, 대구동중, 대구여중, 대구중, 대명여중, 대서중, 불로중, 상서여중, 상인여중, 서부중, 성광중, 소선여중, 신당여중, 신암중, 안심여중, 제일여중, 청구중, 칠곡중, 침산중, 평리중

③ 기타(1개교) 노천 초등학교

(3) 총 참가 연인원

총 124회에 걸쳐 4,204명이 참가하였으며 시간시간수로는 16,823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Ⅲ-39〉 문화유산 봉사활동 참가현황

월	봉사활동 문 화 재	참 가 학교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3	청소년 수련원	26개교	1,280	3,840	실천결의대회
4	국립대구박물관 외 7개 향토문화	21개교	677	2,461	문화유산 교육 및 박물관 견학. 문화재 조사 정화활동 향토문화 찾기
5	파계사 원통전 외 45개 문화재 및 대곡중	11개교	574	2,854	
6	성모당 외 45개 문화재 및 향토문화	11개교	556	1,929	
7	달성 외 11개 문화재	3개교	454	1,396	
8	청소년 수련원	12개교	200	800	문화유산 봉사활동 1학기 발표대회
9	청소년 수련원	2개교	150	600	문화유산 봉사단 발대식 및 교육
10	동화사 대웅전 외 4개 문화재 청소년 수련원	12개교	163	843	문화재 조사·안내·정화 활동 및 문화유산 교육
11	도동서원 외 5개 문화재 및 청소년수련원	12개교	150	2,100	문화재 조사·안내·정화 활동 및 문화유산 봉사활동 캠프
12	청소년 수련원	예정	예정	예정	문화유산 봉사활동 발표대회 및 종료식
계	65개 지정문화재	43개교	4,204명	16,823시간	

2) 문화재별 프로그램별 월별 보고

(1) 대곡중 문화유산 봉사단 활동내역

① 문화재 소개

●석조유물(石造遺物)

○향토문화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1207-1번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1동 1207-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남여자상업고등학교 교정(校庭)에는 오래된 석조유물(石造遺物) 13점이 보존되고 있다.

이 유물은 타지방에서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이 학교법인 구남학원의 대표인 이경희(李慶熙)씨가 옮겨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작연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추정되며 종류도 다양하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자석상(童子石像)

이 동자석상은 1쌍으로서 1기는 머리부분이 없으며 좌측의 것은 완각이기는 하나 머리부분만 형상화 되어 있고 몸통의 아랫부분은 조형(彫形)의 흔적이 없다. 그 조성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규모는 높이 135cm, 폭 40cm(1쌍중 완전한 것) 정도인데 본래 달성군 화원면 유곡동 강능골에 있던 곳을 1945년에 이곳으로 옮겼다.

●석등(石燈)

교정(校庭)에는 3기의 석등이 보존되고 있다. 교사(校舍)를 향하여 우측에 있는 석등은 부단부(不壇部)가 쌍용(雙龍)이 교차한 형태로 석등을 받치고 있는데 조선중기(朝鮮中期)의 것으로 보이며, 가운데 석등 또한 조선중기의 것으로 본래 경산부 안심면의 산기슭에 방치(放置)되어 있던 것을 1945년에 현 위치로 옮긴 것이다. 우측의 석등도 조선중기의 것으로 삼용(三龍)이 교차한 형태로 기단부(基壇部)를 형성하고 있다. 교정(校庭)에는 그 외에도 석등의 옥개석(屋蓋石)과 기단석(基壇石)으로 보이는 석재(石材)가 화단에 있으며, 중간탑신부(中間塔身部)와 상륜부(上輪部)는 옮기기 전에 없어졌다.

② 대곡중학교 문화유산 봉사단의 월별 활동상황

대구광역시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는 상반기에 대곡중학교와 함께 문화유산 봉사단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였다. 상반기에 이루어진 이 활동은 많은 각 지역의 문화재를 찾아가서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환경정화 및 문화재 보호활동을 펼치면서 대곡중학교의 학생들이 문화유산의 인식을 높이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펼쳐나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표 Ⅲ-40〉대곡중학교 문화유산 봉사단의 월별 활동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곡중학교의 문화유산 봉사단은 상반기에 활동을 하였으며, 7개 문화재에 총 8회에 걸쳐 연인원 1,638명의 학생들이 5,745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0〉 대곡중학교 문화유산 봉사단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문화재명	참가 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두류공원	1	420	4	1680	문화재 조사
5	달서구 일대의	1	420	4	1680	
6	향토문화	1	420	3	1260	
7	월성동 주거지	1	42	3	126	정화활동 문화재 보호활동
	상동 지식묘	1	84	3	252	
	임휴사	1	84	3	252	
	낙동서원	1	84	3	252	
	석조유물	1	84	3	252	
계	7개문화재	8회	1,638명		5,754시간	

(2)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캠프 현황

① 문화재 소개

●현풍 석빙고

○지정번호 : 보물 제673호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638

현풍의 석빙고는 방실 길이 9m, 너비 5m, 높이 6m로 남북으로 길게 축조 되어 있으며 출입구가 능선쪽인 남쪽에 마련되어 있다. 축조 방법이나 시설 등은 경주.안동.창녕 등 조선 후기의 석빙고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양식이다.

이 석빙고의 축조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확실하지 않았으나, 1981년 11월 석빙고 주위의 보수 작업 때 '송정기원후 2경술 11월(崇禎紀元後 二庚戌十一月)'이라 쓰인 건성비가 발견됨으로써 1630년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경주 석빙고(1733)와 안동 석빙고(1737~40), 창녕 석빙고(1742) 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만들어진 조선시대 석빙고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석빙고는 아직도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곽재우 묘비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시대 : 1732년 (향토문화)

곽재우의 자는 계수(季綏)요, 호는 망우당(忘憂堂)이다. 1552년(명종 7)에 경남 의령

군 유곡면 세천리에서 출생하여 임진왜란때 의령에서 큰 공을 세웠고, 여러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관직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귀향하여 낙동강변에 망우당을 짓고 수확하면서 조용히 생애를 마쳤다. 묘역에는 봉분과 묘비가 있는데, 묘비는 1732년에 세워졌다. 조현명(趙玄命)이撰하고 이덕수(李德壽)가 하현형(下弦型)양식의 비 전면에는 “증병조판서행함경도 관찰사 망우당선생 곽충이공묘(贈兵曹判書行咸鏡道觀察使忘憂堂先生 郭忠翼公墓)”가 배면(背面)에는 “충정기원 후일백오년임자월(崇禎紀元 後一百五年壬子月)”이 각자(刻字)되어 있다. 비신(碑身) 高 132cm 폭(幅) 51cm, 厚 18cm이다.

●현풍곽씨 12정려각(玄風郭氏 十二旌閭閣)

○문화재자료 제29호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리 1348-2

이 건물은 1598년(선조31)부터 영조 때까지 솔례촌(率禮村)의 곽씨 일문(一門)에 포상된 12정려를 한 곳에 모신 정려각으로 조선 영조때 한곳에 모아 세웠으며 12칸의 다포식 팔작집이다. 6.25전란으로 건물의 일부가 파괴되고 비석 1구가 완파되었으나 1963년에 모두 중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키면 이를 국가에서 포상하며 정려하였는데, 한 마을에서 12정려가 나왔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효자 곽이상(郭履常), 곽이후(郭履厚), 열부(烈婦) 거창 신씨(居昌 愼氏), 곽씨(郭氏) 등은 1598년(선조31)에 정려를 받았고, 사효자 곽결(郭潔), 곽청(郭淸), 곽동(郭洞), 곽호(郭浩)와 열부 광주 이씨(廣州李氏)는 선조때, 열부 밀양 박씨(密陽朴氏)는 중종때에, 열부 안동 권씨(安東權氏)는 인조때에, 열부 전의이씨(全義李氏)는 영조때 정려를 받았다.

12정려각의 건물은 정면 12칸, 측면 2칸의 주심포 집으로 팔작지붕이며 내부에는 2기의 비석과 12개의 현판이 있다. 건물과 현판은 최근의 것이나 12정려각은 전국에서도 그 유래가 흔치않는 것 중의 하나로서 그 역사상과 정신적인 의의를

고려한다면 중요한 민족사적 유산이 되고 있다.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 (南平文氏 本里 世居地)

○지정번호 : 민속자료 제3호

○소재지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401-2일대

월배에서 화원초등학교를 지난 다음 천내교 바로 앞에서 왼쪽으로 굽어 들어가 천내천을 따라 3km정도 가면 왼쪽으로 한옥이 많이 보이는 곳이 인흥마을이며 바로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이다.

주택들은 산 밑의 양지바르고 아늑한 장소에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천내천이 흐르고 있어 명당의 기본적인 요건인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춘 마을이다. 마을은 주택 9호,

재실 2채, 문호 1개소 등 크고 작은 60채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평문씨는 목화씨를 들여온 고려시대의 충신 문익점이 종시조이다. 남평문씨가 대구에 입향한 것은 대체로 400여년전으로 추정되며 이곳 인흥에 터를 잡은 것은 문익점의 18세 손인 인산재(仁山齋) 문경호(文敬鎬, 1812~1874) 때 이다. 그는 문씨만의 마을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원래 절이 있었던 명당터인 이곳에 정전법에 따라 구획을 정하여 터전과 도로를 반듯하게 한 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거지에서 최초로 건립한 건물은 용호재(1834년)로서 현재의 광거당이 있는 곳이었다. 주택이 들어선 것은 1856년으로 처음에는 초가였으나 1873년 이후에는 모두 와가(瓦家)로 지어지게 되었다.

마을의 대표적인 건물중의 하나인 수봉정사(壽峯精舍)는 세거지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수봉선생이 돌아가신 후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36년 지은 건물이며 광거당(廣居堂)은 1910년 용호재터에 접객과 자제들의 학덕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이다.

서고인 인수문고는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1만여권의 책을 수집하여 보관하던 건물로 옆에는 도서의 열람을 위한 건물도 배치하였다.

이 곳 세거지는 건축연대가 200년 미만이나 전통적인 영남지방의 양반가옥의 틀을 지키고 있으며 오늘날의 도시계획처럼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는 등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마을을 구성한 예 또한 희소하여 큰 의의를 갖고 있다.

②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캠프의 활동현황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캠프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구 일원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재 알기운동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민족공동체 놀이 등을 실시한 프로그램으로서 97. 11. 1. 13:00시부터 97. 11. 2. 17:00시까지 1박 2일동안 중고등학교생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재의 소중함과 문화재를 보호에 관련된 봉사활동 그리고, 캠프의 단체생활 속에서 협동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의 흥미와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켜 주기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표 Ⅲ-41〉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캠프의 활동현황

월 · 일	참 가 학 교 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11월 1~2일	대구상고	2	2	14	28	문화재조사 보호활동 환경정화 문화재홍보
	대서중	2	30	14	420	
	경운중	2	18	14	252	
	경화여고	2	6	14	84	
	영남고	2	6	14	84	
	상서여중	2	2	14	28	
	불로중	2	1	14	14	
	신암중	2	1	14	14	
	제일여중	2	2	14	18	
	감삼중	2	3	14	42	
	평리중	2	1	14	14	
	노전초등	2	3	14	42	
계	12개교		75명		1,050 시간	

(3) 파계사

① 문화재 소개

● 파계사 원통전 (把溪寺 圓通殿)

○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7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

원통전은 일반적으로 관음전(觀音殿)이라고 하며,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주불로 봉안하는 불전을 말한다. 파계사는 중심전각인 원통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설선당, 적묵당 그리고 앞에는 진동루 등이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口' 자형을 이루고 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05년(선조 38) 계관법사가 중건하고, 1695년(숙종 21)에 현응조사때 삼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건축양식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으로 가구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춧돌을 놓은 후 둥근기둥을 올리고 있다. 법당 내부의 불단은 은해사(銀海寺) 백흥암(百興庵)의 수

미단(須彌壇)과 같은 형태로 정교하게 무늬를 새겨넣어 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있다. 불단의 상부에는 보개(寶蓋)를 설치하고 있다. 원통전 앞에는 좌우 양쪽에 당간지주와 석등이 배치되어 있다.

●파계사 설선당(把溪寺 說禪堂)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제7호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

설선당은 강당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원통전을 중심으로 적묵당과 마주하고 있다. 1623(인조 1) 계관법사에 의해 창건되어 두차례(1646, 1725)에 걸쳐 중건하였고 1762년 지붕을 다시 잇는 공사를 시행한 후 1976년에는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있었다.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7칸 규모로 전체적인 모습이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이며, 구조양식은 고북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공포가 갖추어지지 않은 민도리집이다.

이 건물은 대웅식당과 강습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양식과 가구수법 등이 간결하면서도 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파계사 산령각(把溪寺 山靈閣)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제8호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

산령각은 산신각이라고 하기도 한다. 산신각은 산신을 봉안한 건물로 우리나라 사찰 특유의 전각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짐작케 하는 좋은 증거가 된다. 산신은 원래 불교와 관계가 없는 토착신이나 불교의 재래신앙에 대한 수용력에 의하여 사찰내에 봉안되게 되었다. 산신신앙은 우리나라 특유의 산악숭배신앙과 관련이 깊지만 조선시대 이후 차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신앙은 불교 본연의 것이 아니라 하려 전(殿)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각(閣)

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

파계사의 산령각은 창건년대는 알 수 없으나 화강석 외별대 기단위에 건립된 정면 1칸 후면 1칸 규모의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구조양식은 화강석 정평초석위에 원주를 세우고 주상에 주두와 함께 양서와 봉두를 장식한 초익공 양식이다. 3량가로 구성된 지붕 하부구조는 우물천장으로 가려져 있고 건물 내, 외부에는 금단청을 올렸다.

이 건물은 조선 후기에 발달한 번잡한 공포의 장식수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파계사 적묵당(把溪寺 寂默堂)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제9호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

적묵이란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한다는 뜻을 가진 불교용어이다. 적묵당은 원통전의 원

쪽에 설선당과 마주보고 있는 ‘ㄱ’자형의 건물로, 소박한 조선후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804년(애장왕 5)에 창건되었다는 사전과 1620년(광해군 12)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1695년(숙종 21)에 중건되고 1920년 중창되었으며, 1976년 기와를 다시 있는 공사가 있었다. 건물은 정면 6칸으로 전면만 겹처마를 한 팔작지붕이다.

●파계사 진동루(把溪寺 鎭洞樓)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제10호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

파계사 원통전 앞에 있는 누각으로 1715년(숙종 41)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은 원래 물의 줄기가 9갈래로 흩어져 있다하여 물길을 다시 모은다는 의미로 파계사라 이름하였다 하며, 진동루는 파계라는 이름만으로는 이 곳의 기를 제압할 수 없어 기를 진압한다는 의미로 이름하였다 한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2층으로 가공하지 않은 방형의 주춧돌 위에 둥근 기둥을 세우고 팔작집붕을 하고 있다. 아래층 어칸을 통로로 하고 축간의 뒷부분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에는 통간 우물 마루를 했다.

건물의 규모에 비해 부재가 다소 약한 감이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문은 모두 미닫이 유리문을 달아 어색한 있으나 익공 등에서 볼 때 조선시대 중.후기 양식에 어울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파계사 기영각(把溪寺 祈永閣)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제11호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

기영각은 영조대왕을 위해 기도한다는 뜻으로 이름한 전각이다. 1696년(숙종 35) 현웅조사가 성전암(聖殿庵)과 더불어 건립하였다고 전해지며 1974년과 1983년의 두 번에 걸친 보수공사가 있었다.

건물은 화강석 바른층쌓기 기단위에 건립된 정면 3칸, 후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구조양식은 덩병초석 위에 원주를 세우고 주상에 주두와 함께 양서와 수서를 장식한 외일출목 주심포계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주두와 장식이 번잡하게 발달한 조선후기 공포양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상부기구는 5량가이나 우물천장으로 가리어져 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42〉 파계사 원통전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5	구남여상	1	9	8	72	문화재 조사,보호, 정화활동

(4) 관풍루(觀風樓)

① 문화재 소개

● 관풍루(觀風樓)

○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제3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94-1 (달성공원)

관풍루는 현재 달성공원내 수은 최재우 선생의 동상 뒷편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원래 경상감영의 정문이었다. 대구에 감영이 설치되면서 선화당의 정남쪽에 포정문을 세우고 그 위에 문루 즉, 관풍루를 만들었다. 이 누각은 감사가 누 위에서 세속을 살핀다(觀風世俗)는 뜻으로 이름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시는 누각 주위에 큰 북, 종, 피리, 나팔 등의 기구를 갖추어 놓고 매일 밤 10시에 문을 닫고 새벽 5시에 문을 여는 풍악을 올렸다고 한다. 풍악소리에 맞추어 동, 서, 남, 북 4개의 성문을 여닫는 의식 절차가 엄숙히 행하여져 폐문루(閉門樓)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워졌다.

현재 달성공원 북쪽에 옮겨진 관풍루는 1906년 당시 관찰사 박중양이 대구 읍성을 헐어 낼 때 건물만 그대로 옮겨졌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1970년 해체하였다가 1973년 복원하였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화강석 외벌대 기단을 조성한 후 바닥은 전을 깔았다. 건물의 아래층은 어칸(御間)이 양 협칸 보다 넓으며, 윗층은 우물마루 통칸으로 내면에 한자 가량의 쪽마루를 내밀고 계자난간을 둘렀다. 아래층에는 뒤쪽 어칸 바로 앞에 한 칸 길이로 반칸폭의 나무계단을 설치하여 윗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게 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내림마루에는 잡상(雜像)을 두어 장식하였다. 전체 구조양식은 화강석 정평초석 위에 둥근 기둥을 세운 이익공 양식이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43〉 파계사 원통전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6	대구남중	1	60	5	300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7	신당여중	1	16	4	64	
계	2개교	2	76명		364시간	

(5) 대덕산성 (大德山城)

① 문화재 소개

●대덕산성 (大德山城)

○지정번호 : 지방 기념물 제 7 호,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산224일대

성은 대구분지의 남쪽 경계에 자리한 대덕산에 축조되어 있다. 성이 있는 대덕산은 해발 600여m나 되는 높은 산으로 동남쪽으로는 산성산과 비슬산으로 이어지고 반대쪽인 서남쪽은 낙동강과 금호강의 충적(沖積)평야와 접한다. 성은 북편으로는 대구분지를, 서편으로는 낙동강과 금호강 사이의 평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축조되었다.

성의 형태는 '안지랭이'라 부르는 깊은 계곡을 가운데 두고 그 둘레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다. 포곡식 산성이란 성안에 계곡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주변의 산세와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성벽을 쌓으므로써 산정식 보다 규모가 크며 수원이 풍부하고 활동공간이 넓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노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형태의 산성을 말한다.

이 성곽은 둘레가 약 3km에 달하고 대부분 가파른 자연 절벽을 이용하였으며 완만한 지형에만 자연석을 이용해서 축조하였다. 성은 대개가 붕괴되어 성벽의 높이는 알 수 없으나 석축상태가 조잡하고 사면에 관측법으로 쌓은 점, 성 내부가 넓은 점 또한 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예 그릇과 와편 등으로 미루어 삼각시대 후기에 축조된 석성(石城)으로 추측되며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걸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국립대구박물관

〈표 Ⅲ-44〉 국립대구박물관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 교 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4	상인여중	1	18	3	54	문화유산교육 박물관 정화활동 박물관 견학
	경복여중	1	16	3	48	
	동중	1	12	3	36	
	소선여중	1	9	3	37	
	서부중	1	7	3	21	
	성광중	1	20	3	60	
	신당여중	1	13	3	39	
	남도여중	1	6	3	18	
	안심여중	1	22	3	66	
	청구중	1	12	3	36	
	대구여중	1	9	3	27	
	대서중	1	9	3	27	
	영진고	1	24	3	72	
	영송여고	1	5	3	15	
	상서여상	1	22	3	66	
	대중금속공고	1	8	3	24	
	대구상고	1	7	3	21	
	과학고	1	17	3	51	
	경원고	1	11	3	33	
	현풍고	1	10	3	30	
계	20개교		257명		781시간	

(7) 두류공원 - 달서향토문화, 비, 탑, 동상

〈표 Ⅲ-45〉 두류공원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4	대곡중	1	420	4	1680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5	서부중	1	4	8	32	
6	관천중	1	4	8	32	
계	3개교	3회	428명		1,744시간	

(8) 불로동 고분군, 송정동 석불입상

〈표 Ⅲ-46〉 불로동 고분군 · 송정동 석불입상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5	안심여중	1	26	7	182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6	안심여중	1	18	3	54	
계	1개교	2회	44명		236시간	

(9) 청도 운문사

〈표 Ⅲ-47〉 청도 운문사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5	경북공고	1	8	8	64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10) 경북대 박물관

〈표 Ⅲ-48〉 경북대 박물관의 월별 활동 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5	영진고	1	29	8	232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11) 용연사 - 극락전, 삼층석탑, 석조계단

〈표 Ⅲ-49〉 용연사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5	상서여상	1	31	8	248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12) 내곡 모감주나무 군락, 용암산성

〈표 Ⅲ-50〉 내곡 모감주나무군락 · 용암산성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5	대구여상	1	13	8	104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13) 신당동 석장승

〈표 Ⅲ-51〉 신당동 석장승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5	상인여상	1	19	8	152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6	대곡중	1	42	3	126	
계	2개교	2회	61명		278시간	

(14) 칠곡향교 대성전, 귀암서원

〈표 Ⅲ-52〉 칠곡향교 · 귀암서원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5	영송여고	1	7	8	56	문화재 조사,보호, 정화활동

(15) 남지장사

〈표 Ⅲ-53〉 남지장사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5	대중금속공고	1	8	4	32	문화재 조사,보호, 정화활동

(16) 봉무토성, 독암서원

〈표 Ⅲ-54〉 봉무토성 · 독암서원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5	청구중	1	2	4	8	문화재 조사,보호, 정화활동

(17) 성모당, 대구향교

〈표 Ⅲ-55〉 성모당 · 대구향교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6	대서중	1	6	5	30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7	경복여중	1	18	4	72	
계	2개교	2회	24명		102시간	

(18) 건들바위, 진주하씨묘 출토유물

〈표 Ⅲ-56〉 건들바위 · 진주하씨묘 출토유물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6	대구동중	1	5	7	35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19) 선화당, 징청각

〈표 Ⅲ-57〉 선화당 · 징청각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6	서부중	1	9	8	72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20) 영영축성비, 대구부수성비

〈표 Ⅲ-58〉 영영축성비 · 대구부수성비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6	소선여중	1	4	4	16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21) 부인사

〈표 Ⅲ-59〉 부인사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6	칠곡중	1	5	6	30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22) 사월동 지석묘군

〈표 Ⅲ-60〉 사월동 지석묘군의 월별 활동 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6	과학고	1	23	4	92	문화재 조사, 보호, 정화활동

(23) 동화사 - 대웅전, 당간지주, 수룡향탄금계포석, 통일대불

〈표 Ⅲ-61〉 동화사 월별 활동 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10	대구상고	1	4	6	24	문화재홍보 보호활동 환경정화 문화재조사
	대서중	1	50	6	300	
	경운중	1	38	6	228	
	경화여고	1	10	6	60	
	영남고	1	12	6	72	
	상서여중	1	4	6	24	
계	6개교	118명			708시간	

(24) 청소년 수련원

〈표 Ⅲ-62〉 청소년 수련원의 월별 활동상황

월	참 가 학 교 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8	경원고	1	17	4	68	문화재 조사 발표대회 활동내용발표 소감발표 평가발표
	경북공고	1	7	4	28	
	대중금속공고	1	11	4	44	
	영송여고	1	6	4	24	
	상서여상	1	14	4	56	
	대곡중	1	85	4	340	
	청구중	1	13	4	52	
	침산중	1	6	4	24	
	서산여중	1	7	4	28	
	안심여중	1	16	4	64	
	신당여중	1	6	4	24	
	상인여중	1	12	4	48	
9	대구상고	1	15	4	60	제2기 문화유산 봉사단 발대식 문화유산 교육 봉사활동 계획세우기
	대서중	1	135	4	540	
10	경운중	1	22	3	66	
	경화여고	1	6	3	18	
	영남고	1	6	3	18	
	상서여중	1	2	3	6	
	대구여중	1	5	3	15	
	대곡중	1	4	3	12	
계	20개교	20회	395명		1,535시간	

4. 인천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 사업보고

인천센터의 경우에 운영방식에 있어서 문화유산 봉사활동이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사회전문봉사반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집중적인 지도를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유산 자원봉사자들을 매월단위로 모집하여 한달씩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사회전문 봉사반의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전문 봉사반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문화유산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중에서 문화유산 사회전문 봉사반 프로그램이 있다. 1~3기 까지 총 12회에 걸쳐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단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프로그램명 : 문화재보호 사회전문봉사반

② 목 적 :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실천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지역사회 전통문화유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 봉사활동 영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③ 활동기간 : 총 12회 (1~3기)

- 제1기 : 3월 중 (8일, 15일, 16일, 22일)
- 제2기 : 5월 중 (17일, 24일, 25일, 31일)
- 제3기 : 10월 중 (11일, 18일, 19일, 25일)

④ 활동내용

- 1주차 (자원봉사 이론교육 및 시청각교육, 박물관 교육)
- 2주차 (문화재 전문교육 및 체험활동, 분반활동)
- 3주차 (문화유적 탐방 및 조사, 봉사활동 실천)
- 4주차 (활동보고서 작성 및 발표, 소감문 작성)

⑤ 세부일정

〈 1 주 차 〉

일 시	교육내용 및 활동
15:00~15:30	신청·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15:30~16:00	자원봉사 이론교육 (교육 - 최 종 애 교육개발부장)
16:00~16:30	시청각교육 - '인천의 역사화 문화' VTR 시청
16:00~18:00	문화재관련 기초교육 -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 (인천시립박물관 견학 및 교육 - 김 상 열 학예연구사)

〈 2 주 차 〉

일 시	교육내용 및 활동
15:00~16:00	문화재 전문교육(강사 - 이형석 가천문화재단 문화부장) -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유산 - 인천의 유래와 역사, 문화유산 및 문화재현황
16:00~17:00	은율탈춤 배우기(강사 - 차부회 은율탈춤 보존회 사무국장) - 탈춤의 유래와 종류 - 은율탈춤의 이해 (내용, 특징) - 은율탈춤 실습 (기본 사위 익히기)
17:00~18:00	분 반 활 동 - 자기소개, 봉사활동 이미지 측정, 자유토론 - 문화유적 답사 준비

〈 3 주 차 〉

일 시	교육내용 및 활동
10:00~10:20	인원점검 및 오리엔테이션
10:20~12:30	문화유적 탐방 : 인천향교 → 인천도호부청사 → 학산서원터 → 삼호현 (사모지고개) 봉사활동 실천 : 문화유적 주변 환경정화
12:30~13:30	점심식사
13:30~15:00	문화유적 탐방 : 청학사 → 패총(조개무지) → 백제우물터 봉사활동 실천 : 문화유적 주변 환경정화

〈 4 주 차 〉

일 시	교육내용 및 활동
15:00~16:40	분 반 활동 - 문화유적 탐방 분반별 활동보고서 작성 - 자유토론 : 문화유산의 해 봉사활동내용 토론 - 분반별 활동보고서 발표 및 소감발표
16:40~17:30	분반별 활동보고서 발표 및 평가
17:30~18:00	종합정리 및 개인별 소감문 작성

2) 활동실적

(1) 참가 문화재 : 총 32개 문화재

(2) 참가학교수(총 104개)

① 고등학교(41개교)

경인여상, 계산고, 계산공고, 대인고, 동산고, 동인천고, 명신여고, 문성여상, 박문여고, 백석고, 부개여고, 부광고, 부평여고, 부평고, 부평공고, 부평여상, 부평여자공업고, 서인천고, 선인고, 선화여상, 신명여고, 영일외국어고, 운봉공고, 운산기공, 인성여고, 인천고, 인천과학고, 인천기계공업고, 인천여고, 인천여상, 인천여자공업고, 인천전자공고, 인천정보산업고, 인천제일상업고, 인하부고, 인항공, 제물포고, 중앙여상, 청학공고, 학익고, 학익여고

② 중학교(56개교)

가정여중, 가좌여중, 가좌중, 간석여중, 갈산중, 김단중, 계산중, 계양중, 관교여중, 관교중, 광성중, 구월여중, 구월중, 남동중, 대현중, 동암중, 동인천여중, 동인천중, 만성중, 만수북중, 만수여중, 만수여중, 만수중, 박문여중, 부광중, 부원중, 부일여중, 부일중, 부평서여중, 부평여중, 부평중, 복인천여중, 산곡남중, 산곡여중, 산곡중, 상인천여중, 상인천중, 서곶중, 서울사대부중, 선화여중, 송도중, 송덕여중, 신현여중, 신흥여중, 안남중, 연성중, 연수중, 용현여중, 인천남중, 인천여중, 인하부중, 입학중, 제물포여중, 청량중, 청학중, 효성중

③ 기타(초등학교 4개소)

(3) 참가 연인원 및 봉사활동 총시간

연인원 4,866명이 261회 참가. 봉사활동 총시간 18,287시간

이러한 인천광역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방식을 살펴보면 다른 센터의 경우와는 달리 문화재별 월별활동실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수의 복수문화재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의 <표Ⅲ-63> 문화유산 봉사활동 참가현황 항목으로서 대신한다.

<표Ⅲ-63> 문화유산 봉사활동 참가현황

월	봉사활동 문 화 재	참가 학교	총활동 인 원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비 고
3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문학산 일대	89개교	1,714명	7,046시간	실천결의대회 문화유적 답사	제1기 문화재 사회전문 봉사반
4	이승훈 묘소 자유공원 외 4곳	38개교	713명	2,704시간	문화유적 답사 문화재보호 캠페인	
5	은율탈춤 전수관 문학산 일대 시민회관 외 5곳	30개교	461명	2,088시간	은율탈춤 행사보조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산의 해 홍보	제2기 문화재 사회전문 봉사반
6	논현포대, 소래포대지 근린공원 외 4곳	31개교	384명	1,188시간	문화유적 조사탐방 문화재보호 캠페인	
7	영종도 일대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백운공원 외 6곳	35개교	440명	1,411시간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산 홍보활동 문화유산의해 행사보조 주변 환경정화 활동	
8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수봉공원 외 5곳	23개교	435명	1,600시간		
9	월미도 문화의 거리 문예회관 외 4곳	29개교	224명	672시간		
10	문학산 일대 시민회관 외 5곳	26개교	373명	1,212시간		제3기 문화재 사회전문 봉사반
11	수봉공원 외 3곳	12개교	122명	366시간		
12	자원봉사센터	제1~3기 문화재보호 사회전문봉사반			문화유산 봉사활동 종합정리 및 소감발표	
계		313개교	4,866명	18,287시간		

※ 문화재보호 사회전문봉사반을 1개교로 포함.

3) 봉사활동 문화재 소개

(1) 인천향교

●인 천 향 교(仁川鄉校)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11호

○소 재 지 : 인천 남구 관교동 117

향교는 공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성현을 모시는 제사기능과 지방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인천향교는 <동국여지승람>에 최항(崔恒 : 1409~1474)의 중수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세조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병자호란때 향교가 불타 위패만 간신히 모시다가 숙종 27년(1702)에 지금의 향교모습으로 중건되었다.

주요 건물로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 우리나라와 중국 성현의 위패를 모신 동·서 양무와, 교육생들의 강당인 명륜당, 그리고 유생들의 처소인 동·서 양재 등이 있다. 건축양식은 팔작지붕인 명륜당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맞배지붕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인천도보부청사 (仁川都護府廳舍)

●인천도보부청사 (仁川都護府廳舍)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1호

○소 재 지 : 인천 남구 관교동 47번지

인천이 도보후로 승격된 것은 조선 세조 6년(1460)으로 세조의 어머니 소헌왕후 심씨(세종비)의 진외가였기 때문이다. <인천부읍지>에 따르면 인천도호부에는 객사·동헌·내동헌·삼문·사령청·향청·군관청·훈무당·옥사·어용고·군기청 등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객사의 일부와 동헌의 일부만 남아있다. 인천도호부청사의 정확한 건축년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강희맹이 쓴 <인천부승호기>에 의하면 세종 2년(1424)에 이미 청사가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건축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나, 현재의 건물이 조선 초기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객사 지붕의 기와에서 “강희 16년(숙종 3년 : 1677)”이라는 명문이 나온 것을 볼 때 중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중 객사는 맞배지붕 주심포집으로 당초 20칸이었으나 대부분 없어지고 정면 3칸, 측면 2칸만 남아 있다. 또한 내동헌은 팔작지붕 도리집 형식으로 당초 10칸이었는데 정면 6칸 측면 3칸만 남아 있다.

(3) 은율탈춤(殷栗탈춤)

●은율탈춤 (殷栗탈춤)

○지 정 번 호 :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소재지 : 인천 남구 송의4동 (은율탈춤 보존회)

○기능보유자 : 장용수, 김춘신

황해도 서쪽의 평야지대였던 은율에 2~3백년전 어느 반란때 사람들이 난리가 일어나자 피해 섬에서 나오면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썼던 탈이 은율탈춤의 유래로 전해진다. 은율탈춤은 봉산탈춤, 강령탈춤과 함께 해서탈춤에 속하며 4월 초파일, 5월 단오, 7월 백중에 행해진 우리 민속 가면극이다.

이 탈춤의 구성은 사자춤, 상좌춤, 팔목중춤, 양반춤, 노승춤, 미알할미 영감춤 등 6개 과장(科場 :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연 인원은 대략 22명이며, 공연시 사용되는 악기는 필, 젓대, 북, 장고, 해금, 새납(호적), 징, 뽕가리 등이 사용된다.

황해도 탈춤을 대사, 의상, 무법 등의 유형으로 보아 봉산탈춤형과 해주탈춤형의 두가지로 나눌 때 은율탈춤은 상호교류와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황해도 탈춤의 대표적 본보기라 할 수 있다.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탈춤으로서 현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전수활동을 하고 있다.

〈은율탈춤(殷栗탈춤)의 과장별 해설〉

과장별 탈춤	내용
제1과장 (사 자 춤)	사자춤은 개장을 알리는 의식무로 백사자와 마부가 등장하여 탈판의 잠귀를 쫓고 탈판을 정리한다. 은율탈춤의 백사자는 다리가 여섯 개 달린 초대형 사자이며 2인이 들어가는 다른 탈춤이 사자와 비교된다.
제2과장 (상 좌 춤)	흰 장삼에 흰 고깔을 쓰고 꽃가사를 양어깨에 맨 상좌 1인이 등장하여 사방에 배례하며 춤을 추는 의식무로서 염불, 타령 장단으로 춤을 춘다.
제3과장 (팔 목 중 춤)	울긋불긋 원색의 더거리에 좌청우홍의 댕님을 매고 시뻘건 탈을 쓴 타락한 8명의 목중이 등장하여 재담을 하며 각기 나름의 춤을 춘다. 씩씩하고 활달한 황해도 탈춤의 남성미가 넘치는 마당이다.
제4과장 (양 반 춤)	양반의 권위를 비웃는 과장이다. 말뚝이가 양반을 모욕하는 장면에 이어 새맥시와 원숭이의 음란한 춤이 이루어지고, 쇠팔이가 등장하여 자기 아이라고 으르면서 꼬득이 타령을 부른다.
제5과장 (노 승 춤)	승려의 종교적 권위를 비웃는 과장이다. 노승이 새맥시와 어울려 놀아나면서 파계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제5과장 (미 할 할미 영감춤)	영감과 할미, 똥판지집의 삼각관계를 그린 풍자과장이다. 똥판지집이라는 젊은 첩에게 떠밀려 죽은 할미의 혼을 달래기 위해 무당이 등장하여 추는 진오귀굿이 돋보인다.

(4) 논현포대(論峴砲臺)

● 논현포대(論峴砲臺)

○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6호

○ 소재지 :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5-56

소래포구에서 약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논현포대는 병인·실미양요를 거치면서 경기연안의 군비강화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가 해안을 통해 서울로 진입하는 외세를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 어영대장 심정희와 강화 유수 이경하에게 명하여 경기 연해의 군사시설을 확충토록 함으로써 1879년 축조되었다.

2개의 포좌로 구성되어 있는 이 포대의 축조 형식은 아랫부분은 잡석으로 쌓고 중단과 상단은 어느정도 다듬은 장대석을 쌓았으며, 그 위에 봉토를 함으로써 마감하였다. 또한 포좌에는 지형 여건상 이동식 홍이 중포 2문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포좌만 남아있으며 축조 당시에는 지명을 따서 호구포대로 명명하였으나 현재는 논현포대로 부르고 있으며 2개의 포진지와 포 2문이 남아있다. 포대 축조 후 이 포대는 인근에 설치되었던 묘도포대, 제물포대 등과 함께 화도진에 소속되었으나 1894년 화도진이 철폐되면서 이 포대도 폐쇄된 것으로 추측된다.

● 소래포대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소래포구는 현재 어시장으로 발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찾고 있다. 소래 포구로서 구한말에 존재하던 소래포대지(포진지)를 봉사단원들이 직접 지역유지들과 주민들을 수소문하여 찾아보았다. 구한말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소래포대지는 현 땡구산(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말)위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땡구산 정상에 위치했던 포진지는 현재 그 위치만 밝혀졌고, 당시의 규모나 설비들은 찾아 볼 수 없다(약 10평 정도)

(5) 용궁사(龍宮寺)

● 용궁사(龍宮寺)

○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15호

○ 소재지 : 인천 중구 운남동 667

영종도 백운산 동북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용궁사는 신라 문무왕 10년(670)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조선 철종 5년(1854) 홍선 대원군에 의해 중수되면서 현재의 명칭인 용궁사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용궁사 경내에는 관음전, 용황각, 칠성각, 요사채 등의 건물과 최근에 조성한 높이 11m의 미륵불이 있다.

건축양식을 살펴보면 관음전은 맞배지붕에 홀처마집으로 기둥에는 해강 김규진이 쓴 4개의 주련(柱聯 : 기둥에 붙이는 시의 연귀)이 있으며, 그 안에는 본래옥석으로 조각한 관

음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인제때 도난당하고 현재는 청동관음상이 봉안되어 있다. 또한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요사채는 맞배지붕에 홑처마집으로 건물 정면에는 대원군이 친필로 쓴 용궁사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용궁사 느티나무 (龍宮寺 느티나무)

○지정번호 : 기념물 제9호

○소재지 : 인천 중구 운남동 667

용궁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나무는 수령 1,300여 년, 높이 20m, 둘레 5.63m에 이르는 거목(巨木)으로 할아버지나무와 할머니 나무(오른쪽) 1쌍이 있다. 느티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인 느티나무는 주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시베리아, 유럽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잎은 타원형 또는 계란형으로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고 황색의 꽃은 일가화(一家花 : 한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펴)로 5월에 피는데 암꽃은 새 가지의 윗부분에, 수꽃은 밑부분에 달리며 목재는 귀중한 가구재(家具財)로 사용된다.

이 나무와 관련된 특별한 전설은 전해오지 않지만 수령이 1,600여 년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용궁사가 비록 대원군에 의해 중창되기는 하였지만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교찰임을 추측하게 한다.

(6)베드로 이승훈 선생 묘소

●베드로 이승훈 선생 묘소

○소재지 : 인천 남동구 만수동 초곡산 (인천대공원 서쪽)

장수동 인천대공원 서쪽에 위치한 초곡산의 이승훈일가 묘소로 향하는 산길에는 마치 끌고다 언덕을 연상될 수 있는 글들과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어 찾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여미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초곡산(草谷山)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자이며 한국 천주교창설자 중의 한사람인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일가의 애절한 사연이 서려있다.

1785년 서울 명동 중인(中人) 김범우집에 한국최초의 천주교회를 창설,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교리서를 언문으로 번역해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스스로 신부가 되어 성사(聖事)를 집행, 은밀히 포교하던 중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 또한 포교활동을 비밀리에 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다. 이들 다섯분의 순교자들은 만수동 초곡산에 묻혔는데 현재는 비석과 티(가묘)만 남아있다. 4대에 걸친 5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순교자 집안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든 그 짝을 찾을 수 없는 일로 그 정신, 그 훌륭함은 후세에까지 빛날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신자이며 한국 최초의 천주교회(명동성당)을 창설한 이승훈, 한국인으로서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이 두분의 유적이 인천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인천광역시민 누구나 알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7)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 (黃海道 平山 소놀이굿)

●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 (黃海道 平山 소놀이굿)

○지 정 번 호 :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

○소 재 지 : 인천 동구 화수1동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 보존회)

○지능 보유자 : 이 선 비

황해도 평산소놀이굿은 황해도 평산지방 경사굿에서 돌아왔다. 제석굿 다음에 만신이 소모양으로 꾸미고 노는 굿놀이이다. 평산지방 경사의 풍년, 장사의 번창, 자손의 번영을 비는 굿인데 제석굿의 끝에 소놀이굿이 이어진다. 제석굿을 마루에서 마치면 굿판을 앞마당으로 옮겨서 소놀음을 벌인다.

마당에는 팔선녀가 내려오는 여덟 개의 무지개를 상징하는 천을 늘어뜨리고, 그 밑에는 팔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는 곳이라하여 큰 물통에 바가지 여덟 개를 띄운다. 이 장치는 팔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승천하는 것을 상징한다. 제석역은 흰장삼에 고깔을 쓴 만신이 삼불제석역으로 나와서,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지상에 강림하여 인간을 탄생시키고 조선국을 개국하는 내력의 가를 부른다. 이 때 바지저고리 차림에 병거지를 쓴 마부가 소를 끌고 들어온다.

소는 어미 논갈이소와 송아지로서 종이로 만든 소머리를 손에 잡고 덕석을 뒤집어 쓴다. 제석은 마부와 소가 들어오면 채담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마부는 소를 끌고 다니면서 발갈이를 한다. 이 때 치마저고리에 수건을 쓰고 바구니를 든 애미보살이 씨를 뿌리며 뒤따르고, 치마저고리에 호미를 든 지장보살이 김을 매면 갓 쓰고 도포입은 신농씨가 농사일을 감독하는 시늉을 한다. 이어서 풍요로운 신이 내리기를 비는 놀이가 벌어진다. 동원되는 만신은 6명이고 짝이는 장고, 징, 제금 등 셋이다.

장수머리에서는 모든 잡귀를 쫓는다는 뜻에서 쌍작두를 타고 그네뛰기를 벌인다. 쌍작두 칼날 위에서 그네를 타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이선비 만신뿐일 것이다. 이 굿은 해가 질 무렵에서 시작하여 동이 트는 새벽까지 시작한다.

소놀이굿은 1988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었다.

(8) 영종도 일대

● 영종진성 · 경원정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에 자리한 영종진성에는 고인돌, 토기, 자기편이 남아 있어 3백 50여년전의 자취가 있다. 조선 17대 효종4년 (1653) 남양부의 영종포 만호를 이곳 자연도

(무속도)로 옮기고 진성을 쌓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영종도에는 고려시대 일종의 국제호텔격, 고려때 송나라 사신이나 상인들의 머물렀던 숙소인 객관 정원정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영종진성이나 경원정은 그 터만 근근히 남아 있을 뿐 복원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다.

●왕 자 묘

최충헌의 무단 정치를 시작으로 인해 쫓겨난 고려 회종왕이 강화도로 귀향 왔다가 다시 이곳으로 유배되어 살다 죽어 묻은 무덤이라고도 하고 고려말 나이 어린 창왕의 무덤이라고도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무덤이다. 예전에 군사 지역이라 서 전혀 접근할 수가 없다가 얼마전 해제되어 근 30년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왕자묘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도굴된 채 흔적만이 남아 있다.

●장군바위 · 천택골

옛날 어느 용맹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이 돌 밑에 투구와 갑옷을 벗어 놓았으나 어느 부정한 사람이 만져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갑옷과 투구가 돌이 되었다는 전설의 바위.

천택골은 회종왕과 그의 자손 그리고 창왕이 살았다고 하는, 아직 옛 우물이 남아 있는 고을.

(9) 문학산 일대

●학 산 서 원

문학산 산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남구 학익동 83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산서원이 건립된 시기는 조선시대 숙종 28년(1702년)경이다. 서원에 관한 문헌인 '증보문헌 비고'에 의하면, 이 서원은 숙종 28년에 건립되어 동 34년(1708년)에 사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사액(賜額)이라 함은 국왕이 이름을 지어주고 서적, 노비, 토지 등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당시 학산서원이 정부가 인정해준 교육기관이라는 뜻이다. 당시 학산서원의 규모는 향교와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정리로 인하여 전국에 47개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했다. 이처럼 오래전에 없어진 까닭에 현재 학산서원은 지난 1955년 인천시가 비석을 세운 것 말고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여가다 문학터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서원터 조차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

●사모지고개 (三呼峴) · 갑옷바위 · 술바위

문학산줄기는 서쪽으로 뻗어 노적산(露積山)을 일으켰는데, 두산 사이에 바로 삼호현(三呼峴)이 위치하고 있다. 옛날 백제때, 중국으로 가려면 육로는 고구려가 가로막고 있고, 이 곳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에 가려면 서울을 출발, 부평의 별리현을 넘고 또 이 삼호현을 넘어 지금의 송도에 있던 능허대로 나가 그곳 한나루에

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배웅하러 따라나왔던 가족들은 별리현에서 이별을 고하였다고 한다.

한편 사신들도 그 별리현을 떠나 이 삼호현에 이르면 멀리 마주보이는 별리현에서 그때 까지도 서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모두들 잘 있거라' '그동안 잘 있거라' '다녀올게 잘 있거라' 라고 세 번 소리쳐 부른 뒤 이 고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이 고개를 '세번보는 고개' 라하여 '삼호현' 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사모지고개 부근에는 일명 중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옛날 이 바위구멍엔 술이 가득 차 있었는데 석잔 이상 마시면 안된다는 얘기가 전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고개를 넘던 어떤 중이 갈증을 못참고 한잔을 더 마셨더니 홀려넘치던 술이 갑자기 끊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놀란 중이 무릎을 꿇은채 두손을 짚고 바위구멍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바위가 되어 버렸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다. 또한 이 중바위 맞은편에는 갑옷바위가 있는데 작은 승용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서있는 모양의 바위인데 자세히 보면 윗부분과 아랫부분 사이가 갈라져 있다. 그 이유는 예날 어느 장수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바위속에 감추고 나서 다른 바위로 그 위를 덮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위는 장군바위·석함바위·함바위라고도 불리는데 누가 갑옷을 꺼내려고 함부로 바위를 전드리면 뇌성벽력이 일었다고 한다.

5. 광주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 사업보고

(1) 사업기간

- ① 1차 : 1997. 3. 29 ~ 6. 21
- ② 2차 : 1997. 7. 26 ~ 8. 24
- ③ 3차 : 1997. 10. 18 ~ 11. 23

(2) 참가인원

- ① 1차 활동 : 총 26개교(고 7, 중 19) 450명을 모집하여 11개조로 분산 배치, 각조별로 3개월동안 총 6회 활동하였다.
- ② 2차 활동 : 3회에 걸쳐 총 24개교 220명을 모집하여 활동하였다.
- ③ 3차 활동 : 총 5개교(고 3, 중 2) 181명을 모집하여 호남 사립문화팀, 불교문화팀, 우국지사 유적지팀, 민속문화팀, 광주학생운동 유적지팀으로 나 누어 각 팀별로 3-4회 활동하였다.

2) 활동실적

(1) 참가문화재 : 19개 문화재

(2) 참가학교(38개교)

① 고등학교(11개교)

광주고, 광주실업고, 광주여고, 국제고, 금파공업고, 광주기계공고, 동신여고, 서강고, 수피아여고, 숭일고, 전남공고, 진흥고

② 중학교(27개교)

각화중, 경신여중, 광산중, 금남중, 대성여중, 동성중, 동신여중, 동신중, 두암중, 문산중, 문성중, 문화중, 문흥중, 북성중, 서강중, 송원여중, 수피아여중, 숭일중, 신평중, 우산중, 윤남중, 월계중, 전남대 사대부중, 주월중, 진흥중, 효광중

(3) 참가 연인원 및 봉사활동 총시간

총참가 연인원은 1,338명이 참가. 봉사활동 총시간 4,803시간.

활동 총인원은 803명

(활동인원 내역 - 고등학생 : 295명/1,892시간. 중학생 : 508명/2,911시간)

광주센터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이 전적으로 봉사단을 꾸려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단의 모집시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또 5월에는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식 관계로 기념식에 봉사활동 인원들을 배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되지는 못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실적을 보면 다음의 <표 Ⅲ-64> 문화유산 봉사활동 참가현황과 같다.

<표 Ⅲ-64> 문화유산 봉사활동 참가현황

	일 시	장 소	활 동 조	참가인원	비 고
1차 활동	3/29(토)	북구 청소년 수련관	1조 - 11조	320명	1차 활동 시작
	3/30(일)	무등산 일원 등 5개 유적	1조 - 5조	94명	설문조사
	4/13(일)	무진 고성 등 6개 유적	6조 - 11조	82명	
	4/26(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토론 한마당	1조 - 11조	77명	
	4/27(일)	소쇄원 등 5개 유적	1조 - 5조	33명	
	6/1(일)	박물관 등 6개 유적	6조 - 11조	55명	
	6/8(일)	운주사, 송강정	1조 - 5조	28명	우천으로 일부만 실시
	6/15(일)	포충사, 소쇄원 등 5개 유적	6조 - 11조	31명	
	6/21(토)	1차 활동 평가회	1조 - 11조	87명	1차 활동 종료
2차 활동	7.26(토) -27(일)	토요일 교육후 일용일 활동 (가사문화권, 운주사)		38명	2차활동 시작
	8.9(토) -17(일)		우천관계로 8.10활동을 8.17 실행	38명	
	8.23(토) -24(일)			36명	2차활동 종료
	8.31(일)	가사문화권, 운주사 활동		131명	
3차 활동	10/18(토)	북구청 민방위 교육장		89명	3차 활동 시작
	10/25(토)	담양 죽물 박물관	민속문화팀	10명	
	10/26(일)	운주사,식영정 일대	사립문화팀, 불교문화팀	13명	
	11/1(토)	충효동 가마터	민속문화팀	10명	
	11/2(일)	백양사 등 4개 유적	불교, 사립, 광주학생, 우국지사	53명	

	일 시	장 소	활 동 조	참가인원	비 고
3차 활동	11/8(토)	운주사, 시내 일원	수피아여고,광주학생	99명	
	11/9(일)	송광사 등 3개 유적	불교,민속,광주학생	18명	
	11/16(일)	시내 일원	광주학생운동유적지팀	5명	홍보 활동
	11/22(토)	포충사	우국지사유적지팀	4명	
	11/23(일)	센터 사무실	우국지사유적지팀	5명	
계		62회		1,338명	

(4) 활동 평가(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자체평가)

- 첫 째, 문화 유적지를 찾아 평소 보지 못했던 유적지에 대해 알고 문화유적지 현장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이나 설문 조사등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둘 째,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별 접근(호남 사립문화팀, 불교문화팀, 우국지사 유적지팀, 민속문화팀, 광주 학생운동 유적지팀)을 통해 좀더 내용성있는 활동과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가 가능했다.
- 셋 째, 학교내 준거집단(동아리)이 참여한 경우 개인 참여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참여한 것을 보더라도 문화유산 보호 봉사활동이 소집단으로 조직화 되었을 때만이 지속적이고 내용성있는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 넷 째,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지도자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다섯째, 1, 2차 활동에 비해 3차 활동의 경우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여섯째,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환경 정화 활동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문화유적 지도 만들거나 적극적인 안내 활동,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3) 활동 문화재 소개

(1) 식영정

●식 영 정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지정번호 : 전라남도 기념물 1호

무등산 북쪽 원효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은 창계천(창암천)으로 흐르다가 광주호에 잠겨버린다. 광주호는 영산강 유역 개발사업의 하나로 광주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인공호수인데, 신작로나 댐이 생기기 전에 창계천가에는 배롱나무가 줄지어 서서 여름 내내 붉은 꽃구름을 이루었다. 그래서 창계천의 옛 이름은 자미탄(紫薇灘)이었다. 자미는 배롱나무의 한자 이름이다.

송강 정철이 살던 지실마을이 있고, 또 별피(성산)가 있는 자미탄 이쪽 저쪽으로는 식영정, 환벽당, 취가정, 소쇄원 등 가사문학의 본고장을 일구었던 유적이 흩어져 있다.

그중 식영정은 성산의 한끝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뒤로는 소나무가 가득한 성산 봉우리가 서고 앞으로는 광주호가 내려다보이며 그 건너로 무등산이 듬직하게 바라다 보인다. 정면 2칸 측면 2칸의 정자에는 한 칸 반짜리 방이 있고 또 당연히 너른 마루가 있다.

식영정이란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 라는 뜻이다.

아름다운 경치와 좋은 주인을 찾아, 이곳에는 수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드나들었다. 송순, 김윤제, 김인후, 기대승, 양산보, 백광훈, 송익필, 김덕령……. 그중에서도 임억령, 김성원, 정철, 고경명은 식영정 사선(四仙)이라 불릴 정도였다. 그들은 식영정에서 보이고 들리는 풍경들을 시제로 하여 수많은 시를 남겼다. 그러나 이곳을 가장 유명하게 한 것은 송강의 「성산별곡」이다. 「성산별곡」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성산 주변의 풍경과 그 속에서 노니는 풍류를 그리고 있다.

식영정 뒤편에는 배롱나무 서너 그루가 있어서 이제는 사라진 자미탄의 모습을 그려 보게 한다. 임억령은 “누가 가장 아끼던 것을 산 아래 시내에다 심었나 보다”라고 자미탄을 노래했다.

식영정에서 내려와 왼편 안쪽으로 보이는 부용당은 1972년에 지어진 것이고, 그 뒤편에는 식영정을 지은 김성원이 거쳐하던 서하당 자리가 있다. 또 식영정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는 마치 ‘백억 불 수출의 탑’을 연상시키는 ‘송강 정철 가사의 터’라는 기념석물이 있다. 식영정 옆의 잘생긴 소나무를 딱 가리고 선 우람한 성산별곡 시비와 함께,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잇는 우리 시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식영정은 환벽당, 송강정과 함께 정송강 유적으로 불리며 전라남도 기념물 제1호이다.

(2) 소쇄원

●소쇄원

○소재지 : 담양군 남면 지곡리

○지정번호 : 사적 304호

소쇄원은 중종때 사람인 양산보(1503-1557)의 별서정원(別墅庭苑)이다. 별서란 살림집에서 떨어져 산수가 좋은 곳에 마련된 주거공간을 말하며, 이곳에 정자와 더불어 조성되

는 정원을 별서정원이라 한다.

양산보는 양사원의 세 아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소쇄원이 있는 담양군 남면 지곡리는 창암촌이라고도 불렸는데, 창암(蒼岩)은 양산보의 아버지인 양사원의 호였다. 고향에서 지내던 양산보는 15세 때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가서 조광조 밑에서 학문을 닦았다. 17세 되던 중종14년(1519)에는 현량과에 급제했으나 벼슬을 받지는 못했다. 바로 그해에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는 능주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다. 스승을 따라 능주로 갔던 양산보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55세로 죽을 때까지 고향의 자연에 묻혀 처사(處士)로 지냈다.

소쇄원은 양산보가 30대부터 짓기 시작하여 40대에 완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 면앙정을 지었던 송순과 김인후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소쇄' (瀟灑)라는 말은 본래 깨끗하고 시원함을 의미한다. 양산보는 그 뜻을 따서 정원의 이름을 붙이고 그 주인이라는 뜻에서 자기의 호를 소쇄옹이라 했다.

소쇄원은 멀리 남쪽으로 무등산을 바라보며 자원봉과 까치봉을 잇는 산줄기를 뒤에 업고 남쪽으로 술술 흘러내린 산비탈에 자리잡았다. 이 정원을 이룰 당시 창암촌은 제주 양씨들의 씨족 마을이었으니 소쇄원은 후원적 성격을 띠었다. 뒤편 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폭포와 작은 소를 만들며 정원 가운데를 가로지른 후 대숲으로 빠져나가 창계천으로 합류한다. 계곡물 양쪽 비탈에 축대를 쌓아 꽃계단을 만들고 정자들을 올렸으며, 동쪽과 북쪽, 서쪽 일부에 직선 담을 두르고 남쪽은 띄워놓았다. 들어서면서 바로 보이는, 짙으로 이은 정자가 대봉대이고 왼쪽으로 계곡 건너에 있는 것이 광풍각, 그 뒤로 서너 단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제월당이다.

그러나 자연 자체를 뜯어 삼으면서 꼭 필요한 곳에 인공을 가했던 조선 시대 정원에서는 이러한 인공적 축조물이 아니라 터전 전체가 종합적으로 의미를 가진다. 건축물들은 그 전체를 가장 잘 살리고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전체 경관의 일부로 녹아 있다.

이렇게 볼 때 소쇄원은 찾길을 벗어나며 바로 이어지는 대밭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숲은 들어가는 길 좌우로 뻗뻗이 이어지며 서늘한 바람을 일군다. 대숲이 끝나가면 앞쪽으로 담장과 대봉대가 보인다. 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봉대는 봉황을 기다리는 곳, 봉황처럼 소중한 손을 기다려 맞는다는 다정한 뜻이 담긴 곳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예전에는 곁에 오동나무가 있었으나 지금은 고목이 되어 없어졌다.

대봉대 아래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있고 입구 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조금 더 큰 연못이 있다. 나무 속을 파낸 흙대와 도랑을 타고 온 계곡물은 먼저 작은 못을 채우고, 그 물이 넘치면 다시 도랑을 따라 큰 못으로 흘러들게 되어 있다. 큰 연못에서도 넘쳐난 물은 돌로 만든 수구를 통해 계곡으로 떨어진다. 영조31년(1755)에 만들어진 「소쇄원도」목판에는 두 못에 물고기가 놀고 못가에 물풀이 자란 모습이 그려져 있다. 두 못을 연결하는 도랑 중간

에는 물레방아가 있어서 계곡으로 물을 날리며 시원한 물소리를 보냈다.

대붕대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동쪽 담에는 애양단(愛陽壇)이라고 새겨진 판이 박혀 있다. 이 부근은 유난히 벌이 바르다.

애양단을 지나면서 담은 ㄱ자로 꺾인다. 그 담에 또 오곡문(五曲門)이라 새긴 판이 박혀 있다. 그 옆에는 담 밑에 구멍이 뚫려서 그리로 물이 흘러들도록 되어 있다. 오곡문이란 담 아래 터진 구멍으로 흘러든 물이 암반 위에서 다섯 굽이를 이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쇄원에 들어온 사람은 이곳에서 외나무다리로 계류를 건너게 된다.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구부정한 소나무가 있고 그 아래로 물을 바라보기 딱 좋은 위치에 걸터앉을 만한 바위도 있다. 담 밑으로 들어온 물은 굽이를 이루고 폭포를 이루며 정원 가운데로 흘러가고, 그 가운데 일부는 나무 흠대에 이끌려 대붕대 아래 연못으로 간다.

다리를 건너면 두 단으로 된 꽃계단(花階)을 만난다. 이 같은 단은 보통 비탈의 침식을 막을 겸 쌓아서 바라보고 즐길 수 있도록 꽃나무를 심어 꾸미는데, 소쇄원에서는 여기에 매화를 심고 매대(梅臺)라 불렀다. 매대 뒤의 담에는 '소쇄처사 양공지려'(瀟灑處士 梁公之廬, 소쇄처사 양공의 조출한 집)라는 송시열 글씨의 글자판이 박혀 있다. 매대 앞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월당이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 옛적 선비들이 앉아 즐기던 너럭바위를 지나 광풍각이 있다.

제월당은 정면3칸 측면1칸의 건물로 왼쪽에 치우쳐서 한 칸 방이 있고, 나머지 두 칸은 마루로 트여 있으며, 마루 뒷벽에 활짝 열수 있는 문이 달려 있다.

제월당이 주인의 사생활적인 공간이라면 광풍각은 사랑방 격으로, 소쇄원의 풍광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중심 공간이다. 제월당과 광풍각 사이에는 공간을 나누어 주는 얇은 담과 작은 문이 있다. 광풍각에서는 주로 물의 흐름과 폭포, 바위에 부딪는 물방울, 맞은편에 있던 물레방아의 정취와 물소리 등을 즐기도록 되어 있다. 정면3칸 측면3칸의 팔작지붕 집인데, 가운데 한 칸에 방을 들였고 빙 둘러 가며 마루를 깔았다. 불을 넣는 아궁이가 뒤편에 있어서 그곳 마루가 다른 것보다 한 단 높게 달려 있는 점이 색달라 보인다. 물론 방문은 여름에는 모두 열어 열도록 되어 있다.

요즘 광풍각 방 뒷벽에 「소쇄원도」목판을 복사한 그림이 걸려 있다. 요모조모 뜯어 보며 지금의 모습에 예전의 모습을 겹쳐 보는 것도 재미있다. 광풍각에서 오른쪽으로 비긴 뒤쪽 단 위에는 복숭아나무를 심고 무릉도원의 풍류를 맛보도록 했는데 지금은 비어 있다. 제월당과 광풍각의 현판 글씨는 이 지역 대부분의 현판 글씨와 마찬가지로 우암 송시열이 쓴 것이다.

이곳에는 고경명, 김인후, 송순, 정철, 김성원, 기대승, 백광훈, 송시열 등 당대의 이름 있는 문인, 선비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그들이 남긴 여러 시문 가운데 고경명의 「유서석록」(遊瑞石錄)과 앞에서 나온 김인후의 「소쇄원 사십팔영」에 소쇄원의 옛모습이 잘 묘사

되어 있다. 그들은 소쇄원 안의 바위 하나, 물굽이 하나에도 따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주는 감흥을 만끽했다.

소쇄원 정원은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인공을 기하였다고들 말한다. 계곡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서 자연 경관을 고풍 경험하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 적당히 걷다가 멈출 만한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눈 줄 곳, 또 앉을 곳 등 모든 것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배려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조화란 영성한 자연 존중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완벽한 배려와 애정 속에 인공을 가함으로써 오는 자연과의 동화일 것이다.

양산보는 이 정원을 매우 아껴서 “절대로 남에게 팔지 말 것이며, 하나라도 상함이 없게 할 것이며, 어리석은 후손에게는 물려주지도 말라”고 유언했다. 그 덕에 오늘날 우리는 이 조선 시대 민간 정원의 백미를 비교적 원형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소쇄원은 1983년에 사적 제304호로 지정되었다.

(3) 면 양 정

●면 양 전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봉선면 제월리

○지정번호 : 전라남도 기념물 6호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가사 문학의 대가인 송 순(1493-1582)이 고향 마을인 담양군 봉선면 제월리 뒷산 제월봉 언덕 위에 지은 정자이다. 면양정은 정자의 이름이면서 송 순의 호이기도 하다. 면양(傘仰)이란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으로, 아무런 사심이나 꾸밈이 없는 너르고 당당한 경지를 바라는 송 순의 마음을 나타낸다.

송 순이 처음 이 정자를 지은 것은 나이 41세 되던 조선 중종 28년(1533)이었다.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던 그는 당시 조정에서 김안로 일파가 세력을 잡자 고향으로 돌아와 뒷산에 소박한 정자를 짓고 시를 읊으며 지냈다.

3년여 은거하던 송 순은 김안로 일파가 실각하자 다시 조정에 나아가, 몇차례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77세에 의정부 우참찬에 이르기까지 관직 생활을 했다. 마침내 관직을 은퇴한 그는 9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면양정에 머물며 유유자적하는 가운데 많은 가사를 남겼다. 또한 김인후, 임억령, 고경명, 정철, 임제, 양산보, 김성원, 기대승, 박순 등 많은 학자들이 좋은 경치와 노학자를 찾아 이곳을 드나들며 시 짓기를 배우고 즐겨, 이곳은 호남 제일의 가단(歌壇)을 이루었다.

원래 이 면양정터에는 꼭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어느 날 금어(金魚)와 옥대(玉帶)를 두른 선비들이 이곳에 모여 오락가락하는 꿈을 꾸는 그는 자기 아들이 벼슬을 할 것이라 여겨 공부를 시켰지만 뜻대로 되지도 않고 집안마저 가난해졌다. 꼭씨는 이곳의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송순이 그 터를 사 놓았다가 나중에 정자를 지었던 것이다. 뒷날 이곳이 소위 면앙정가단을 이루어 허다한 학자, 가객, 시인들의 창작의 산실이자 휴식처가 된 것을 보면,

꼭씨가 해몽은 틀리게 했지만 꿈은 제대로 꾸었다고 할 수 있다.

정자 안에는 퇴계 이황과 하서 김인후의 시, 고봉 기대승의 「면앙정기」, 백호 임제의 「면앙정부」, 석천 임억령이 면앙정에서 바라보는 30가지 좋은 경치를 노래한 「면앙정 삼십영」, 그리고 송순 자신의 「면앙정 삼언가」등이 판각되어 걸려 있다.

정자 앞에는 가사문학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면앙정가」한 구절을 새긴 비가 서있다. 송순의 「면앙정가」는 정극인의 「상춘곡」과 더불어 호남 가사문학의 원류가 되었으며 내용, 형식, 가풍(歌風) 등에서 정철의 「성산별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자 앞과 뒤에 선 큰 참나무 두 그루는 송순이 정자를 지은 후 기념으로 심은 것이라 전해지며, 제월봉 정상 쪽으로 100m쯤 간 곳에는 송순의 무덤이 있다.

원래의 정자는 선조30년(1597)에 임진왜란으로 부서졌고 1654년에 후손들이 다시 지은 후 몇 차례 보수하면서 오늘에 이른다. 건물 자체는 간소하지만 역사적 의의가 크므로 1972년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삼간 지어 내니 나 한칸, 달 한 칸에 청풍 한칸 맡겨두고 강산은 돌일 데 없으니 둘러 보고 보리라.”

송순이 만년에 면앙정을 두고 읊었다고 전해지는 이 시에는 우리 민족의 자연주의적 정원관이 잘 나타나 있다.

(4) 송 강 정

●송 강 정

○소재지 :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지정번호 : 전라남도 기념물 1호

조선 시대 시인이자 정치가인 송강 정철(1536-1593)의 행적이 어린 곳이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인 진영에 속했던 정철은 49세 되던 해인 선조17년(1584), 동인의 탄핵을 받아 대사헌에서 물러난 후 이곳에 와서 정자를 짓고 지냈다. 그는 다시 우의정이 되어 조정으로 나아가기까지 4년 가량을 이곳에 머물면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비롯한 뛰어난 가사와 단가들을 남겼다.

그후 200여 년이 지나, 원래의 송강정은 허물어져 주춧돌과 담장 흔적만 남았고 언덕에는 무덤들만이 남았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정철의 후손들이 무덤을 옮기게 하고 언덕에 소나무 수천그루를 심고는 영조46년(1770)에 다시 정자를 지었다. 정자는 정면 3칸에 측면 3칸이며 가운데에 방이 마련되어 있고 앞과 양옆이 마루로 되어 있다. 옆에는 1955

년에 건립된 사미인곡 시비가 서있고, 뒤편에는 가느다란 대나무들이 얇은 담처럼 둘러져 있다. 이제는 찾길 모퉁이 언덕이 되어 옛 정자의 기분을 그대로 맛볼 수는 없지만, 마루에 앉으면 바람에 땀뺀 스치는 소리가 아쉬운 대로 사각사각 들린다.

정철이 담양 창평땅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나이 16세 때였다. 두 누이가 각각 인종의 귀인이자 계림군 유의 부인이었던 덕에 궁중에 출입하며 경원대군(나중에 명종)의 동무가 되기도 하는 등, 명문가의 자식으로 유복하게 지내던 그의 어린 시절은 그가 열 살 먹던 해(명종즉위년, 1545)에 을사사화가 터지면서 끝이 났다. 계림군은 죽임을 당했고 형은 매를 맞고 귀양 가던 길에 죽었으며 아버지는 함경도 정평으로, 다시 경상도 영일로 유배되었고 정철도 북으로 남으로 아버지를 따라 떠돌았다. 6년후 유배에서 풀린 그의 아버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한후 가족을 이끌고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창평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송강은 창평에서 살던 10여 년 동안 고봉 기대승, 하서 김인후, 송천 양응정, 면양정 송순 등 호남 사람의 여러 학자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석천 임억령에게서 시를 배웠다. 또한 담양땅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인의 자질을 흠뻑 길렀고 울곡 이이와 우계 성혼과도 사귀었다.

정철의 벼슬살이는 명종16년(1561)에 27세로 과거에 급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철의 정치인생은 매우 파란이 많았다. 수찬, 좌랑, 종사관 등을 지내다가 40세 때 당쟁에서 밀려 낙향, 43세에 다시 조정에 나가 직제학, 승지 등을 지내다가 동인의 탄핵으로 다시 낙향,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도승지, 함경도 관찰사, 예조판서로 승진, 49세에 대사헌이 되었다가 동인의 탄핵을 받아 낙향하여 4년간 송강정에 은거, 54세에 우의정이 되어 정여립 사건을 계기로 동인 세력을 철저히 추방, 다음해에 좌의정이 되고 57세에 세자 책봉 문제로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명천에 유배, 57세에 경기 충청 전라 제찰사, 이듬해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옴, 다시 동인의 모함을 받아 강화 송정촌에서 쓸쓸히 살다가 58세로 죽음…….

동서 봉당으로 갈려 치고 받던 시절에 어느 편에도 서지 않기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입 밖에 내야 하고 사람의 허물을 보면 친우권귀(親友權貴)라도 조금도 용서함이 없어’ 화를 산같이 입더라도 앞장서 싸우기를 불사하던 정철의 성격상, 정치가로서 그의 삶은 파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한편으로, 시인이었던 그는 현직에 있을 때도 물론이지만 싸움에서 밀릴 때마다 자기를 키운 담양 창평으로 돌아와 왕에 대한 그리움, 자연에 대한 찬탄, 고요한 생활에 대한 동경 등을 토로하며 시인으로서의 삶을 깊이 했다. 평생 권력을 추구하며 정적들에게 매서운 칼날을 들이댄 정치가와 가장 다감한 시인이 한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다.

“……숨어 살 계획 이미 정해져/세모엔 내 장차 떠나가리라/항상 원하기는 물고기 되어 /깊은 물밑에 잠기고 싶다……” 라고 노래한 시인 정철과 ‘성격이 편협하고 도량이 좁아

일을 그르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던 성질 급한 정치가 정철을 오버랩시키면, 피가 몹시 뜨거운 한 사람의 윤곽이 떠오른다.

(5) 충 장 사

●충 장 사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임진왜란 때 의병 대장이었던 김덕령 장군을 모시는 사당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에 있다. 김덕령(1567-1596)은 석저촌(지금의 충효동)에서 태어났다. 자라면서 형인 덕홍과 함께 우계 성혼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594년에 담양 지방에서 의병을 모아 크게 활약했으므로 선조로부터 형조좌랑의 직함과 함께 충용장(忠勇將)이라는 군호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세자 광해군으로부터 익호(翼虎)장군이라는 군호를 받았다. 그후 다시 선조로부터 초승(超乘)장군 휘호를 받았다. 나중에 작전상의 통솔과 군량 조달 문제로 각처의 의병이 충용군에 소속되자 그는 의병장이 되어 광재우와 함께 권율의 막하에서 영남 서부지역 방어 임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에 선조29년(1596) 7월 홍산(지금의 부여군)에서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켰다. 김덕령은 도원수 권율의 명으로 난을 진압하러 가다가 이미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갔는데, 이몽학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다. 옥에 갇힌지 20일, 그는 혹독한 고문 때문에 죽고 말았다. 그의 나이 29세 때였다. 한편 그의 형은 금산전투에서 고경명과 함께 전사했고, 그의 아내 이씨도 그가 죽은 다음해에 왜군이 쳐들어오자 담양 추월산에서 순절했다.

그가 죽은 후 현종2년(1661)에 억울함이 밝혀져 관직과 작위가 복구되었고, 현종9년(1668)에는 병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숙종7년(1681)에는 병조판서, 정조12년(1788)에는 의정부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정조는 그에게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사당을 지어 배향하도록 했다. 현종8년(1842)에는 장군이 태어난 마을 이름을 석저촌에서 충효리로 바꾸도록 하고 표리비를 내렸다. 이 비는 충효동 마을 앞에 있는 정려비각(광주광역시 기념물 제4호) 안에 있다.

(6) 광주 충효동 도요지

●광주 충효동 도요지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179-5

충효동 도요지는 충장사에서 광주호로 가는 갈림길의 금곡마을 근처에 있다. 제작시기 는 고려말에서 조선초기로 추정된다. 1963년 국립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결과 도자기를 굽던 가마의 퇴적층과 파괴된 가마 등을 확인했으며 상감청자 파편을 비롯한 분청자, 백자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분청자의 파편에 새겨진 명문에는 도공들의 이름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제작과정에서 도공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자기를 조잡하게 만드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도요지의 분포는 지암재를 중심으로 하는 3곳과 풍암정 입구와 그 서쪽에 각 1곳, 동북쪽 2곳 등이며 현재 복원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7) 월계동 장고분

●월계동 장고분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3

월계동 장고분은 양산강 상류의 평야를 낀 낮은 구릉지대의 장구촌 마을에 있으며, 인근에 신창동유적(사적 제375호)이 있다. 일본 전방후원분의 기원과 관련하여 고대 한일 관계사 및 옛무덤 발달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일제시대에 도굴되어 봉토가 깎여나간 1호분은 복원된 봉분의 전체길이 45.3m, 높이 2.8~6.1m이며, 주위에 파인 호의 너비는 14.2~5.5m, 깊이는 1.5m 내외이다. 봉분은 몇개 구역으로 나뉘어 동시에 판축 성토되었으며, 장축방향은 원부가 동남동에 방부가 서북서에 있다. 석실의 방향은 널방이 동북동, 널길이 서남서에 있다. 석실벽은 활석을 벽돌처럼 쌓고 판석을 천정으로 덮었으며 바닥은 큰 활석을 깔 다음 맨 위에 강 자갈을 깔고 판대를 설치하였다. 석실의 크기는 널방길이 4.5m, 너비 2.8m, 높이 2.7m이며, 널길 현길이 2.8m, 너비 1.4m, 높이 1.6m 내외이다. 석실 내부는 도굴되었으나 금귀고리1점, 철제화살촉1점, 토기편 등 약간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주호에서는 적갈색 원통형토기, 나팔형토기 등의 많은 토기들이 파괴된 채 출토되었다.

경작과 도굴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유실된 2호분은 원부 정상에 판석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복원된 봉분의 전체길이는 34.5m, 높이 1.5~3.5m이며 주호의 너비는 4.5m~8.5m, 깊이는 1m내외이다. 봉분은 몇 개로 나누어 축조하였다. 장축방향은 널방이 동남쪽에 널길이 서북쪽에 있다. 석실벽은 활석을 벽돌처럼 쌓았으며 바닥은 1점의 판석을 깔았다. 석실의 크기는 널방 길이 3.8m, 너비 2.4m, 현 높이 1m내외이며 널길은 파괴되어 현재 길이 2.5m, 너비 1.5m만 남아있다. 도굴과 봉분의 유실로 인하여 석실에서는 철도자편, 토기편, 유리구슬만이 출토되어 있다.

(8) 포충사

●포충사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원산동 775

임진왜란 당시 호남지방에서 최초로 의병을 모집하여 금산전투에서 순절한 고경명과 그 휘하 의병을 기리기 위한 사액사당이다.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장성 필암서원과 함께 존속

한 전남지방의 두 서원중 하나이기도 하다.

1601년 호남의 유생들이 고경명을 비롯한 충절인물들을 모실 사우 건립을 청하여 광주 제봉산 아래 사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모시었다. 고경명의 본관은 장으로 문과에 장원하여 성균관을 거쳐 호조좌랑,사간원 정언,형조좌랑에 이어 영암군수, 승문원판교, 동래부사를 역임한 후 1591년 낙향하였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켜 참전, 금산에서 왜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장남 고종후, 차남 고인후 등과 더불어 전사하였다. 현재 고경명 장군의 유품으로 친필마상격문, 교지, 목판 등이 보존되어 있다.

(9) 무진고성지

●무진고성지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산 136

이 성터는 무등산의 북쪽 지맥인 장원봉을 중심으로 잣고개의 장대봉과 제4수원지 안쪽의 산능선을 따라 남북장축 1,000m, 동서단축 500m, 총둘레 3,500m의 타원형으로 축조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백제 무진도독 때의 고성이 북쪽 오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1988년과 89년 전남대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확실한 규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성의 기초는 석축으로 전통적 백제의 축성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관(官), 국성(國城) 등의 명문이 새겨진 기와조각과 청자조각 등이 출토되었다.특히 잣고개 남쪽 건물지에서 출토된 서조문(瑞鳥文) 기와 숫막새는 독특한 새의 모양이 있어 주목되며 암막새에는 도깨비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출토유물로 보아 통일신라말에서 고려 초기까지 사용된 성터로 추정된다.

(10) 운주사(雲住寺)

●운주사(雲住寺)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사적 제 312호

대한불교 조계종 제 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말사로 운주사라고도 한다. 도선(道先)이 창건하였다는 설과 운주(雲住)가 세웠다는 설, 마고(麻姑) 할머니가 세웠다는 설이 전하여지고 있다. 이 중 도선의 창건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영암출신인 도선이 우리 나라의 지형을 배로 보고, 선복(船腹)에 해당하는 호남 땅이 영남보다 선이 적어 배가 한쪽으로 기울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곳에 천불천탑(千佛千塔)을 하루낮 하루밤 사이에 道力으로 조성하여 놓았다고 한다. 이 전설을 뒷받침이나 하듯이 절에서 멀지 않은 춘양면에는 돛대봉이 있다. 돛대봉에 돛을 달고 절에서 노를 젓는 형세라 한다.

임진왜란으로 법당을 비롯한 석불과 석탑이 크게 훼손되어 폐사로 남아 있었다. 1918년 중건하였고, 현재 대웅전과 종각, 요사채가 있으며, 비구니들의 수도처로 이용되고 있다. 1942년까지는 석불 213좌와 석탑 30기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에는 석탑 12기, 석불 70기만이 있다. 1980년 6월에 절 주변 일원이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었다. 문화재로는 연화탑(蓮華塔)과 굴미륵석불(窟彌勒石佛), 구층석탑을 비롯하여 대웅전 내에 있는 오층석탑, 구형오층봉발탑(球形五層奉鉢塔), 부부좌불(夫婦臥佛) 등이 있다. 이 중 부부좌불은 길이 12m, 너비 10m의 바위에 조각하였는데 남녀가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이다. 천불천탑을 하룻밤 사이에 다 세우려 하였으나, 미처 세우지 못해서 누워 있다고 전한다.

나지막한 아산협곡의 분지에 위치한 운주사에는 반경 200m 범위내에 석불 70여구와 석탑 12기가 유존하고 있다. 1984년 발굴조사 때 새로운 건물지와 각종 기와조각, 자기조각 등이 출토되어 운주사의 창건은 물론 천불천탑 조성을 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때의 출토유물은 고려조의 햇무리굽청자조각(2개), 순청자접시조각(20여조각), 그리고 금동여래입상이다. 이 유물의 연대가 10,11세기경으로 추정되어, 운주사의 창건이 고려 초기일 가능성이 밝혀졌다. 또 고려 중기의 상감청자 약 100여조각, 14,15세기경의 청자류 약 350여조각이 출토됨으로써 운주사가 고려 중기에서 말기까지 매우 번창하였던 사찰이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홍치8년명(弘治八年銘:1495)의 기와조각 출토는 운주사가 15세기말에 크게 중창되었다가 그 뒤 정유재란으로 인하여 폐사 되었음을 알게 하였다. 운주사가 고려 중기 이후 번창하였음은 현존 유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곳에 산재한 석불, 석탑이 12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다 고려시대의 지방적인 특색이 가장 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운주사지는 불교미술사 또는 불교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예로 평가되고 있다.

●운주사 구층석탑(雲住寺 九層石塔)

○지정번호 : 보물 제 796호

고려시대의 높이 10.7m의 구층석탑으로 운주사 대웅전 입구 약 200m지점에 있다. 거대한 암반 위에 별도의 地臺石이 없이 암반자체에다 3,4단의 썸대를 각출하고, 그 위에 기단부(基壇部) 면석(面石)을 올렸다. 이 탑의 조성기법은 운주사 석탑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정상에는 원추형의 석재와 보륜(寶輪)등의 상륜부가 놓여 있다. 이 탑은 운주사의 현존하는 탑 중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운주사 석조불감(雲住寺 石造佛龕)

○지정번호 : 보물 제 797호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와 용강리에 걸쳐 있는 다탑봉(多塔峰) 골짜기에 있는 고려시대의 석조불감이다. 골짜기 입구에서 산정에 이르는 사이에 산재한 다양한 형태의 석탑과 석불상 중 이 불감은 골짜기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지대석 위에 여러 매의 판석을

조립하여 기단 면석을 구성하고 그 위에 널찍한 甲石을 놓아 감실을 받치고있다. 감실 위에 팔각형태의 지붕을 얹었는데, 정상에는 용마루를 마련하고 그 좌우에 치미형을 모각하였다. 감실 안에는 2구의 석불좌상

이 안치되어 있는데 등이 맞붙은 특이한 모습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석실이 있고 돌부처 둘이 있는데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有石室二石佛相背而坐)” 라고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남향한 불상은 오른손을 배에 댄 모습인데 넓적하고 평판적인 얼굴에 비하여 이목구비의 표현은 작고 치졸한 편이다. 복면의 불상도 같은 양식을 보이는데 옷 속에 싸인 두 손은 가슴에 모아,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시대 지방화된 불상양식을 드러내고 있다.

1984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금동여래입상을 비롯하여 순청자 조각, 상감청자조각, 분청사기조각 등이 출토되었고, 또 중수연대를 기록한 명문기와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석조불감 안에 등을 맞댄 2구의 불좌상을 안치한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우리 나라 조각사상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雲住寺 圓形多層石塔)

○지정번호 : 보물 제 798호

고려시대의 높이가 5.71m인 異形石塔이다. 2단의 구형(龜形)지대석에 높직한 10각의 기단면석을 짜 올리고, 그 위로 16엽 양련(仰蓮)을 한 갑석을 마련하였다.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석이 모두 원형이다.

이 석탑은 탑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조형면에 있어 우리 나라에서는 그 예가 드문 현상인데, 고려시대에 이르러 각 지방에서 나타난 특이한 양식이라 하겠다. 기단갑석의 상면이 편평하고 측면이 호형(弧形)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위의 옥개석은 정반대로 하면이 편평하고 상면이 호형이다. 이는 상하의 조화와 안정감을 꾀한 조형의장이었던 것 같다. 운주사는 이제까지 雲住寺와 運舟寺의 두 이름으로 불려 왔으나 1979년 지정 당시와 1984년 발굴조사에 ‘순치팔년(順治八年)’과 ‘운주사환은’(雲住寺丸恩)이라는 명문화편이 발견됨으로써 옛날에는 ‘雲住寺’라 불려진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연산군 1년(1495)에 대대적으로 보수하였던 내용을 밝힐 수 있다.

(11) 필암서원

●필 암 서 원

○소재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 번지

호남지방에서 유럽의 고장을 꼽을 때는 ‘광나장창(光羅長昌)’이라고 하여 광주, 나주, 창평과 더불어 장성을 빼놓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에서 안동 문장을 꼽듯이 전라도

에서도 장성 문장을 으뜸으로 쳤다. 필암서원에서는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와 그의 사위로서 학맥을 이은 양자정을 받들고 있다. 산수(山水)간에 몸을 내맡긴 김인후는 성균관 문묘에 모셔져 있는 이 나라 열 여덟 현인에 드는 오직 한 사람뿐인 전라도 사람으로서, 장성 사람에게 큰 긍지를 갖게 해

주는 인물이다. '사미인곡'을 쓴 정철도 그의 제자였다. 그리하여 선비들은 1590년(선조 23년) 그가 살고 공부하며 가르치던 현 장성읍 기산리에 서원을 세우고, 선생의 위패를 모셔 받들었다.

1597년 정유재란때 왜군의 방화로 서원의 건물이 불타자 그의 제자들은 곧 서원의 복원을 추진하여 그가 태어난 황룡면 증산동에 새로이 건물을 지었다.

이어서 나라에 사액을 요청하여 '필암(筆岩)'이란 액호가 하사되었다.

1672년(현종 13년) 건물의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 수해의 우려가 있어서 현 소재지인 필암리로 옮겨 지었다. 이 건물은 1868년 흥선 대원군의 서원 훼손 때도 다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필암서원의 건물 규모는 총 16동이며, 조선시대 서원의 기본 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서원이다.

누각, 강당, 서당에 이르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에 재실, 경장각, 전사청, 장서각, 장판각 등이 고즈넉하게 자리잡고 있다. 서원 앞으로는 비교적 큰 하천인 물필천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 산들이 병풍처럼 서원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 서원 왼쪽에는 민가들이 자리잡고 있다.

필암서원의 공간 구성은 방형의 담장으로 교육 시설, 제향 시설, 부대 시설이 엄격하게 계획되어 있으나, 크고 작은 문을 통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특히 강당 앞의 공간은 은행나무와 잘 다듬어진 잔디로 누가와 더불어 원생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했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엄숙하면서도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6. 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 사업보고

○ 실시내용

- 학기중 :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 대상 문화재를 선정하여 매 1개월에 1곳씩 해당문화재에서 봉사활동 실시
 - 문화재복원공사에 참가하는 봉사활동실시
 - 지역문화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박물관에서 문화유산 관람 및 보존과 정화 활동 실시
- 방학중 : 주중 평일에 문화재 자원봉사활동 실시
 - 1박 2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학교를 개최(일시 : 8. 6~8. 7, 장소 : 청주 심신수련원))하여, 지역사회 문화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시간과 전통예절 및 민속놀이를 배우는 기회마련

○ 문화재 선정

- 매달 1곳의 지역사회 문화재 및 기념물을 선정하여 봉사활동 실시
- 국립공원 정화하기
- 박물관의 문화재 및 유물에 대한 전시를 관람하며, 주변환경정화를 실시

○ 운영방법

- 봉사활동이 실시되는 기간별로 청소년들을 모집하며, 해당 문화재가 있는 관내학교를 중심으로 모집, 운영하였음
- 봉사활동 대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내 교육청과 협의, 학교단위로 문화재를 지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및 조정 등 봉사활동을 종합관리하였음
- 관내 문화재에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거리제공 및 참여 청소년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2) 활동실적

(1) 참가 문화재 : 14 개문화재

(2) 참가학교수 : 총 96개학교

① 고등학교(39개교)

경덕공고, 계룡공고, 과학고, 대덕고, 대덕공고, 대성여상, 대신고, 대전고, 대전상고, 대전여상, 대전여자공고, 동대전고, 동아공고, 둔산여고, 명석고, 보문고, 북고, 새일고, 서대전고, 서대전공고, 서일고, 서일여고, 서일여자공고, 성모여고, 신일여상, 신탄진고, 예술고, 유성고, 유성농고, 유성여고, 중앙고, 중일고, 진산공고, 청란여고, 충남고, 충남여고, 한밭고, 한밭여상, 호수돈여고

② 중학교(48개교)

가양중, 가오중, 갈마중, 갑천중, 남선중, 내동중, 대문중, 대성여중, 대전여중, 대전중, 대정중, 대화중, 도마중, 동대전중, 동명중, 동방여중, 동산중, 동중, 원중, 만년중, 문정중, 문화여중, 범동중, 보문중, 봉산중, 북중, 삼천중, 서중, 신탄중앙중, 신탄진중, 어은중, 오정중, 용전중, 월평중, 유등중, 유성중, 전민중, 종리중, 중앙여중, 중앙중, 진잠중, 청주남중, 청주천청중, 충남여중, 탄방중, 한밭중, 호수돈여중, 회덕중.

③ 기타 (초등학교 4, 대학교 5)

(4) 참가 연인원 및 봉사활동 시간

연인원 11,189명 393회 참여. 봉사활동 총시간 39,511시간.

〈표 Ⅲ-65〉 문화유산 봉사활동 참가현황

월	봉사활동 문화재	참가 학교수	총활동 인원	봉사활동 총시간	봉사활동 내용
3	선사유적지 외1	19	1,123	3,214	문화재 가꾸기 등
4	계족산성 외1	29	1,001	3,898	
5	보문산성 외3	84	1,761	5,915	
6	국립현충원	30	915	3,364	
7	남간정사	54	1,158	3,474	
8	도산서원 외	31	384	5,918	
9	회덕향교	38	1,386	2,830	
10	계룡산국립공원	29	648	2,038	
11	화폐박물관 외2	79	2,813	8,860	
계	14개 문화재	393(96개교)	11,189명	39,511시간	

3) 월별 활동상황

(1) 계족산성(鷄足山城)

① 문화재 소개

● 계족산성(鷄足山城)

○ 지정번호 : 사적 제 355호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 85

계족산(429m)은 대전의 진산으로 산줄기가 닭발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물과 절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산이다. 산정상에는 전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이 산을 오르다 보면 숲 사이로 펼쳐지는 대청호가 파랗게 와 닿고,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은 볼 만하다.

이 성은 신라와 백제가 치열한 전투를 치루며 양측군사가 수 없이 희생된 곳이다. 성주위는 약 1,037m이고 봉수대, 우물, 건물터가 있고 성벽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의 높이는 12m이다. 계족산에는 계족산성 이외 고분군, 절터, 가마터 등이 분포되어 있고 조선시대의 사찰인 비래암이 남아 있으며 산정의 봉황정과 95.6 개장한 장동삼림욕장은 시민휴식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특히, 국가사적 문화재 355호로 지정된 계족산성은 백제와 신라의 격전지로서 이름이 높으며 테외식 석축 산성으로 현재 시에서는 성곽을 복원하고 있는데 '98년까지 문지, 우물지, 봉수대 등을 만들 계획이다. 유적에서 출토된 선조문(線條文) 기와는 백제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에 해당되는 다른 유적의 출토품과 유사함을 볼 수 있으며, 격자문(格子文)계의 와편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문양과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어골문계의 와편은 일반적으로 고려시대에 유행된 문양시문방식(文樣施文方式)으로 알려져 있어, 계족산성에서 채집된 기와편들은 대체로 백제시대에서 고려시대에 걸치는 기간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토기편들은 백제, 신라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에 제작한 토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66〉 계족산성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가양중	1	5	4	20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가오중	1	51	3	153	
	남선중	1	3	4	12	
	내동중	1	2	3	6	
	대덕공고	2	10	4	31	
	대성여상	1	6	4	24	
	대전상고	1	6	4	24	문화재 교육
	도마중	1	37	3	111	
	동대전고	1	13	4	52	고건물 청소
	법동중	1	29	4	116	
	보문고	1	76	4	304	정화활동
	보문중	1	4	4	16	
	서중	1	7	3	21	질서계도
	신일여상	1	2	4	8	
	신탄중양중	1	282	4	1,128	안 내
	신탄진고	1	1	4	4	
	신탄진중	1	31	4	124	
	용전중	2	10	4	40	
	중리중	1	102	4	408	
	중일고	1	2	4	8	
	충남고	1	6	4	24	
	회덕중	1	95	4	380	
계	22개교	24회	780명		3,014시간	

(2) 동춘당

① 문화재 소개

● 동춘당(同春堂)

○ 지정번호 : 보물 제209호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192번지

이 당은 송촌의 한복판을 가르는 시내가 상류에 동춘당의 부친인 송이창(1561~1627)이 세웠다. 이 당의 일부가 허물어져 가자 동춘 송준길(1606~1672)이 48세때인 효종 4년(1653)에 현 재목을 그대로 써서 증건하고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현재의 위치에다 옮겼다. 당명은 동춘이라 하였는데 존재 조익의 당기에 물과 같이 춘을 같이한다는 뜻이라 쓰여있다. 즉 천하의 4덕 가운데 으뜸은 원(元)이고 그 원기가 유행하여 만드는 사계절 중에서 으뜸은 바로 이 춘(春)이다. 다시말해 선의 장인 元은 천지생물지심(天地生物之心)이요, 春은 천지생물지기(天地生物之氣)이며 仁은 인지생물지심(人之生物之心)인데 이 모두가 같은 것이므로 송준길이 「동춘(同春)」二字에서 궁극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뜻은 천지지공(天地之公)이며 만선지본(萬善之本)인 仁을 구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으니 그 중에는 조상우, 남구만, 임영, 김정, 송규렴 등이 뛰어났었다. 지금 걸려있는 동춘당 편액은 동춘이 서거한지 6년째 되던해인 숙종 4년(1678)에 화양동주 송시열의 필체로 만든 것이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67〉 동춘당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4	가오중	1	133	4	532	문화재 교육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질서계도 안 내
	내동중	1	4	4	16	
	대덕공고	1	12	4	48	
	도마중	1	69	4	276	
	예술고	1	3	4	12	
계	5개교	5회	221명		884시간	

(3) 보문 산성

① 문화재 소개

● 보문산성(寶文山城)

○ 지정번호 :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0호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산 3-45 보문산 지봉

이 산성은 대전광역시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보문산의 지봉(표고 406m)에 테괴식으로 축조된 석축산성으로 표고 457.3m인 정상부보다 동쪽으로 돌출되어 시계가 양호한 편이다.

이 산성의 평면은 동남-북서 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긴 타원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위는 수평길이로 280m이다. 성체는 대부분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적심방법으로 구축하였으나 동북벽의 급경사면은 자연지세를 그대로 이용하여 석축하지 않았다.

이 산성에서 성벽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은 서남벽으로 16단의 층수에 3.42m의 높이를 나타내고 있다. 문지(門址)는 서문지와 남문지가 있다. 서문지는 이 산성의 주된 출입문으로 북벽에 붙여서 설치하였다. 이 서문지를 이루는 남벽과 북벽은 암반위에 내외협축하여 육축하였는데, 북벽의 상부폭은 7.5m이며, 남벽의 기저부폭은 6.9m이고, 상부폭은 6.2m이었다. 이 남문지 남벽의 현재 높이는 8단 1.8m를 나타내고 있다. 이 남벽과 북벽 사이의 문폭은 넓은 곳이 5.5m, 좁은곳이 4.5m인데 후대에 이 문폭은 1.4m로 좁혀서 사용하였다.

이 산성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장대지에서는 동쪽으로 계족산-식장산계열의 산성들이 관측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소호동산성과 연결되고 있다. 이 산성은 대전광역시의 복원, 정비계획에 따라 1990년 3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윤무병 교수를 비롯한 조사단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Ⅲ-68〉 보문산성 월별 활동상황 1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5	가양중	2	19	3	57	문화유산지 보호활동 문화재 교육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질서제도 안 내
	갈마중	1	4	3	12	
	경덕공고	1	2	3	6	
	과학고	1	1	3	6	
	남선중	1	1	3	3	
	내동중	1	138	3	414	
	대덕고	1	1	3	3	
	대문중	2	76	4	261	
	대신고	1	1	3	3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5	대전교	1	1	3	3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문화재 교육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질서제도 안 내
	대전상고	2	2	3	6	
	대전여공고	2	3	3	9	
	대전여중	2	39	4	119	
	대전중	1	5	3	15	
	동대전중	1	14	3	42	
	둔원중	1	134	3	402	
	만년중	3	17	3	51	
	문정중	1	6	3	18	
	범동중	1	54	3	162	
	보문고	1	1	3	3	
	보문중	2	141	3	423	
	봉산중	2	2	3	6	
	북중	1	91	3	273	
	삼천중	2	4	3	12	
	서일고	1	1	3	3	
	서일여고	1	1	3	3	
	서중	1	1	3	3	
	신일여상	1	1	3	3	
	신탄진고	2	4	3	12	
	어은중	1	7	3	21	
	오정중	3	38	3	114	
	용전중	1	99	3	297	
	유성고	1	1	3	3	
	유성여고	2	3	3	9	
	유성중	1	3	3	9	
	전민중	1	2	3	6	
	증리중	1	64	3	192	
	중앙중	1	3	3	9	
	진잠중	1	1	3	3	
	청란여고	1	3	4	12	
	청주 남중	1	1	3	3	
	청주 천천중	1	1	3	3	
	충남고	1	1	3	3	
	충남여고	1	5	3	15	
	충남여중	1	1	3	3	
	탄방중	2	3	3	9	
	한밭고	1	20	3	60	
	호수돈여고	1	2	3	6	
	배재대	1	32	3	96	
계	49개교	64회	1,055명		3,206시간	

(4) 회덕향교

① 문화재 소개

● 회덕향교 (懷德鄕校)

○ 지정번호 :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호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134

향교의 건립시기는 조선 초기 세종무렵이다. 조선시대 회덕현의 교육기관으로서 1812년 중수되었다. 외일문(外—門)을 들어서면 「팔덕지문(八德之門)」 현판이 붙은 문이 또 있고, 그 좌우에 정면3칸, 측면1칸씩의 낭사가 놓였는데 좌사는 전사청, 우사는 서제로 쓰였다 한다. 명륜당은 정면5칸, 측면2칸인 지라 육간대청에 동·서측으로 온돌방이 각기 2칸이다. 현재 동서양재가 없는데, 6·25때 불탔다고 하는 이도 있고 또 「대전시지」에서는 이 온돌방이 그 약설이 아닌가 추정하였다. 내삼문(內三門)안에 대성전이 있고, 공자의 성상을 10여년전에 봉안하였다. 이 향교의 창건시부터 전해 내려온다는 물기인 축문식과 외·내집례(外·內執禮)가 있어 향교의 제례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집례는 계사(癸巳)년에 구본의 자획이 흩어지고 빠진 것이 있으므로 구책 4권을 고쳐 베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현판문(縣板文)도 교지에 넣었는데 이에 의하면, 순조(純祖) 12년(1812)에 명륜당(明倫堂)과 대성전(大成殿)을 전면 보수하였고 헌종(憲宗) 8년(1842)에도 부분적인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전에 의하면 이 향교는 임진왜란때 불탄 후 1600년경에 다시 세웠다 한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69〉 회덕향교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5	가양중	1	2	4	8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문화재 교육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질서계도 안 내
	내동중	1	27	4	108	
	둔원중	1	40	4	160	
	법동중	1	7	4	28	
	보문중	1	9	4	36	
	오정중	1	6	4	24	
	용전중	1	124	4	496	
	중리중	1	52	4	208	
9	계룡공고	1	6	2	12	
	대성여상	1	2	2	4	
	대전상고	1	1	2	2	
	대화중	3	96	2	196	
	동대전고	2	28	2	56	
	법동중	3	37	2	75	
	보문중	3	21	2	42	
	신탄중앙중	3	394	2	797	
	신탄진중	3	120	2	261	
	오정중	3	225	2	464	
	용전중	3	310	2	626	
	용전초등	1	4	2	8	
	중리중	2	35	2	70	
	중앙중	2	2	2	4	
	청란여고	1	2	2	4	
	한밭여상	1	2	2	4	
	호수돈여고	2	2	2	4	
	회덕중	3	99	2	201	
계	26개교	46회	1,653명		3,898시간	

(5) 남간정사

① 문화재 소개

● 남간정사 (南澗精舍)

○지정번호 :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65

이곳은 야산 기슭의 숲이 우거진 계곡으로 회덕현의 명소였다. 조선후기의 거유 송시열(1607~1689)은 옥천 구룡촌에서 출생하여 회덕에서 성장하였다. 송시열이 소제(蘇堤)에 살고 있는 동안에 홍농촌에 서재를 일으켜 능인암이라 하였다.

이것은 곧 그의 초년의 강학처이다. 뒷날에 암하 간변에 소제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곧 남간정사이다. 그 명칭은 주자의 운곡남간에 의한 것으로 주자의 남간시 일절을 미간에 달았다. 송시열은 만년에 이곳에서 강학하여 많은 제자를 길러내는 한편 그의 학문을 대성하기도 한 곳이다. 송시열이 정읍에서 별세하여 시신을 운반 할적에 잠시 이 곳에 체류한 일도 있다.

남간정사는 숙종9년(1683)에 송시열이 지었던 것을 정조 때에 중건하였다. 건물의 편액은 곡운 김수증(1624~1701)이 썼다. 남간정사는 계곡에 있는 샘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이 건물의 대청 밑을 통해 연못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원 조경사에 있어서 하나의 독특한 경지를 이루게 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정사 오른쪽에 있는 기국정은 송시열의 고택 소제에서 일제초에 이진한 것이고 뒷편의 언덕에 있는 남간사는 후건된 것이다. 또 이곳에서 한말에 유림의 발의로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 목판을 조성하였는데 이 목판은 정사의 맞은편 언덕에 장판각을 지어 보존하고 있으며 정사 후편에 정절서원의 유지가 있다. 정사에는 경관당, 격치제, 존양각, 광통각 등의 강학장소가 있었으나 대원군때에 모두 헐리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70〉 남간정사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5	가양중	1	99	4	396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문화재 교육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질서계도 안 내
	가오중	1	80	4	320	
	대성여중	1	42	4	168	
	동아공고	1	19	4	80	
	동중	1	70	4	280	
	한밭중	1	15	4	60	
7	가양중	4	87	3	261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7	가양초등학교	1	1	3	3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문화재 교육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질서계도 안 내
	가오중	1	1	3	3	
	계룡공고	1	3	3	9	
	과학고	1	1	3	3	
	내동중	1	1	3	3	
	대덕고	1	1	3	3	
	대덕공고	1	1	3	3	
	대성여상	2	3	3	9	
	대성여중	4	294	3	882	
	대신고	1	2	3	6	
	대전여중	1	3	3	9	
	대전중	1	1	3	3	
	도마중	1	2	3	6	
	동방여중	1	4	3	12	
	동산중	1	1	3	3	
	동아공고	1	22	3	66	
	둔산여고	1	4	3	12	
	명석고	2	184	3	552	
	문정중	1	1	3	3	
	보문고	2	119	3	357	
	보문중	4	64	3	192	
	삼천중	1	1	3	3	
	서대전고	2	2	3	6	
	성모여고	4	300	3	900	
	신탄진고	1	1	3	3	
	어은중	2	4	3	12	
	예술고	1	1	3	3	
	유성농고	1	4	3	12	
	중앙고	2	21	3	63	
	충남고	1	1	3	3	
	충남여고	1	2	3	6	
	충남여중	2	12	3	36	
	한밭여상	2	9	3	27	
계	37개교	60회	1,483명		4,778시간	

(6) 도산서원

① 문화재 소개

●도 산 서 원(道山書院)

○지정번호 :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233

이 서원은 숙종 37년(1711) 기호(畿湖)의 유림(儒林)들이 공주 출신의 명유인 만회 권득기와 권시를 추모하기 위하여 탄방동의 도산 기슭에 세웠다. 권득기(1570~1622)는 41세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좌랑을 지냈고 광해군때 다시 고산도찰방이 되었는데 그 때 모후가 서궁에 유폐되어 파문이 일자 그는 그 무도함을 개탄하며 벼슬의 뜻을 버리고 태안으로 물러났다. 권시(1604~1672)는 학문에 열중하여 20세때 이미 명망이 높아 유생의 천거로 33세때인 인조 14년에 잠시 대군사부(大郡師傅)를 맡았다. 탄방동에 내려와 도산에다 서당을 짓고 13년동안 학문을 강론하며 도학과 예학에 더욱 정진하였다. 이 서원은 숙종 37년(1711)에 액을 받았으며 규모는 사우(祠宇) 3칸, 묘문 3칸, 강당 4칸, 서재 3칸, 남제 4칸, 전사청(典祀廳) 3칸, 마구 2칸, 대문 1칸 모두 23칸이었다. 그후 대원군때 헐리었다가 1968년 1973년 2차에 걸쳐 구지(舊址)좌측에 문공부 협조로 안동 권씨 가문에서 자력으로 복원하였다. 복원규모는 대지를 둘로 구획하여 담을 두르고 윗구역에 「유정문」현판을 건 묘문과 「함덕사(涵德祠)」현판을 건 묘우를 세웠고 아랫구역에 「向直門」현판을 건 대문안에 강당을 중심으로 지었는데 강당에는 「도산서원」편액을 걸었고 그 내부에는 정면에 「명교당」현판, 좌우측면에 각기 「구인재(求人齋)」 「귀본재(歸本齋)」란 현판을 걸어 놓았다. 이 강당 외에 동서 양재(兩齋)가 더 있는데 동재(東齋)에는 「시습재(時習齋)」현판을, 서재(西齋)에는 「지미재(止美齋)」현판을 달아놓았다. 강당 뒤에는 전사청이 있다. 묘우로 올라가는 계단옆의 도산서원 사적비는 광무 8년(1904)에 세운 것이다. 원규도 전한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71〉 도산서원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5	만년중	1	21	3	61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문화재 교육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질서제도 안 내
	보문중	1	20	3	60	
	신탄중앙중	1	6	3	18	
	어은중	1	47	3	141	
	한밭고	1	13	3	39	
	배재대	1	6	3	18	
8	대문중	2	2	4	6	안 내
	대성중	1	1	4	4	
	대전중	1	3	4	12	
	도마중	1	2	2	4	
	동대전중	1	1	4	4	
	동산중	2	2	4	6	
	둔산여고	1	1	4	4	
	삼천중	1	1	2	2	
	중앙중	1	4	4	16	
	한밭고	1	1	4	4	
계	15개교	18회	131명		399시간	

(7) 둔산선사유적지

① 문화재 소개

● 둔산선사유적지

○ 지정번호 : 기념물 제28호

○ 소재지 : 서구 둔산동 산 2-2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굴조사되었으며 한밭 선사문화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유적이 있는곳은 표고 59.9m의 정상에 중심으로 북서쪽 경사면에 해당되며 서쪽의 표고 61.8m의 정상에 청동기시대 유적이, 그보다 10m가 낮은 북쪽의 표고 50m의 북쪽으로 돌출한 언덕에 신석기시대 유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 지역 모두 능선부분은 지형이 많이 깎여 석비레층이 급방 드러났으며 경사면의 아래쪽에는 위에서 밀려온 퇴적층이 쌓여 있었다. 원래는 현재의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야산과 이어진 산줄기였으나 기존도로 개설 때 맥이 끊어지고 현재의 도로면에서 약 20m 정도 높은곳에 유적

이 자리잡고 있다. 이로써 대전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구석기 및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어 이 지방의 역사가 대폭 올라가게 되었고 갑천주변을 비롯한 앞은 야산에 넓은 농토와 풍부한 물을 배경으로 많은 주민이 살았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아울러 대전일대의 선사문화의 갈래나 계통을 확인하는데 좋은 자료를 얻게 되었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Ⅱ-72〉 둔산유적지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 학교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간	봉사활동 내 용
3	남선중	1	5	2	10	문화재 교육
	서대전고	1	1	2	2	고건물 청소
	월평중	1	528	2	1,056	정화활동
	중일도	1	104	2	208	질서제도 안 내
계	4개교	4회	638명		1,276시간	

(8) 계룡산

① 문화재 소개

● 계 룡 산(鷄龍山)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대전광역시

계룡산은 충남 공주시 반포면과 계룡면, 논산군 두마면과 상월면에 걸쳐 있으며 1968년 12월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해발 845m의 독립된 명산으로서 산세가 수려하며 대표적 능선으로는 주봉인 천황봉을 비롯, 연천봉, 수정봉, 삼불봉, 사연봉 등이 우뚝 서 있어 그 산 정상의 연결된 모습이 닭의 벼슬을 쓴 용의 모습 같다고하여 계룡산으로 명명되었다.

계룡산은 계절마다 모습을 바꾸는 풍경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봄이면 온갖 꽃이 만발하며, 여름엔 신록이 우거지며 가을이 되면 붉은 단풍이 사람들의 눈을 현란하게 만들며, 겨울이면 하얗게 모습을 바꾼 것이 세상에 어떤때도 묻지 않은 고상한 자태를 지니고 있어서 명산중에 으뜸인 영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충남의 금강산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계룡산은 구석구석 신비를 안고 있는데, 암용추와 솟용추, 금룡소 등의 연못과 동에는 동학사, 서에는 갑사, 남에는 신원사, 북에는 구룡사지 등 동서남북에 4대 사찰을 두고 있으며 산중에 많은 암자가 산재해 있어서 신령한 산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② 월별 활동상황

〈표 Ⅲ-73〉 계룡산 국립공원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10	백운초등학교	1	1	3	1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갈마중	1	4	3	12	
	갑천중	1	29	3	87	
	내동중	1	61	3	181	
	대문중	1	1	3	3	
	대신고	2	13	3	41	
	대전중	1	2	3	6	
	도마중	1	59	3	208	
	동방여중	1	10	3	30	
	동산중	1	1	3	3	
	둔원중	2	113	3	355	문화재 교육
	문정중	1	139	3	442	고건물 청소
	보문중	1	35	3	105	정화활동
	봉산중	2	68	3	213	
	삼천중	1	16	3	56	질서제도
	서일고	1	24	3	72	
	서일여고	1	11	3	36	안 내
	어은중	2	6	3	18	
	유성중	1	7	3	21	
	진산공고	1	1	3	3	
	진잠중	2	25	3	75	
	충남여고	1	6	3	22	
	탄방중	1	1	3	3	
	목원대	1	15	3	45	
계	24개교	29회	648명		2,038시간	

(9) 대전국립현충원

〈표 Ⅲ-74〉 대전 국립 현충원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6	갑천중	2	274	4	1,040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내동중	3	219	4	758	
	대덕공고	1	3	3	9	
	대신고	1	13	3	39	
	동방여중	1	5	3	15	문화재 교육
	둔원중	1	1	3	3	
	만년중	2	99	4	301	
	문화여중	1	1	3	3	
	북중	1	7	3	21	고건물 청소
	서일고	1	47	5	235	
	서일여고	2	37	5	184	
	서중	1	23	4	96	
	신일여상	1	1	3	3	정화활동
	어은중	1	21	4	84	
	오정중	1	1	3	3	
	월평중	1	1	4	4	
	유성여고	2	79	4	313	안 내
	유성중	1	59	3	177	
	중앙여중	1	3	3	9	
	중일고	1	1	3	3	
	충남여고	1	4	3	12	
	한밭고	1	11	3	33	
	대전대	1	3	3	9	
	베재대	1	2	5	10	
계	24개교	30회	915명		3,364시간	

(10) 청소년 문화학교

〈표 Ⅲ-75〉 청소년 문화학교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8	가양중	1	8	16	128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갑천중	1	5	16	80	
	남선중	1	10	16	160	
	내동중	1	48	16	768	
	동대전중	1	15	16	240	
	동아공고	1	21	16	336	문화재 교육
	문정중	1	3	16	48	
	서대전고	1	12	16	192	
	서대전공고	1	34	16	544	고건물 청소
	신탄중양중	1	4	16	64	정화활동
	신탄진중	1	9	16	144	
	어은중	1	4	16	64	
	예술고	1	15	16	240	질서계도
	유성여고	1	97	16	1,552	안 내
	탄방중	1	7	16	112	
	한밭고	1	3	16	48	
	한밭여상	1	44	16	704	
	배재대	1	10	16	160	
	충남대	1	17	16	272	
계	19개교	19회	366명		5,856시간	

(11) 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표 Ⅲ-76〉 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11	가양중	1	4	4	16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대성중	1	1	4	4	
	대전고	1	4	4	12	문화재 교육
	범동중	1	215	4	863	
	보문중	1	118	4	472	고건물 청소
	새일고	1	29	4	116	
	신탄중앙중	1	137	4	551	정화활동
	월평중	1	1	4	4	
	유등중	1	1	4	4	질서계도
	중앙중	1	1	4	4	
	목원대	1	18	4	72	안 내
	한남대	1	2	4	8	
계	12개교	12회	531명		2,126시간	

(12) 한밭교육박물관

〈표 Ⅲ-77〉 한밭교육 박물관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3	가양중	1	28	4	112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문화재 교육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질서계도 안 내
	대덕공고	1	1	4	4	
	대전중	1	3	4	12	
	대화중	1	92	4	368	
	동대전고	1	33	4	132	
	동대전중	1	55	4	220	
	보문중	1	55	4	220	
	서대전공고	1	13	4	52	
	성모여고	1	41	4	162	
	신탄중앙중	1	40	4	160	
	중리중	1	39	4	156	
	중앙여중	1	35	4	140	
	충남여고	1	3	4	12	
	한밭중	1	46	4	184	
	호수돈여중	1	1	4	4	
계	15개교	15회	485명		1,938시간	

(13) 한밭도서관 향토자료관

〈표 Ⅲ-78〉 한밭도서관 향토자료관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11	내동중	1	19	3	58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대문중	1	239	2	478	
	대신고	1	3	3	9	
	대전고	1	1	2	2	
	대전여상	1	1	2	2	
	대전중	1	2	3	6	문화재 교육
	대전중	1	126	3	382	
	동대전고	1	1	3	3	
	동명중	1	47	3	144	
	동산중	2	202	3	608	
	명석고	1	209	3	631	고건물 청소
	목원대	3	30	3	99	
	문화여중	1	21	3	73	
	보문고	1	2	3	7	
	새일고	2	29	3	85	
	성모여고	1	53	3	164	정화활동
	유동중	1	1	2	2	
	중리중	1	74	3	222	
	중앙고	1	55	3	174	
	청란여고	1	1	3	3	
	충남고	1	5	3	16	안 내
	충남여고	1	16	3	61	
	한밭중	1	4	2	8	
	회덕중	2	13	3	39	
계	24개교	29회	1,154명		3,276시간	

(14) 화폐박물관

〈표 Ⅲ-79〉 화폐박물관 월별 활동상황

월	참가학교명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용
11	성룡초등	1	4	3	12	문화유적지 보호활동 문화재 교육 고건물 청소 정화활동 질서계도 안 내
	갈마중	1	4	3	12	
	갑천중	1	2	3	6	
	내동중	1	25	3	83	
	대신고	21	37	3	111	
	대전여중	1	4	3	13	
	도마중	1	88	3	264	
	둔산여고	2	9	3	35	
	둔원중	2	165	3	497	
	만년중	1	124	3	372	
	문정중	1	15	3	47	
	문화여중	1	4	3	12	
	봉산중	1	64	3	200	
	북고	1	2	3	8	
	삼천중	1	46	3	141	
	세일고	3	69	3	201	
	서일고	1	30	3	91	
	서중	3	22	3	79	
	신탄진고	2	3	3	5	
	용전중	1	69	2	182	
	월평중	1	136	3	412	
	유성고	1	74	3	227	
	유성중	1	3	3	12	
	전민중	1	65	3	195	
	충남여고	1	2	3	6	
	목원대	5	62	3	235	
계	26개교	38회	1,128명		3,458시간	

V. 운영평가 및 향후의 추진방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영역은 비교적 다양하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활동거리로는 개발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재 봉사활동은 어느 봉사활동에 못지않게 중요한 활동이면서 학습과 직접 연결되는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7년도에 실시한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은 1년간의 실시과정에서 문화재 관계당국이나 자원봉사센터들이 앞으로 개선하고 보다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첫째,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봉사활동거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문화재 종사자 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 문화재 관련분야전문가,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에 의해서 개발 연구되어야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인 학습의 장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재 봉사활동을 실시하기전에 반드시 문화재 전문가들에 의한 사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봉사활동을 위한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재 관계자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최소한 문화재내에서 활동지도, 안내, 임무부여, 교육실시 등이 가능한 문화재 관계자들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문화재 발굴현장에서의 참가, 복원공사 등에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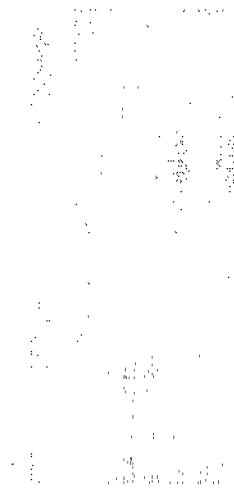
넷째, 기존 문화재의 보존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발굴한 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우(예컨대 명예 문화재관리위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다섯째, 문화재 봉사활동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문화봉사 동아리들을 다양하게 육성, 장려하며, 이들 동아리들이 문화재와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하고, 동아리의 가족들은 해당 문화재에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끝으로, 문화재 봉사활동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국제간의 교류의 계기로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에등록된 문화유산이 많다. 우리 문화재는 이제 우리만의 문화유산이 아니고 세계인이 가꾸고 보존하여야 할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의 청소년이 함께 가꾸고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으로 개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부 록

부록1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참가 학교 현황

부록2 문화유산 봉사활동 소감문(학생/지도자)

[부 록 1]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참가 학교 현황

1)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월일	참 가 학교명	봉사활동 문 화 재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3.29 ~ 12.13 매 주 토 · 일	선일여상	경복궁	6	289	3	867	문화재 조사 고건물 청소 질 서 계 도
	개별신청		3	9	3	27	
	중앙고		5	297	3	891	
	성동고		3	129	3	387	
	송실중		4	300	3	900	
	북악중		5	162	3	486	
	덕수중		3	155	3	465	
	배화여중		1	23	3	69	
	상도여중		2	53	3	159	
	중앙여고		4	101	3	303	
	청운중		2	32	3	96	
	자양중		1	13	3	39	
	창덕여중		4	82	3	246	
	양강중		1	57	3	171	
	중앙고		1	6	3	18	
	용문고	창덕궁	3	58	3	174	잡 초 제 거 환 경 정 리 안 내
	중앙고		5	246	3	738	
	아현중		5	70	3	210	
	상도여중		1	3	3	9	
	대림여중		1	35	3	105	
	덕수중		3	158	3	474	
	자양중		3	141	3	423	
	송실중		4	61	3	183	
	중앙고	창경궁	10	492	3	1,476	
	동성고		5	280	3	840	
	※도봉여중		3	70	3	150	
	북악중		1	47	3	141	
	중원중		2	18	3	54	
	덕수중		3	288	3	864	
	경도중		1	3	3	9	

월 일	참 가 학교명	봉사활동 문 화 제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내용
3.29 ~ 12.13 매주 토·일	중앙여고	창경궁	1	60	3	180	
	정의여고		3	58	3	174	
	자양중		2	131	3	393	
	선일여상		1	20	3	60	
	연희여중	궁중유물 전시관	12	349	3	1,047	
	성수중		1	27	3	81	
	구의중		22	179	3	537	
	봉림중		3	23	3	69	
	신진공고		1	2	3	6	
	창덕여중		7	253	3	759	
	덕수중		3	124	3	372	
	중앙고		3	125	3	375	
	양강중		1	41	3	123	
	강남중		2	56	3	168	
	증산중		1	7	3	21	
	대광중	정릉	9	123	3	369	
	창문여고		8	84	3	252	
	북악중		15	270	3	810	
	경복고		1	2	3	6	
	고명중		5	13	3	39	
	삼성중		1	2	3	6	
	삼선중		2	8	3	24	
	번동중		1	2	3	6	
	과학고		1	2	3	6	
	동일여고	낙성대	8	26	3	78	
	미성중		1	4	3	12	
	문성중		3	14	3	42	
	문성여중		2	5	3	15	
	봉천중		10	39	3	117	
	봉천여중		3	10	3	30	
	관악중		6	64	3	192	
	관악여중		1	2	3	6	
	강남여중		1	1	3	3	
	상도중		1	2	3	6	
	신림중		1	1	3	3	
	인여중		1	2	3	6	

월일	참 가 학교명	봉사활동 문 화 재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3.29 ~ 12.13 매주 토·일	인현고	낙성대	2	29	3	87	
	동작고		2	15	3	45	
	원일중		1	3	3	9	
	대광중	종묘	10	86	3	258	
	서현중	현인릉	6	233	3	699	
	경기고		1	158	3	474	
	평운전자공고 중원중	태강릉	1	30	3	90	
			4	74	3	222	
	개별신청	운현궁	2	20	3	60	
	대광중	서울동묘	6	18	3	54	문화제 조사
	서현중	백제고분군	4	41	3	123	고건물 청소
	정신여중		2	23	3	69	질 서 계 도
	당산중		2	53	3	159	잡 초 제 거
	방이중		2	24	3	72	환 경 정 리
	오금중		1	5	3	15	안 내
	가락중		1	5	3	15	
	석촌중		1	1	3	3	
	배명중		1	1	3	3	
	일신여상		1	1	3	3	
	신광여고	효창공원	1	21	3	63	
	배문고		2	189	3	567	
	창문여고		1	2	3	6	
	광운전자공고 개별신청	의릉	1	28	3	84	
			1	6	3	18	
	대광고	영휘원	4	38	3	114	
	서울사대부중		2	76	3	228	
	성일중		2	34	3	102	
	정화여중		2	13	3	39	
	대광중		1	2	3	6	
	동마중		1	1	3	3	

월일	참가 학교명	봉사활동 문 화 재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시 간	봉사활동 총 시 간	봉사활동 내 용
3.29 ~ 12.13 매주 토일	상신중	서오릉	3	78	3	234	문화재 조사
	예일여고		3	65	3	195	
	연희여중		9	405	3	1,215	
	송실중		5	148	3	444	
	봉림중	사육신묘	6	38	3	114	고건물 청소
	영등포중		2	27	3	81	
	정신여고	선정릉	9	251	3	753	질 서 계 도
	영림중		1	22	3	66	잡 초 제 거
	자양중		2	24	3	72	환 경 정 리
	미성중	한우물	15	990	3	2,970	안 내
계	77개교	19개 문화재	362회	9,087명		27,201 시간	

※ 도봉여중의 경우에는 창경궁을 자원봉사 활동터전으로 배치되었는데 4월과 6월에는 각각 1회에 20명씩 3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이수하여 봉사활동의 합계된 시간수가 120시간이지만, 5월에 1회 30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하였는데 학교의 사정상 3시간을 다 이수하지 못하고 1시간만을 이수하였다. 따라서 도봉여중의 경우에는 전체봉사활동 이수한 시간수가 210시간이 아니라 150시간을 활동하였다.

2) 부산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월	참가학교명	봉사활동문화재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내용
4~7월 9~12월 매 주 토·일	해동고	대청공원 울속도	3 1	9 6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동(洞)유래조사
	건국고	대청공원	1	2	
	구덕고 부산고	대신공원 울속도	1 1	3 2	
		철새도래지	2	4	
		용두산공원 부산진지성	1 3	1 17	
	해사고	동삼동패총	1	2	
	개금고	송상현동상	1	6	
		용두산공원	1	6	
		철새도래지	1	3	
	해운대고	구포왜성	1	1	
	경남고	울속도	1	1	
	해광고	울속도	1	3	
	사대부고	범어사	4	9	
	동인고	범어사	1	1	
		연산동고분군	1	1	
	부산공예고	금강공원	1	5	
		동백섬	1	3	
		범어사	1	1	
	대동고	철새도래지	3	22	
		강서구	3	10	
		대신공원	2	7	
		울속도	1	3	
	대저고	동래읍성지	1	1	
		송상현동상	1	1	
		운수사	1	1	
	남산고	동백섬	1	2	
	브니엘고	금강공원	1	1	
	동천고	신선대	1	1	
	남고	태종대	1	8	
	대진전자고	동래읍성지	2	2	
		동백섬	2	2	
	동래원예고	범어사	1	1	

월	참가학교명	봉사활동문화재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내용
4~7월 9~12월 매 주 토·일	중앙여고	용두산공원	2	4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정화활동 문화재명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동(洞)유래조사
		송상현동상	1	2	
		동래읍성지	1	1	
	남성여고	용두산공원	2	6	
		대신공원	1	1	
	부산여고	을 속 도	1	2	
	삼성여고	대신공원	2	7	
		용두산공원	2	24	
	서여고	대신공원	2	4	
		용두산공원	1	1	
	영도여고	동삼동패총	2	3	
	해운대여고	동백섬	3	18	
	동여고	수영공원	1	6	
		UN묘지	1	2	
	부산공고	대청공원	2	6	
		동백섬	1	5	
	경남상고	을속도	1	1	
	덕원공고	대청공원	2	12	
		정공단	1	4	
		태종대	2	7	
		을속도	1	6	
	덕원공고	송상현동상	1	3	
		을속도	1	1	
		동래읍성지	1	1	
		연산동고분군	2	3	
	경남공고	연산동고분군	1	1	
	서부산공고	북구 팽나무	2	7	
	부산진여상	구포왜성	3	6	
		정공단	1	1	
		을속도	2	3	
		용두산공원	3	8	
		철새도래지	3	5	
		금강공원	1	2	
		범어사	1	1	
		동백섬	2	11	
		태종대	1	1	
		대신공원	2	2	

월	참가학교명	봉사활동문화재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내용
4~7월 9~12월 매 주 토·일	부산남여상	태종대	4	25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정화활동 문화재명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동(洞)유래조사
	동주여상	용두산공원 강서구일원	1 1	3 6	
	부산서여상	을숙도 강서구일원 철새도래지 구포왜성	1 2 1 1	1 4 2 6	
	대연여상	연산동고분군 UN묘지 동백섬	1 1 2	2 5 9	
	성심여상	송상현동상 동백섬 용두산공원	1 1 1	6 1 4	
	계성여상	송상현동상 태종대 연산동고분군	1 1 1	3 2 1	
	문현여상	태종대	1	1	
	성모여고	연산동고분군 강서구일원 송상현동상	1 1 2	1 1 4	
	주례여고	운수사 구포왜성	3 1	3 7	
	사직여고	동래읍성지	1	1	
	해화여고	동래읍성지	1	7	
	대덕여고	철새도래지	1	1	
	학산여고	동래읍성지	1	1	
	덕원중	용두산공원	2	3	
	경남중	용두산공원 대신공원	1 3	1 28	
	대신중	을숙도 대신공원 대청공원	1 3 1	2 10 2	
	동현중	범어사 동래읍성지	4 3	10 13	
	장전중	범어사	1	1	
	낙동중	강서구 일원	6	57	
	백양중	강서구 일원 구포왜성	1 2	1 8	
	동아중 광안중	수영공원	1 1	1 1	
	개성중 초읍중	송상현동상	4 1	25 5	

월	참가학교명	봉사활동문화재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내용
4~7월 9~12월 매 주 토·일	동신중	동래읍성지	2	5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동(洞)유래조사
	동래중	동래읍성지	4	10	
	여명중	동래읍성지	4	19	
	대연중	UN묘지	2	4	
	용호중	UN묘지	1	2	
		수영공원	1	4	
	토현중	UN묘지	1	1	
		범어사	1	1	
		수영공원	3	16	
		동백섬	1	1	
	사직중	동래읍성지	2	7	
		연산동고분군	1	3	
		용두산공원	1	3	
	동해중	철새도래지	1	1	
		동래읍성지	5	46	
	안락중	수영공원	2	15	
		동래읍성지	2	2	
	성동중	수영공원	2	53	
	부산진중	부산진지성	1	3	
		UN묘지	1	4	
	수영중	UN묘지	1	4	
	부산중	용두산공원	1	2	
	대천중	UN묘지	1	1	
	사상중	철새도래지	1	1	
		철새도래지	2	20	
		운수사	1	3	
		용두산공원	1	8	
		을숙도	3	4	
	엄궁중	대신공원	1	3	
		철새도래지	1	1	
		동백섬	1	2	
		연산동고분군	1	5	
	연산중	송상현동상	1	1	
		수영공원	1	1	
		부흥중	1	1	
		덕천중	5	24	
	화명중	팽나무	3	14	
		팽나무	2	5	
	구포중	철새도래지	4	40	
		구포왜성	2	10	
	모라중	철새도래지	3	6	
	금곡중	철새도래지	1	2	
	주례중	철새도래지	1	2	
	하남중	을숙도	1	2	
	동평중	부산진지성	1	1	

월	참가학교명	봉사활동문화재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내용
4~7월 9~12월 매 주 토·일	장평중	대신공원	1	4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동(洞)유래조사
		을숙도	2	11	
		용두산공원	1	46	
	부산서중	부산진지성	4	13	
	영도중	태종대	1	1	
	신선중	등삼동패총	5	32	
		동백섬	3	8	
	신도중	동백섬	2	12	
		수영공원	1	2	
	신곡중	동백섬	3	28	
		구포왜성	1	5	
	거성중	동백섬	1	8	
		송상현동상	1	1	
	반송중	동백섬	1	5	
	상당중		1	1	
	영남중	을숙도	4	14	
		사하중	1	1	
	금사여중	범어사	3	32	
	진여중	송상현동상	1	2	
	구서여중	범어사	1	3	
	초읍여중	송상현동상	1	2	
		송상현동상	1	1	
	거제여중	연산동고분군	1	1	
		연산동고분군	1	1	
	가야여중	송상현동상	1	3	
		송상현동상	1	4	
	수영여중	동백섬	1	6	
	구포여중	구포왜성	3	14	
		연산동고분군	1	9	
		대청공원	1	2	
		동백섬	1	7	
	개금여중	송상현동상	1	1	
		대신공원	2	5	
		대신공원	5	39	
		을숙도	1	1	
	동주여중	대신공원	1	1	
		을숙도	1	2	
	동평여중	정공단	4	20	
	영도여중	등삼동 패총	2	3	
		태종대	2	11	
	사하여중	대신공원	1	2	
	부산여중	대신공원	1	1	

월	참가학교명	봉사활동문화재	참가횟수	참가인원	봉사활동내용
4~7월 9~12월 매 주 토·일	남성여중	대신공원	1	1	문화유적 답사 문화유적지도그리기 문화재주변 정화활동 문화재명으로 시짓기 문화유적 발굴활동 지역전설조사 동(洞)유래조사
	광무여중		1	6	
	남도여중	동삼동 패총	1	3	
		태종대	1	8	
	동삼여중	동삼패총	1	1	
		태종대	1	4	
	해운대여중	동백섬	1	1	
	재송여중		2	9	
	반송여중		2	20	
	다대여중	울속도	6	102	
			1	1	
	연산여중	동래읍성지	1	2	
		연산동고분군	5	39	
		동백섬	2	7	
		용두산공원	1	1	
		범어사	1	5	
	사직여중	범어사	1	1	
	이사벨여중	연산동 고분군	2	9	
	동명여중	연산동 고분군	2	7	
		범어사	1	1	
	망미여중	수영고원	5	20	
	석포여중	수영공원	3	22	
		UN묘지	2	4	
	광안여중	수영공원	1	3	
		UN묘지	1	2	
	덕명여중	송상현 동상	1	2	
	학산여중	동래읍성지	2	6	
	온천여중	동래읍성지	2	11	
		금강공원	1	2	
	충렬여중	동래읍성지	6	25	
		금강공원	1	6	
	부곡여중	동래읍성지	3	20	
		범어사	5	27	
	금정여중	금강공원	4	24	
		범어사	3	11	
	동래여중	금강공원	1	1	
	용호여중	UN묘지	3	17	
	문현여중		7	71	
	대연여중		3	7	
	남여중	태종대	3	13	
계	143개교	23개문화재	416회	1,843명	

3) 대구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월·일	참가 학교명	봉사활동 문화재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내용
3~12월 매주 토·일	감삼중	도동서원 외 5곳	2	6	실천결의대회 및 발대식 문화유산 봉사활동 교육 문화재 및 향토문화조사 질서제도 안 내 홍 보 정화활동 문화유산 봉사활동 발표 대회
	관천중	두류공원	1	4	
	경운중	청소년수련원	1	22	
		동화사 대웅전 외 3곳	1	38	
		도동서원 외 5곳	2	36	
	대곡중	청소년수련원	3	139	
		두류공원	1	420	
		대곡중학교	1	420	
		달서구 일원	1	420	
		월성동 주거지	1	42	
		신당동 석장승	1	42	
		상동 지식묘	1	84	
		임휴사	1	84	
		낙동서원	1	84	
		석조유물	1	84	
	대구남중	달성공원 관공루	1	60	
	대구동중	청소년수련원	1	16	
		국립대구박물관	1	12	
	대구중	건들바위,진주하씨묘출토유물	1	5	
		청소년수련원	1	19	
	대서중	청소년수련원	2	140	
		국립대구박물관	1	9	
		성모당, 대구향교	1	6	
		동화사 당간지주	1	50	
		도동서원 외 5곳	2	60	
	블로중	도동서원 외 5곳	2	2	
	서부중	청소년수련원	1	19	
		국립대구박물관	1	7	
		두류공원	1	4	
		선화당, 정청각	1	9	
	성광중	국립대구박물관	1	20	
	신암중	도동서원 외 5곳	2	2	
	청구중	청소년수련원	2	35	
		국립대구박물관	1	12	
		봉무토성, 독암서원	1	2	
	침산중	청소년수련원	2	16	
	칠곡중	부인사	1	5	

월·일	참가 학교명	봉사활동 문화재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내용
3~12월 매주 토·일	경북여중	국립대구박물관 성모당, 대구향교	1 1	16 18	실천결의대회 및 발대식 문화유산 봉사활동 교육 문화재 및 향토문화조사 질서계도 안 내 홍 보 정화활동 문화유산 봉사활동 발표 대회
	경화여중	청소년수련원	1	40	
	대구여중	청소년수련원 국립대구박물관 내곡 모감주나무군락, 용암산성	2 1 1	28 9 13	
	대명여중	청소년수련원	1	3	
	남도여중	청소년수련원 국립대구박물관	1 1	9 6	
	상서여중	청소년수련원 동화사 대웅전 외 3곳 도동서원 외 5곳	2 1 2	32 4 4	
	상인여중	청소년수련원 국립대구박물관 신당동 석장승	2 1 1	31 18 19	
	소선여중	청소년수련원 국립대구박물관 영영축성비, 대구부수성비	2 1 1	13 9 4	
	신당여중	청소년수련원 국립대구박물관 달성공원 관풍루	2 1 1	36 13 16	
	안심여중	국립대구박물관 불로동고분군, 송정동 석불입상 청소년수련원	1 2 1	22 44 16	
	평리중 노전초등 제일여중	도동서원외 5곳	2 2 2	2 6 4	

월·일	참가 학교명	봉사활동 문화제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내용
3~12월 매주 토·일	경북공고	청소년수련원 청도 운문사	2 1	11 8	실천결의대회 및 발대식 문화유산 봉사활동 교육 문화제 및 향토문화조사 질서제도 안 내 홍 보 정화활동 문화유산 봉사활동 발표 대회
	경원고	청소년수련원 국립대구박물관	2 1	695 11	
	대구과학고	청소년수련원 국립대구박물관 사월동 지식묘군	1 1 1	16 17 23	
	대구상고	청소년수련원 국립대구박물관 동화사 대웅전 외 3곳 도동서원 외 5곳	2 1 1 2	27 7 4 4	
	대중금속공고	국립대구박물관 남지장사 청소년수련원	1 1 1	8 8 11	
	영남고	청소년수련원 동화사 대웅전 외 3곳 도동서원 외 5곳	1 1 2	6 12 12	
	영진고	청소년수련원 국립대구박물관 경북대 박물관	1 1 1	30 24 29	
	현풍고	청소년수련원 국립대구박물관	1 1	13 10	
	경화여고	청소년수련원 동화사 대웅전 외 3곳 도동서원 외 5곳	1 1 2	6 10 12	
	구남여상	과계사 원통전	1	9	
	상서여상	청소년수련원 국립대구박물관 용연사	1 1 1	49 22 31	
	송현여고	청소년수련원	1	172	
	영송여고	청소년수련원 국립대구박물관 칠곡향교 대성전, 귀암서원	2 1 1	14 5 7	
	회원여고 효성여고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	1 1	3 8	
계	43 개교	65개 문화제	124회	4,204명	

4) 인천광역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기 간	참가 학교명	봉사활동 문화재	참가 횟수	참 가 인 원	봉사활동 내용
4월~11월	1~3기 문화재보호 사회전문봉사반	문학산 일대 (인천향교 외 7곳) 영종도 일대 (용궁사 외 5곳) 논현포대 외 5곳	10	267	문화유적 답사 지역문화재 조사탐방 문화재보호 홍보 캠페인 문화유산의 해 홍보전단 나누기 문화유산 행사보조 환경정화
	선화여중	월미도 문화의 거리 외 3	7	70	
	동인천여중	월미도 문화의 거리 외 1	2	32	
	서곶중	월미도 문화의 거리	1	5	
	중앙여상	월미도 문화의 거리 외 1	2	44	
	인천여상	월미도 문화의 거리	1	32	
	인천여고	수봉공원 외 3	6	55	
	광성중	수 봉 공 원	3	56	
	인천남중	수봉공원 외 2	7	86	
	신현여중	수 봉 공 원	1	21	
	운봉공고	수 봉 공 원	2	19	
	제물포고	수봉공원 외 1	1	30	
	대현중	자 유 공 원	2	49	
	신흥여중	자유공원 외 1	4	75	
	송도중	자 유 공 원	3	49	
	가좌여중	서구 문화회관 외 1	4	38	
	인일여고	자유공원 외 1	2	27	
	효성중	자유공원 외 2	7	104	
	인천여중	자 유 공 원	1	1	
	부평여고	근린공원 외 1	5	77	
	부원중	근린공원 외 2	5	35	
	부평공고	근 름 공 원	7	125	
	산곡중	근린공원 외 1	2	33	
	가정여중	근린공원 외 1	2	17	

기 간	참가 학교명	봉사활동 문화재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 내용
4월 ~ 11월	서인천고	근린공원 외 2	3	9	문화유적 답사 지역문화재 조사탐방 문화재보호 홍보 캠페인 문화유산의 해 홍보전단 나누기 문화유산 행사보조 환경정화
	계양중 계산고	싸이클 경기장 싸이클 경기장	2 3	37 37	
	부평중 부광고 영일외국어고	싸이클 경기장 외 1	6 3 2	81 45 40	
	검단중 계산중 임학중 안남중 북인천여중	싸이클 경기장	1 4 2 1 1	4 16 42 1 24	
	부광중	싸이클 경기장 외 2	7	63	
	인향고	은울탈춤 전수관 외 2	7	92	
	관교여중	종합문화예술회관	1	15	
	관교중 인천여자공업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외 1	4 4	57 69	
	부평서여중	백운공원 외 1	4	16	
	부일중	싸이클경기장 외 1	4	61	
	부광여고	싸 이 클 경 기 장	1	16	
	부평여중	싸이클경기장 외 2	6	72	
	문성여상 인하부중	시민회관 외 1	2 5	21 45	
	산곡남중	근 린 공 원	1	6	
	인성여고	자유공원 외 1	3	29	
	남동중	자유공원 외 1	2	6	
	인천정보산업고	자 유 공 원	2	6	
	인천기계공업고	시민회관 외 1	3	37	
	선화여상	시 민 회 관	2	13	
	동산고	시민회관 외 1	2	20	

기 간	참가 학교명	봉사활동 문화재	참가 횟수	참 가 인 원	봉사활동 내용
4월~11월	부평고	근린공원	1	20	문화유적 답사 지역문화재 조사탐방 문화재보호 홍보 캠페인 문화유산의 해 홍보전단 나누기 문화유산 행사보조 환경정화
	갈산중	근린공원 외 1	3	24	
	박문여중	수봉공원	1	1	
	선인고	수봉공원 외 1	2	13	
	청학중 연성중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외 1	5 4	69 38	
	연수중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3	45	
	청학공고	인천상륙작전기 념관 외 1	2	15	
	청량중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1	1	
	인천제일상업고	시민회관	1	12	
	인천전자공고	시민회관 외 2	5	66	
	부개여고 명신여고	근린공원	2 2	16 29	
	상인천여중	시청앞 광장 외 1	1	33	
	신명여고	시청앞 광장	2	41	
	동암중	시청앞 광장 외 1	3	22	
	만수중	시청앞 광장	2	19	
	구월여중	시청앞 광장 외 1	3	25	
	동인천중	시청앞 광장 외 1	2	2	
	백석고	수봉공원 외 1	2	4	
	부평여상 부평여자공업고 산곡여중 간석여중	문화유산 사진전	1 1 1 1	2 1 1 2	
	부일여중	근린공원 외 1	3	19	
	인천고 인천과학고	문화유산 사진전	1 1	5 2	
	학익고	자유공원 외 4	1	197	
	대인고	서구 문화회관 외 1	2	6	

기 간	참가 학교명	봉사활동 문화재	참가 횟수	참 가 인 원	봉사활동 내용
4월~11월	박문여고	서구 문화회관	1	4	문화유적 답사 지역문화재 조사탐방 문화재보호 홍보 캠페인 문화유산의 해 홍보전단 나누기 문화유산 행사보조 환경정화
	구월중	서구 문화회관 외 1	2	3	
	가좌중 용현여중 만수북중	서구 문화회관	2 1 1	22 2 1	
	만수여중 동인천고 학익여고 만수여중 만성중 송덕여중	시 청 앞 광 장	1 1 1 1 1 1	2 2 1 2 1 1	
	제물포여중	시청앞 광장 외 1	2	13	
	상인천중	시청앞 광장	1	1	
	인하부고	수봉공원	1	1	
	구월초등 석정초등 청천초등	시청앞 광장	1 1 1	1 2 4	
	주원초등	서구 문화회관 외 1	3	12	
	서울사대부중 계산공고	싸이클 경기장	1 1	1 7	
	경인여상	서구 문화회관	1	1	
	운산기공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1	11	
계	104 개교	32 곳	261회	3,152명	

5) 광주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월일	참가학교명	봉사활동 문화제	참가 인원	활동시간	봉사활동 내용
3~6 7~8 10~11 매주 토·일	각화중		1	7	
	경신여중		48	199	
	광산중		22	263	
	광주고		7	57	
	광주실고	운주사, 송광사	32	192	
	광주여고		45	359	
	국제고	백양사, 식영정	15	147	
	금남중		1	9	
	금파공고	소쇄원, 면앙정	40	212	
	광주기계공고		1	14	
	대성여중	송강정, 명옥헌	70	263	
	동성중		2	18	
	동신여고	환벽당, 필암서원	6	48	
	동신여중		6	14	
	동신중	충장사, 포충사	5	48	환경 정화활동
	7~8	두암중	3	8	
	10~11	문산중	72	372	안내활동
	매주	문성중	2	18	
	토·일	문화중	12	108	안내 자료 제작
		문흥중	97	467	
		북성중	4	8	
		전대사대부중	4	36	
		서강고	15	135	
		서강중	5	39	
		송원여중	2	4	
		수피아여고	130	696	
		수피아여중	1	12	
		승일고	2	14	
		승일중	30	182	
		신평중	41	89	
		우산중	56	467	
		운남중	4	36	
		월계중	4	36	

월일	참가학교명	봉사활동 문화제	참가 인원	활동시간	봉사활동 내용
	전남공고		1	9	환경 정화활동
	조대부여중		1	9	
	주월중		3	35	안내활동
	진흥고		1	9	
	진흥중		2	24	안내 자료 제작
	효광중		10	140	
계	38개교	19곳 이상	803명	4,803시간	

6) 대전광역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순번	참가학교명	봉사활동 문화재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내용
1	가양초등학교	남간정사	1	1	문화재 배우기 문화재주변 환경정화 박물관 견학 및 청소 전통놀이 배우기
2	백운초등학교	계룡산	1	1	
3	성룡초등학교	화폐박물관	1	4	
4	용전초등학교	회덕향교	1	4	
5	가양중	계족산성 외 6	12	252	
6	가오중	남간정사 외 2	4	265	
7	갈마중	계룡산 외 2	3	12	
8	갑천중	화폐박물관 외 3	5	310	
9	남선중	선사유적지 외 4	4	19	
10	내동중	동춘당 외 9	12	544	
11	대문중	계룡산 외 3	6	318	
12	대성여중	남간정사	5	336	
13	대성중	도산서원 외 1	2	2	
14	대전여중	남간정사 외 2	4	46	
15	대전중	계룡산 외 5	7	142	
16	대화중	한밭교육박물관 외1	4	188	
17	도마중	계족산성 외 5	6	257	
18	동대전중	도산서원 외 3	4	85	
19	동명중	한밭도서관향토자료관	1	47	
20	동방여중	남간정사 외 2	3	19	
21	동산중	계룡산 외 3	6	206	
22	동중	남간정사	1	70	
23	둔원중	화폐박물관 외 4	7	453	
24	만년중	도산서원 외 3	7	261	
25	문정중	보문산성 외 4	5	164	
26	문화여중	현충원 외 2	3	26	
27	범동중	회덕향교 외 3	7	342	
28	보문중	한남대 박물관 외 7	14	467	
29	봉산중	보문산성 외 2	5	134	
30	북중	현충원 외 2	2	98	
31	삼천중	도산서원 외 4	6	68	
32	서중	계족산성 외 3	6	53	
33	신탄중양중	회덕향교 외 5	8	864	
34	신탄진중	계조간성 외 2	5	160	

순번	참가학교명	봉사활동 문화재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내용
35	어은중	계룡산 외 5	8	89	문화재 배우기
36	오정중	보문산성 외 2	7	269	
37	용전중	계족산성 외 3	8	612	
38	월평중	선사유적지 외 3	4	666	
39	유등중	한남대박물관 외 1	2	2	
40	유성중	현충원 외 3	4	72	
41	전민중	화폐박물관 외 1	2	67	
42	중리중	회덕향교 외 4	7	366	
43	중앙여중	한밭교육박물관 외 1	2	38	
44	중앙중	도산서원 외 3	5	10	
45	진잠중	계룡산 외 1	3	26	
46	청주 남중	보문산성	1	1	
47	청주 천천중	보문산성	1	1	
48	충남여중	남간정사 외 1	3	13	
49	탄방중	계룡산 외 1	4	11	
50	한밭중	남간정사 외 2	3	65	
51	호수돈여중	회덕향교 외 1	2	2	
52	회덕중	회덕향교 외 1	6	207	
53	경덕공고	보문산성	2	2	
54	계룡공고	남간정사 외 1	2	9	
55	과학고	보문산성 외 1	2	3	
56	대덕고	보문산성 외 1	2	2	
57	대덕공고	계족산성 외 1	6	27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 박물관견학 및 청소 전통놀이 배우기
58	대성여상	회덕향교 외 1	4	11	
59	대신고	계룡산 외 1	8	69	
60	대전고	한남대 박물관 외 1	3	6	
61	대전상고	계족산성 외 2	4	9	
62	대전여자공고	보문산성	2	3	
63	대전여상	한밭도서관향토자료관	1	1	
64	동대전고	계족산성 외 3	5	75	
65	동아공고	남간정사 외 1	3	62	
66	둔산여고	도산서원 외 2	4	14	
67	명석고	남간정사 외 1	3	393	
68	보문고	계족산성 외 1	5	198	
69	북고	화폐박물관	1	2	
70	새일고	한남대 박물관 외 2	6	127	
71	서대전고	남간정사 외 2	4	15	
72	서대전 공고	문화학교 외 1	2	47	

순번	참가학교명	봉사활동 문화재	참가 횟수	참가 인원	봉사활동내용
73	서일고	계룡산 외 3	4	102	문화재 배우기 문화재주변 환경정화 박물관견학 및 청소 전통놀이 배우기 등
74	서일여고	계룡산 외 2	3	48	
75	서일여자공고	현충원	1	1	
76	성모여고	남간정사 외 2	6	394	
77	신일여상	계족산성 외 2	3	4	
78	신탄진고	보문산성 외 3	6	9	
79	예술고	동춘당 외 2	3	19	
80	유성고	보문산성 외 1	2	75	
81	유성농고	남간정사	1	4	
82	유성여고	문화학교 외 2	5	179	
83	중앙고	남간정사 외 1	3	76	
84	중일고	선사유적지 외 2	3	107	
85	진산공고	계룡산	1	1	
86	청관여고	보문산성 외 2	3	6	
87	충남고	계족산성 외 3	4	13	
88	충남여고	계룡산 외 6	7	38	
89	한밭고	도산서원 외 3	5	48	
90	한밭여상	남간정사 외 2	4	55	
91	호수돈여고	보문산성 외 1	2	3	
92	대전대학교	현충원	1	3	
93	목원대학교	계룡산 외 3	10	125	
94	배재대학교	도산서원 외 3	4	50	
95	충남대학교	문화학교	1	17	
96	한남대학교	한남대 박물관	1	2	
계	96개교	14개문화재	393회	11,180명	

〔 부록 2 〕 문화유산 봉사활동 소감문(학생/지도자)

1. 학생편

창덕궁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덕수중학교 1학년

문 정 희

내가 지금까지 가본 고궁은 딱 두군데……봉사활동 전에는 한군데였다. 경복궁. 그래서 경복궁이 제일 중요한 고궁이고 제일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봉사활동 이후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처음엔 봉사활동이라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었다. ‘이 더운 여름 할 일이 없어서 봉사활동을 하나?’ 이런 생각이었다. 그래서 좀 늦게 집에서 나왔다. 겨우 아빠차 타고 찾아온 이곳 첫 번째 봉사는 고궁의 먼지털기, 먼지털이를 가지고 맡아진 이곳저곳을 털고 또 털고 그런데 ‘먼지가 벽에 달라 붙어 떨어지지 않게 앞네!’ 다른 애들은 30 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맥을 못추리고 땅바닥에 자리잡고 앉아있었다. 내 친구들은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탈이다. 어떻게 설 생각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에이! 나도 질세라……’ 하며 열심히 일을 마무리했다. 야호!! 쉬는 시간!!!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 보다는 이곳저곳 기웃거리려도 보고 안내양 언니들의 해설도 옆에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첫날은 잘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둘째날 마음가짐을 단단히 했다. 이왕온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번엔 내의원 창틀사이의 먼지털기. 가정시간에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근육을 자유롭게 리듬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생각났다. 그래서 열심히 리듬을 느끼며 일했다. 별로 힘이 안들었다. 힘들어서 ‘헉헉’ 거리는 애들도 있었다. ‘쫓. 쫓. 머리를 써야지…’ 지나가시던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께서 혼썰음을 하셨다. 그것도 그럴 것이 봉사활동 와서 도움은 커녕 더 힘들게 안하니. 먼지털기는 열심히 했으나 먼지털이 비닐이 이리저리 나뒹굴어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닐을 다주어서 버리려 잠깐 나간사이 비가와서 옷이요 가방이요 흠뻑 젖었다. 겨우 꺼내오는데 아까왔던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께서 다시는 오지말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기껏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피” 그래서 둘째날에는 기분 엄청 안좋았다. 이제 셋째날.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잡초뽑기 비닐하나를 다 채우는 것이다. 구슬땀이 주룩 주룩 났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끝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창덕궁 구경을 톡톡했다. 먼저 금천교를 구경했다. 다리의 아랫부분에 있는 해태와 거북이가 석조조각의 우수성을

보여 주었고, 궁전안을 살펴봤는데 대단히 위엄있었다. 기와 밑부분의 무늬와 채색기법 등을 보며 우리나라 고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궁궐후원인 비원에 들어가 보았다. 기이한 나무와 꽃돌 울긋불긋 아름다웠다. 비원 구경 도중 부용정이란 곳에서 잠시 쉬었는데 부용정 앞의 부용지단 연못엔 잉어와 붕어 심지어 자라까지 있었다. 잉어 먹이가 200원 하길래 사서 주었더니 내가 있는 쪽으로 자라까지 와서 먹이를 먹었다. 비원을 구경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향나무를 보았다. 안내양 언니의 말씀에 따르면 동서남북으로 가지가 늘어졌으며 늘어진 모습이 용과 같다고 하였다. 이렇게 기이한 나무여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참 신기 하였다. 봉사활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며 즐거웠다는 생각을 했고, 창덕궁의 아름다움과 비원을 다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궁이란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 구경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송실중학교 2학년
정 의 현

2학년이된 우리 6반만은 3월8일 개학이후 매주 토요일 이면 어김없이 봉사활동을 간다. 고등학교 진학에 반영되는 봉사활동 15시간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다.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다른 반보다 빨리 받기 위해 주말마다 빠른 시일 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2주일 지난 후에 선생님께서 자율적도 좋지만 봉사활동을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하게 해주신다며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셨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봉사정신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하셨다. 평소 유적지나 유물에 관심이 많은 나는 선뜻 참가를 했고, 우리 학교에서는 나를 비롯한 100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하게 되었다.

3월 29일 처음 참가하게 된 나른 가슴이 설레었다. 1시30분에 도착한 우리는 기념식 준비를 하였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을 채웠다. 또 방송국과 신문사가 촬영을 했고, 우리 학교 팻말을 들고 있던 나는 가슴이 뛰었다.

기념식을 끝내고 우리는 덕수궁에서 건물의 먼지를 털었다. 토요일 오후의 황금의 시간에 문화유산을 정화한다는 것이 불만이 있었지만 자유로운 시간에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을 한다는 자신에 대한 기쁨을 느껴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불만은 다시 고개를 집어 넣었다.

4월 19일 두 번째 올 때는 나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며 나의 자유와 금같은 시간을 경복궁에 담아 주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손톱이 아프고 손등에는 풀독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내가 뽑은 잡초를 두손에 가득 담고도 많이 남았다. 풀을 뽑고 휴지통에 잡초를 버리다 경희루를 바라보았다. 경희루옆에서 물을 바라보시던 어떤 할아버지는 친구분들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

“경희루에는 우리 한민족의 눈물이 들어 있어, 저 왜놈들에게 끌려 다니며 수모를 당했던 나같은 사람들의 굴욕감과 수치심에서 나오는 검은 눈물이 섞여있다고……” 잠시후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는 혀를 차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이 안에서 왜놈들에게 고통받던 분들이 한둘인가? 그리고 나라의 국모이신 민비가 여기서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이 경복궁도 안됐어 거 옛날에는 왜놈들에게 수모를 당하더니 지금은 저런 젊은 아이들에게 수모를 당하잖아!”

앞길을 지나가던 젊은 아저씨가 스프레이를 벽에다 뿌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시는 소리

이다. 나는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 나라 사람이 우리 문화유산을 훼손시키는 것은 나쁜 일이나 언제 일본에서 경복궁을 훼손 시켰냐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와서 경복궁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내가 우리 문화재에 대하여 너무 몰랐다는 사실에 너무 창피하였다.

5월17일 등교길에 가면서 어머니께 “저 오늘 봉사활동 안가면 안돼요? 오늘 책사러 가야되는데……”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저를 나무라시며 “봉사란 누가 시키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에서 사회를 위해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너도 할머니 말씀을 언제인가 들어서 알지? 이웃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발 벗고 내일처럼 돕고,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넓은 아량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조국을 지킨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

봐라. 네 자신에게 도움도 되고 조금만 힘써서 일하면 되는 봉사활동 몇 시간을 가기 싫어한다면 내가 앞으로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하겠니?” 이런 어머니의 호된 꾸지람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경복궁에 도착한 후 어머니의 말씀과 저번 봉사때의 할아버지들의 말씀으로 조사한 경복궁의 역사가 다시 내 마음속에 되살아나 친구들처럼 장난치고 놀기보다는 묵묵히 일 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들 문 뒤에 건물의 벽틈에 쓰레기통 옆 잔디밭에 외국인들의 시선에 비칠까 부끄러웠다. 나는 마지막으로 근정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몇 백년이 된 조상들의 삶의 터전에서 봉사할 수 있음이 기뻐다.

한우물 봉사활동에 다녀와서

서울미성중학교

장 미 선

우리 미성자원봉사반은 금천구 한우물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우리 학교 뒷산에는 등산로 비슷한 산길이 있다. 이길을 따라 2시간정도 가면 한우물에 갈 수 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다. 길도 가파르고 미끄럽고 무척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들의 손을 꼭잡고 한우물로 출발했다. 처음 출발할 때는모두 웃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길은 더 가파르고 우리는 얼굴을 찌푸렸다. 사실 올라가면서 클럽 선생님 원망도 많이 했다. 넘어져가면서 손도 까져가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 가면서 이를 꼭 물고 산을 올랐다. 가는 동안 이길의 끝은 언제 나올까? 집에 가고 싶다. 다른부서는 따뜻한 교실에서 따뜻하고 편히 있는데 왜 우리는 추운데 힘들게 산을 올라가는 것일까?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도 했다. 힘들게 도착하여 드디어호암사에 도착하여 우리는 무사히 도착했다는 기쁨에 너무 좋아했다.

우리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호암사와 한우물을 더욱 잘 알기 위해 설명문을 열심히 적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호암사 . . .

올라올 때의 고생을 잠시나마 잊고 호암사에 빠져들어 갔다. 열심히 정리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시작했다. 한우물과 호암사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정리했다.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무척 추웠다. 하지만 쓰레기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다. 갑자기 문화재가 너무 소홀히 보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진국들의 문화재 관리를 보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여러 모로 돌아가면서 더욱 발전시키고 빛을 내는데에 비하여 우리는 너무 홍보도 되어있지 않고 소홀히 관리된다.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인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야 우리 모두는 정리를 열심히 하고 산을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도 힘들었지만 봉사활동에 대한 기쁨에 기분이 좋았다. 내려오는 길에 나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과 쓰레기를 산에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도 문화활동을 자주하고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문화재를 보호하고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아무튼 이번 봉사활동은 나에게 문화재 보호와 사랑, 봉사활동의 기쁨 두가지를 전해주었다.

봉사활동 마치며 ...

부산진여자 상업고등학교
3학년 2반

박 미 량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좀 특별했다. 이때까지 수많은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봉사활동은 처음 이었다. 청소년문화유산봉사활동 이라는 소속에 웬지 끌려서 어떨결에 소속되어 문화유산을 알고 보호하는 색다른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다.

다른 자원봉사활동과 비슷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색다른 느낌의 활동이었다.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을 통해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 지식의 폭도 한층 높일 수 있었고, 역사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으며,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고장의 옛모습도 상상할 수 있었으며 우리고장에 대해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내가 살고있는 동네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만덕에 몇 년을 살면서도 만덕사가 있다는 사실만 알지 그 외에 만덕사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만덕사가 문화재이고 이 만덕사가 어떻게 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만덕사의 유래 면적등 문화유산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만덕사가 소중한 문화재란 사실과 만덕사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번 활동이 아니었다면 만덕사가 이 나라 석기왕자가 출가한 명당이라는 사실을 알았겠는가? 이번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었다면 이런 왕족의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만덕사지가 고려시대 불교 유적지의 천년역사라니, 정말 새로운 사실이 아닌가?

봉사활동 장소가 거의 만덕사지였기 때문에 특히 만덕사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첫주에 부산전문대 민속관을 견학하면서 많은 유물들을 보면서 역사를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 할 수 있었으며, 오랜 역사과정을 통해 민족 구성원 전체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린 생명 그 자체인 유물에서 민족의 혼과 슬기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또 유적지에 대한 구비전승을 앞으로써 그 유적지를 한 번 더 돌아보게끔 한다.

민속관에서 보았던 비디오 내용에 담겨있던 많은 문화유산들을 직접 눈으로 한 번 보고 그 문화유산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고 싶다. 만덕사지 처럼 잘 몰랐던 문화유산에 대해 한 번 가봄으로써 그것에 대해 알고 보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문화유산에 대해 알고 싶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문화유산 봉사단체가 많아서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한다.

우리 근처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다. 우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선조들의 열이 담겨있는 이런 문화유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화유산들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육성한다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역사와 민족의 혼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문화유산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 할 수 있다면 항상 내 근처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역사, 내가 몰랐던 새로운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 그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우리의 산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문화재를 사랑하고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내게 새로운 시각으로 눈을 뜨게 한 문화유산 봉사활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하고 싶고 나도 계속 하고 싶다.

송정동 석불입상을 다녀오고 ...

대구 안심여중

3학년

이 정 민

5월14일 수요일 아침. 오늘 따라 왠지 햇살이 뜨겁게 느껴졌다. 창문밖을 보다시계를 보니 7시10분 경과중.....

‘아침! 오늘 문화유적 답사하기로 한날인데...!!

우리집에서 집합 장소까지는 1시간이상 걸린다. 그것도 버스를 타고 가면은 더욱 늦다. 늦을까봐서 서둘러서 움직였다. 오늘같이 뜻깊은날 나만 두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된다말인가? 주무시고 계신 엄마를 깨워 버스정류장까지 아빠 차를 빌려타고 갔다. 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내마음은 서둘러야한다는 불안감에 가득찼다. 거기다 버스가 오지않으니 약속장소에 도착했을 때 20분씩이나 지각을 했다. 다행히 모두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난 창피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 듯 무거워짐을 느꼈다. 그렇다고 내가 뒤에 처질 수 있겠는가. 당당하게 앞으로 가서 진희랑 손잡고 흥얼거리며 걸어갔다. 우리 모두는 35번 버스를 타고 입석여중 앞에서 내렸다. 지도자 선생님의 말을 듣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안은 온통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저 안에 탔다가는 연약한 나는 가루가 되어 버릴 것 같았다. 한참을 기다리는 끝에 ‘일반버스가 오지 않으면 좌석버스라도 타고 가자 그러니 800원씩 준비하고 있어라는 선생님의 말에 주머니를 뒤져서 1000원을 끄집어냈다. 그 돈은 내피 같은 돈인데 난 눈물을 머금고 1000원을 써서 버스를 타버렸다. 피같은 돈이 날아가 짜증나는데 운전하는 아저씨 역시 짜증나는 아저씨라 기분이 무지 나빴다. 종점인 파계사에서 내려 송정동까지 열심히 걸었다. 30분씩이나 걸어 다리가 툭툭 붙어 올랐다.

이야! 드디어 도착했다. 근데 석불입상이 어디있지! 두리번 두리번. 여기저기 둘러봐도 석불입상은 보이지 않고 한 스님과 아주머니 집단들이 보였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앞에 부처도 없고 법당도 없는데 왜 절들이람!! 나무의 잎이 우거지고 알록달록한 색의 천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내 눈엔 석불입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들아. 빨리 조사해라!”라는 말에 난 친구들을 따라 움직였다. 표지판이 보였다. 석불입상에 대한 내용이었다. 화강암으로 제작됐다는 말에 돌이 쌓여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시커먼 돌 하나가 앞에서 있는걸 보았다. 비·바람에 의해 많이 납작해 있었다. 그 덕에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

였지만 없는 것이 더 멋있는 것 같다. 사실적이고 단순하고 완만한 것이 통일신라때 작품이었다.

“히히, 생긴 게 못생긴 걸 보니 날 닮았군, 제게 동배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날 닮아 좀 썩은 것 같군...” 혼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석불입상을 멍하게 보았다. 손을 앞으로 모은 것 같다고 하지만 손은 알아보기 힘들었다. 비,바람에 의해 사라졌거나 예술성을 위해 제작을 하지 않았거나, 귀찮아서 포기했던가!! 내가 통일신라 사람이 아닌 것이 무지 안타까웠다. 거기에 계시는 한 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절을 3번한다고 해서 삼배라고 한다고

한다. 조사시간 끝에 드디어 행복한 점심시간이 왔다. 우리는 도시락 펴놓고 빼앗아 먹으며 신나게 먹었다. 공양으로 주신 과일도 무지 많이 먹었다. 석불입상뒤에 산에서 흘러 내려 오는 물이 있었다. 물은 차고 시원했다. 친구랑 장난치다가 옆에 계신 할머니한테 무지 혼이 났다. 매미가 울고 우리는 신나게 떠들면서 우린 석불입상과 작별했다. 난 석불입상에게 바보같이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뒤를 돌았다. 햇볕에 내 살이 시켜멀게 났지만 내가 땀흘린 만큼 내가 열심히 걸어 왔던 만큼 오늘은 다른 날보다 힘들었고 지치기도 했지만 우리 문화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었기에 좀 더 친해질 수 있었기에 힘들었던 것 보다 보람되고 내가 자랑스러웠다. 다음엔 이렇게 많이 걸어서 활동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 석불입상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캠프를 다녀와서 ...

대구경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7반

이 선 정

저번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조그만 문화재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두 번째 봉사활동에서는 더 큰 것을 얻어가리라는 다짐을 하고 이곳에 처음으로 우리가 한 것은 민속놀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제기차기, 윷놀이, 줄넘기, 팽이치기 등외에도 돼지씨름, 잡기놀이, 공기놀이 같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요즘에는 오락기 TV 등이 있어서 옛날보다 민속놀이 할 기회가 많이 줄어든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민속놀이를 해보니 재미도 있고 협동심 같은 것도 생기는 듯 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 저녁은 즐겁게 보냈다.

다음날인 일요일 오늘은 6시에 일어나 밥먹고 예정대로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로 떠났다. 도착해서 처음으로 본 것이 조그만 이름 모를 석탑이었다. 설명해 주시는 아저씨께서 우리는 참 운이 좋이라며 옛날에는 석탑이 대추나무로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석탑을 보지는 못했다고 하셨다.

비록 조그맣고 볼품없는 석탑이었지만 그 석탑에 담긴 뜻을 생각하면서 다음 장소인 본리 세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1936년에 수봉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는 수봉정사, 1910년 용호재터에 접객과 자제들의 학덕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했다는 광거당은 옛날 사람들의 건축술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대문은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오던 것과 다르게 장수를 기원하는 거북모양이 양쪽에 새겨져 있고, 거북등에는 태극기에서만 보아오던 건(), 곤()이 새겨져 있었다. 문 하나에도 어떤 뜻을 부여하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도 조그만 것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장소는 현풍곽씨 12정려각 → 도동서원 강당 사당부 장원 → 광재우 묘비 → 현풍 석빙고였다.

내가 제일 감명 깊었던 곳은 도동서원이었다. 거대한 은행나무 앞에 보이는 수월루, 정해진 돌, 다듬은 돌로 쌓은 기단이 아니었지만 단정한 모습이 돋보였다. 그렇지만 가장 내 마음을 뒤흔든 것은 중정당의 기단과 서원의 담장이었다. 평소 담장에 관심이 많았던 내가 실제로 이 담장을 보게 되니,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밀려 왔다.

봉사활동을 마치면서 내가 생각하고 느낀 점을 말하라면 하룻밤을 새어도 다 못할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감동적이고 문화유산에 대해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뜻깊은 봉사활동이었다.

회덕향교 봉사활동을 마치며 ...

대전오정 중학교

3학년 1반

전 대 희

좀 힘들었지만 이런 옛 건축물도 보고 우리의 문화를 보았다는게 좋았다. 또 학교에서 추천하는 자원봉사라면 분명 좋았을 것이다. 처음 여기에 왔을때에는 여기가 정말 향교인가 의아해했습니다. 지금 보아도 향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옛 건물이 있으니 내가 봉사활동하러 온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곳에 자주와서 우리의 문화를 감상하는 기회도 자주 갖고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곳을 보존하여 많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봉사활동보다도 문화유적지를 답사했다는 데서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와보고 싶습니다. 오늘 기와를 나르고, 잡초를 뽑는 등 힘든일을 많이하고 나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계룡산 자원봉사활동을 마치며 ...

대전대신고등학교

2학년 10반

민 경 성

난 봉사활동을 시간수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시간수를 채워야하겠다는 마음보다는 환경을 보호해야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주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까? 버리는 쓰레기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환경파괴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말이다.

계룡산 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한심한 생각도 많이 들었다. 쓰레기를 버릴거면 잘 보이는곳에라도 버리지, 왜 나무아래 깊숙히 버릴까? 버리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생각해 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봉사활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잘 못되고 있는 것 같다. 대학을 가기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점수를 위하고 성적을 위한 봉사만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경을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자원봉사의 분위기가 온 국민전체에게로 확산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

영종 · 용유도 문화유적지 답사기

인천여고 2학년

백 승 요

7월 17일 아침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며 우리 문화재보호 사회전문봉사반 학생들은 영종 용유도 일대 유적지 답사에 나섰다. 영종 용유도에 유적지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 답사는 내맘을 더욱더 설레이게 만들었다.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로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남모를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다.

웬지 이번 답사는 다른 여느때와는 다른 그런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내 예상대로 이번 답사는 여느때와는 다른 색다른 답사가 되었다. 답사라기 보다는 탐사에 더 가까운 활동이 었으니 말이다.

다른 일행 보다 먼저 도착한 우리는 일행들이 오기전까지 경원정과 선사시대 무기 제작소를 답사하였다.

경원정은 고려시대 황해를 건너온 송나라 사신들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한다.

안내자료에 이색의 아버지 이 곡이 중국에 다녀오면서 경원정을 들어 그곳의 경치를 읊은 시가 있었는데 이 시로 미루어 보아 굉장히 멋있는 경치를 배경으로 해서 작은 누각과 기와집 몇 채가 있겠지라는 상상으로 마냥 둘째 그곳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러나 ……

이게 웬걸? 도착해 보니 옛 경원정은 남아있지도 않고 다만 그 터만 간신히 남아 있었다. 지금은 텃밭과 양계장이 들어서 버린 그곳…

역시 상상은 상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이 다시 복원되면 내가 상상했던 그 모습 일꺼라는 아쉬움을 남긴 채 다음 목적지로 발길을 옮겼다.

그 다음 간 곳은 선사시대 무기 제작소였다. 돌화살촉 등을 만들었다는 이곳 역시 그 터만 남아 있었고 선사시대 무기 제작소 터인 만큼 예전에 돌화살촉의 재료로 쓰였던, 검은 돌들이 옛 역사를 말해주듯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다.

앞서 둘러 본 이곳은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서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옛 유적지의 흔적마저 희미해져 가는 이곳을 보고 조금만 더 유적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도… 라는 아쉬움만 남긴채 산을 내려갔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올라 올 때와는 다르게 산을 내려가는 내맘은 유적지 보존에 대한 아쉬움과 상상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던 이곳에 대한 느낌등으로 착잡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이형석 부장님께서 영종도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다.

이곳의 원래 옛 지명은 자인도 였으나 조선시대에 비로소 영종도 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다고…… 이 이름은 영종도에 제비가 많이 서식해 제비란 뜻의 한자로 이름을 붙였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삼목도 토성이었다. 앞서 본 경원정과 무기 제작소의 보존 상태를 보고 적지 않은 실망을 한 나로서는 ‘이번에는 아니겠지’ 하는 맘으로 조그만 언덕을 오르고 나무와 나무사이를 비집고 모기에게 헌혈을 당하면서 씹씹하게 올라 갔으나 그 토성의 보존 상태를 보고 또 한 번의 실망을 금치 못했다.

흙인지 토성인지 거의 구분이 안갈 정도로 훼손된 토성……’ 어떻게 해서 찾아온 곳인데 겨우 이런 모습을 보러 이렇게 힘들게 왔나 싶었다.

한편으로는 이곳으로 안내하신 분의 깊은 뜻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훼손된 문화재가 많이 있으나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너희들이 해결해야 할... 아니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 아닌 이번 답사를 통해서 직접보고 느낄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무리 지방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나라의 산 역사를 보여주는 곳인데… 길도 이제 나무에 묻혀 찾아가기 힘들뿐더러 관리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려는 노력도 없는 것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왕자묘 였다.

이곳은 최충헌의 무단 정치를 시작으로 인해 쫓겨난 고려 희종왕이 강화도로 귀향 왔다가 다시 이곳으로 유배되어 살다 죽어 묻은 무덤이라고도 하고 고려말 나이 어린 창왕의 무덤이라고도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무덤이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누구의 무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창왕의 무덤이라는 설은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는 창왕의 무덤이 왕산리에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은 예전에 군사 지역이라서 전혀 접근 할 수가 없다가 얼마전에 해제 되어 근 30년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그곳으로 통하는 길이 전혀 없었다.

웬지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인 왕자요 답사의 험난한 고행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

내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사실 이 왕자묘를 찾아 가는 것은 답사가 아닌 거의 탐사에 가까운 답사였기 때문이다.

먼저 산의 능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올라가 다시 골짜기를 타고 숲을 헤치고 나무를 꺾어 길을 만들어 각종 벌레들에게 좋은 영양분(나의 피)을 제공해 주고 비와 땀으로 샤워를 하고 간간히 비 때문에 미끄러 지기도 하면서 고생고생 끝에 간신히 찾은 왕자묘!

그러나 이곳 역시 보존상태는 마찬가지... 예전에 도굴들로 인하여 도굴된 채 흔적만이 남아있는 실로 허울뿐인 묘였다. 이형석 부장님의 왕자묘에 대한 짙막한 설명을 듣고 우리 일행은 산을 내려왔다.

우리는 간단히 요기를 하고 오후 답사 일정에 따라 다음 목적지로 옮겼다.

선녀기암, 옛날 어느 용맹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이돌밑에 투구와 갑옷을 벗어 놓았으나 어느 부정한 사람이 만져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갑옷과 투구가 돌이 되었다는 전설의 장군 바위를 돌아 희종왕과 그의 자손 그리고 창왕이 살았다고 하는, 아직 옛 우물이 남아 있는 천택골을 지나 마지막으로 불교 신앙과 우리의 토속신앙인 용궁신앙의 제단이 함께 모여져 있고 천년가까이 산 할아버지나무와 할머니나무가 있는 용궁사를 끝으로 이날의 답사 일정을 마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안에서 왜 오늘 답사 코스를 오전 오후가 대비되게 한마디로 전혀 다른 조건의 답사 일정을 잡으셨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 보았다. 그에 대한 해답은 '그렇다' 이렇게 상반된 문화재 답사를 계획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아니 우리가 몸소 느끼면서 깨닫게 하실려고 이런 답사코스를 잡은 신 것일꺼다. -내가 이 답사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내린 결론은 이곳 말고도 인천에 많은 유적지가 있으나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다.

문화재로 지정받긴 받지 않았건간에 말이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보아야 할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더 이상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유적지를 마구 헤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기업들이 없기를...

신공항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영종 용유도의 유적지가 파헤쳐져 물 사람들에게 인천의 유적지라고 알려 지기도 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어깨가 무겁다는 걸 느꼈다.

앞으로 문화재를 발굴함에 앞서 기존의 문화재를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번 답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 일게다.

힘도 들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았던 이번 답사는 나름대로의 색다른 경험이었고 우리에게 인천지역의 문화재, 보호실태에 관하여 생각을 하게 해준 답사였다.

답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갈때에는 이곳 유적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은 겪어 보지 못한) 남다른 경험, 그리고 영종 용유도에 있는 유적지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갈 수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뜻있는 답사가 되었다는 뿌듯함에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갈 수 있었다.

내가 본 문학산

인천청학공고 3학년

박 정 식

내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은 얼마전이다. 단지 봉사활동을 위해 참가한 '문화재. 보호 사회전문봉사반'이란 동아리에 가입된 이후 우리의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 동아리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어졌다.

이곳에서 처음 가본 문화유산은 '문학산'이다.

산의 형상이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학과 같아 학이란 글자를 쓰고 학의 머리에 향교가 있고 그 옆에 학산 서원이 있었기에 文(문)자를 사용하여 문학산이 되었다 한다. 이 이름부터 멋있는 문학산 답사의 첫코스는 인천향교이다.

아침 9시 우리는 문학초등학교에 집결하여 인천향교로 향했다. 인천향교는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밑에서 본 인천향교는 무슨 궁궐을 보듯 웅장했으며 그 뒤의 산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품 같았다. 그런 첫인상을 가지고 우리는 향교의 대문(홍살문이라 불림)과 하마비를 보며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침 옛 문인들에게 드리는 제사인 '문묘석전대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문묘석전대제는 향교에서 모시는 분들에게 매년 드리는 제사였다.

인천향교에는 문성왕(공자) 外 4성 공자, 맹자, 자와 10哲(철)과 송조 6현의 위패가 배형되어 있고 향교의 좌우에 동무와 서무라는 곳에 최치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역대 성현의 위패가 배명되어 있다.

우리를 지도해준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옛날 조선시대에는 향교 앞을 지날때 그 어떤 벼슬,관리라해도 말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이 앞을 지났다고 한다.

인천향교! 이렇게 훌륭한 곳이 인천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얼굴이 상기되었다. 향교를 나오면서 문학산을 바라보며 오늘 답사에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잠깐 드리고 우리의 다음 목적지인 인천도호부청사로 향했다.

도호부청사로 가는 길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분명 인천도호부청사로 간다 했는데 우리의 집결지였던 문학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문학초등학교운동장 한쪽에 인천도호부청사가 위치해 있었다. 인천도호부청사라하면 인천의 옛 관청일텐데 조선조시대에는 웅장했을 청사가 현재에는 거의 다 없어지고 다만 객사 일부와 동헌일부 그리고 월헌 후에 지은 것으로 보여지는 창고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동헌은 얼마전까지 교사의 일부로 쓰여 왔다 한다. 이외의 군관청은 해방전 경찰파출소로 사용하다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동헌은 동헌이 아니라 내동헌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지금의 도호부청사는 옛청사의 모습이 아니라 학교 한편에 버려진 건물 같았다. 입구에 안내 표지판도 없고 청사앞에 다만 이곳이 도호부청사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만 있을 뿐이다. 조금만 더 관리되어 뚫려진 창호지도 메우고 청사안에 소복히 쌓인 먼지도 없어졌으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다.

우리는 도호부청사를 지나 한 20여분 정도 걸어서 학산서원터에 도착했다.

서원터에 도착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서원터라하면 무슨 건물이 자리잡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망가진 작은 비가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것도 산으로 올라가는 길 한 편에 오히려 주춧돌이 골목이라 그 비가 사람 통행에 불편을 줄 것 같았다. 학산서원 옛 지방도서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러 서적이 보관되었을 곳이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에 큰 실망과 안타까움만 생겼다. 산에 오르며 학산 서원에 관한 자료를

읽었다. 숙종 28년(1702)에 건립되어 조선조 부제학이 단상을 배향하였으며, 그의 아들인 이조 참판 이희조를 영조2년에 추배하였다고 한다.

인천주민들이 학산서원을 세워 두 분을 봉사하고 그들의 유덕을 기렸다고 한다. 그 후 고종 2년에 학산 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로 훼손되고 말았다. 현대 서원이 철폐된지 100년이 훨씬 넘게 지났는데도 복원할 생각을 안하고 이 역사적인 지역을 함부로 방치한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이 컸다.

우리는 그렇게 학산서원터를 뒤로 하고 산 정상으로 향했다. 산 정상에 오르자 상쾌한 산바람이 우리의 기분을 달래 주었다. 상 정상에 오르자 정상에 있는 연경정이라는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다. 연경정에서 우리는 문학산의 중요함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

문학산 정상 연경정에서는 인천시 전체를 볼 수 있었다. 인천의 산들도 모두 보였다. 그대 지도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우리는 약사산, 혹은 만월산이라 불리는 산의 본이름이 주안산이라는 사실과 부평쪽의 주산이 계양산이고 인천의 진산이 소래산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유산이나 그 중요성으로 볼때 문학산이야말로 인천에 주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학산이 인천의 주산이라 불릴수 있는 것은 역사적 흔적이 간직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 소개된 인천향교, 도호부청사, 학산서원터도 중요하지만 문학산성, 백제우물 등이 인천의 오랜 역사를 대신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문학산 정상에는 그 옛날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가 전국한 '미추홀'이란 국가의 도읍지 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어 다른 유적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지금으로부터 2천년전에 비류는 문학산일대를 도읍으로 정하고 문학산 정상에 성을 쌓았는데 이성이 바로 문학산성이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고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세종대왕실록), (인천부읍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백제우물과 문학산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다. 그 자료에 위하면 백제우물은 모두 세 개로 문학산성내에 뚫던 우물이 산 정상에 들어서며 매꾸졌지만 해방이전까지 수량이 꽤 풍부한 우물이었다고 한다. 또 조수간만 이 차에 따라 수량이 달라져 주민들은 늘 이를 신기하게 생각해 왔다고 한다.

이런 설명을 듣고 우리는 사모지고개로 갔다.

이 고개는 상당히 많은 전설을 가지고 있어 이름도 여럿이었다. 먼저 '삼해주현' 이 이름은 사모지 고개 정상부근에 술나오는 바위가 있어 유래된 이름이다. 그리고 '삼호현' 옛날 중국으로 가던 사신들이 서울을 출발, 부평의 별리현을 넘고 또 이 삼호현을 넘어 능허대(지금의 송도)로 나가 그 곳 한나루에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배웅하러 따라온 가족들은 별리현에서 이별하고 사신들은 삼호현에 이르면 멀리 별리현에서 그때까지도 서 있는 가족들에게 '잘있으라' 는 소리를 크게 세 번 외치고 고개를 넘었다하여 삼호현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밖에도 '사모현', '사모젯고개' 라 불리기도 했다 한다.

사모지 고개 주위에는 전설이 깃든 기암들이 있다. 산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면 좌측에 '술나오는 바위' 라 하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를 보통 '중바위', '술독' 이라 불이운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옛날 이 바위구멍엔 술이 가득 차 있었는데 석잔 이상 마시면 안된다는 얘기가 전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고개를 넘던 중이 갈증을 못참고 한잔을 더 마셨더니 술이 갑자기 끊어졌다는 것이다.

이 맞은편에는 '갑옷바위' 혹은 '함바위 · 장군바위 · 석함바위' 라 불리우는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설명에 의하면 옛날 어느 장수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바위 밑에 숨겨두었는데 어떤이가 갑옷과 투구를 탐을 내어 바위를 들다 뇌성벽력이 일어 그 바위가 쪼개졌다. 한다. 그곳에 같이 온 선생님은 바위의 크기가 배치로 보아 고인들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한다.

사모지 고개 별것아닌 고개 같고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이런 바위들에 그렇게 많은 전설이 있음에 우리는 다시금 놀랐다. 그렇게 사모지 고개를 지나 우리는 1700년대 이곳을 다스리던 황씨의 '청백선정비' 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어른 4~5인이 팔을 둘러야 할 정도의 큰바위에 쓰여진 글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는 청백선정비를 지나 청학사로 향했다. 청학사는 지은지 얼마 안되는 사찰이다. 하지만 앞으로 몇 백년이 지난다면 이곳 역시 문학산의 문화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청학사를 나와 패총으로 향했다. '패총' 조개무지로 옛 선사시대 고인들께서 먹다버린 조개껍질이 쌓인곳 이런 곳이라면 역사적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을 텐데 무슨 연유

인지 패총 주위에는 양봉장과 개사육장이 있을 뿐 아무런 보호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홍보 역시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찾아낸 역사 학자분들이 아니면 찾기 힘들 것이다. 패총을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코스인 백제우물을 가보았지만 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무허가 건물로 보이는 판자촌(공장)안에 깊게 파인 웅덩이가 백제우물이라니... 그 장소가 협소하여 20명도 그 안에 들어 설 수가 없었다. 그런 실망감 속에서도 선생님의 설명은 시작되었다.

백제우물은 2천년전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가 문학산일대에 산성을 쌓고 이곳에 '미추홀'을 건국하면서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산 정상부근, 중턱, 그리고 산아래 부근에 판던 우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세군데 우물 중 문학산성안에 있던 우물은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묻혀버렸고 산중턱에 있던 우물도 유실되어 현재는 산아래 부근에 우물터만 남아 있는데 이곳마저 지난 93년경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향토사학자들이 노력으로 겨우 우물터의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한다.

지표조사 및 발굴작업 결과 이곳 우물터에서 석기시대 유물인 빗살무늬토기, 연질토기, 그물추 등과 삼국 고려 조선시대 도자기 파편들이 두루 발견 되었다고 한다.

이 샘은 비류유물이라 불리는 것이 사리에 맞으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역주민들은 백제우물이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백제우물터 답사를 끝으로 3월 첫 문화답사를 마쳤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이후 한 번 더 문학산 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처음 답사는 3월 두 번째 답사는 5월에 이루어 졌다. 3월과 5월 두달이란 시간은 지났지만 문학산의 문화유산은 더 나아진점이 없었다. 오히려 백제우물터 같은 경우에는 잡초와 쓰레기더미에 의해 더욱 훼손되고 있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몇 몇의 문화유산은 훼손된 곳을 보수하고 보전하고 있다고 하니 다소 안심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보수한다고 해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언젠가 소실될지도 모른다.

문학산은 인천의 주산이라 불릴만큼 많은 역사적 사연을 간직한 산이다. 더 이상 개발이란 미명하에 우리의 문학산을 훼손 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현재 송도신도시 개발이라며 산을 깎고 또 터널을 뚫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잠시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문화적 역사적 유산이 그렇게 훼손된다면 차라리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 했으면 한다.

학의 양 날개를 꺾고 학의 가슴을 뚫는 그런 행동이 우리의 어른들이 행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본 이 문화유산을 우리의 후손에게도 물려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끝으로 문화유산의 해라고 올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문화유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 수백, 수천년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문학산 답사기행

인천여고 2학년

김 설 희

나에게는 문학산 답사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 두 번 다 거의 같은 장소를 답사하기 했지만 각각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는 유적지 답사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문학산 일대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나는 첫 번째 답사를 중심으로 이번 답사기를 쓰려한다.

아침 일찍 우리는 문학 초등학교에 집합하였다. 원래 계획은 인천도호부 청사에서 일정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사정으로 인해 인천향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인천향교의 장소 및 규모는 자료가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현 위치에 건립된 시기를 조선 태조7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향교에는 대성전과 명륜당 그리고 동제, 서제와 동무 서무 등이 있고 향교 입구에 하마비와 홍살문이 있다. 각 건물들의 역할을 보면 대성전은 문선왕과 맹자를 비롯한 중국 성현들과 우리나라 성현들의 위패가 봉인되어 있는 곳이며, 명륜당은 교육생들의 강당 역할을 했다고한다. 또 부속건물로 기숙사인 동·서양제와 관리인 숙소인 수복정 등이 있다.

이 날 우리가 향교를 찾은 주된 이유는 문묘 석전대제(문선왕 등 5명의 중국 성현과 최치원, 정몽주 등 우리나라 유학의 대표적 성현 18명에 대한 제사로 조상숭배와 함께 유교적 신분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구한말 신학문 유입으로 점차 쇠퇴의 길을 걸어 교육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제사의 기능만을 담당해 오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향교앞을 지날 때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말에서 내려 걸어갈 정도로 신성한 곳이었다고 한다. 이런 신성한 곳에서 문묘 석전대제가 봉행되는 동안 몇몇 학생들의 소란스러운 모습이 좀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이런 전통의식을 볼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열심히 지켜보았다. 문묘 석전대제를 끝난 후 우리는 처음 집결지인 인천도호부 청사로 이동하였다.

인천도호부 청사는 문학초등학교 내에 남아 있는데 당시 지방행정 관청으로 지금의 인천시청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건립 당시는 규모가 상당히 큰 지방 관청(모두 16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청사내에는 인공 연못과 정자가 있다)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동헌 일부와 객사 일부 그리고 월전 후에 지은 것으로 보여지는 창고가 남아 있을 뿐이다. 또 동헌도 문학초등학교를 지을 때 현재의 자리로 옮겨 새로 지은 것이라 한다. 이러한 인천도

호부청사는 곧 복원할 계획이 있다는데 복원보다도 보존이 더 시급한 것 같다. 창과 문의 창호지는 다 뚫려 있고, 안에는 먼지가 뿌얹게 쌓여 심지어는 쥐까지 다니고 있는데 복원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좀 더 관심을 갖었으면 한다.

인천도호부 청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우리들은 학산서원이 있었다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학산서원'이라는 이름에 괜히 기대를 했던 나는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단지 어느 집 담장 옆에 '학산서원터'라고 쓰여진 초라한 비석 하나가 서 있어 과거에 서원이 있었던 자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을 뿐인데 이 비석도 얼마 전 인천시에서 세운 것이라고 한다.

'학산서원은 각종 전문서적을 구비한 지방도서관 역할까지 수행한 사액서원이었다는데...'

실망감을 뒤로한 채 우리는 또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가던 중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넓은 평지 아니 평지라기 보다는 밭이었다. 설명하시는 분에 의하면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기와쪽 등이 흩어져 있어 학산서원터라는 것을 알려주었으나 얼마 전 밭으로 만들면서 지금은 거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얼마 후면 그 주변에 문학터널 공사를 할 예정이어서 서원터도 사라질 운명이란다. 하지만 정말 기와쪽 같은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파편을 주웠다. 나도 하나 주웠지만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왔다. 그런 물건을 보

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던 인천시립박물관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였다.

또 다시 산을 오르던 중 내리막 길이 나타났다. 그 곳이 바로 사모지 고개라는 곳이었다.

"잘 다녀오세요. 건강히 다녀오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떠나는 사람에게 세 번 외쳤다고 해서 '삼호현' 또는 '사모지 고개'라고 부르는 이 곳을 문학과 송도 해안가를 연결하던 중요한 고개길로 이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사신들도 이 고개를 넘어 능허대 한나루에서 배를 탔다고 한다.

사모지 고개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술바위'를 볼 수 있었지만 길을 만드느라 지반이 낮아져 잘 보이지는 않았다. 그저 바위에 뚫려있는 수박만한 구멍이 나있다고 하는데 이 바위구멍엔 술이 가득 차 있는데 석잔이상 마시면 안된다는 얘기가 전한다. 그런데 지나가던 중이 갈증을 참지 못하고 석잔을 넘게 마셨더니 그 후로 술이 끊졌다고 한다. 우리는 발길을 옮겨 사모지 고개 옆 갑옷바위로 향했다. 그 바위는 옛날에 한 장수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바위속에 감추고 다른 바

위로 그 위를 덮어 놓았는데 누군가 그것을 꺼내기 위해 바위를 움직이려는 순간 청천병력으로 인해 위에 있는 바위가 두 동강나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갈라진 바위 등

을 누군가가 시멘트로 메구어 놓아 미관상 좋지도 않았고, 마음이 좀 찝찝했다.

내리막 길에 대한 기쁨도 잠시 도 다기 오르막 길이 나타났다. 비록 나무로 된 계단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역시 힘든 길이었다.

드디어 산 정상!

‘연경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연경정은 내 짧은 소견으로 보건데 연꽃무늬가 화려한 것으로 보아(전에 어느 신문 문화란에서 읽은 것으로 조선 후기 불교 억압 정책에 대항하여 무늬들이 더욱 화려해 졌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 같다. 연경정에 올라서서 인천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모습을 보니 황홀한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것이 내 발아래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날 들뜨게 했다.

황홀하고 들뜬 기분을 느끼는 것도 잠시, 우리는 하산 길에 올랐다. 산중턱 ‘어느 공터’에서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답사에 대해… 학산서원터에서 찾은 기와쪽을 보며 흐뭇해하는 친구도 있었고, 힘이 들다며 업살을 부리는 친구도 있었다.

점심식사 후 우리는 그 근처에 있는 청학사에 도착했다. 해석도 할 줄 모르는 최초의 인천지도를 받아 들고 우린 불상에 대한 설명(미륵불의 손 모양, 앉은 자세 등에 대해)을 들었다. 청학사는 비록 문화유적은 아니지만 보존만 잘 한다면, 후에는 불국사 같은 문화유적이 될 것이라 믿는다.

청학사에서 나와 시멘트로 포장된 넓다란 길을 걸어 도착한 곳이 패총, 이번 답사에서 가장 실망이 컸던 곳이다.

‘야! 우리 인천에도 패총이 있다니 …….’ 하는 기대에 부풀어 간 곳은 어느 농가의 구석.

‘패총’이라는 팻말 하나, 표시 하나도 없는 곳으로 정말 이런 곳에 패총이 있다는 것을 땅주인 조차도 모를 것 같은 곳이었다. 밭과 산이 연결되는 부분 한 구석에 조개들이 묻혀 있을 뿐이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조차 힘든 곳 이었다.

실망할 겨를도 없이 짧은 설명을 듣고 다시 걸기 시작했다.

드디어 일정의 마지막 장소인 백제우물터!

이 곳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백제’라는 수식어가 붙은 문화유적이다. 동명성왕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국을 세우고 도읍을 건설하면서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우물로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수량이 풍부하여 인근에서 물을 끌어다 쓴다

고 한다. 또, 인근에서 패총도 발견되어 백제우물터 일대기 미추홀 건국의 발상지 뿐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선조들이 거주했던 장소임을 밝혀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백제우물터를 보면 비류의 미추홀 건국은 커녕 버려진 땅 처럼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 있고, 입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다. 아무리 옛 유물들이 많이 나와 역사 교육

에 좋은 자료가 된다 해고 보존이 되지 않아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시라도 빨리 복원 및 보존에 힘썼으면 한다.

이번 답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첫째로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 있는 문화재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지금이라도 이만큼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겠다.

둘째로는 '문화재보호', '문화유산의 해' 라고 지정만 해 놓았지 다른 해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계획만 세워놓았다 뿐이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실천했는가?

마지막으로 올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나 자신부터라고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해야겠다. 문화유산의 보호는 해를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문화유산의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았으면 한다.

봉사활동을 마치며 ...

인천여고 2학년

김 설 희

문화유산 봉사활동 !!!

교육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생소하던 이 말이 지금은 내 고등학교 생활중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이 되었다. 이제 여기에 그동안의 나의 봉사활동을 정리해보려 한다.

봉사활동은 3월 기초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첫째주에 받은 기초교육은 막연한 시작때우기식 봉사활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해준 교육으로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도 한다면 봉사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것 같다. 또한 시립박물관 견학은 그냥 견학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가며 한 것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봉사활동에 좋은 기초지식이 되어주었다. 둘째주에는 이형석박사님께서는 문화재 전문교육을, 차부희 선생님께서 은울탈춤을 배워 우리문화와 더욱 친근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 분반모임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다음 날 있을 문화유적 답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는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드디어 문화유적 답사를 하는 날 귀에 익고, 눈에 익은 곳이었지만 문학산에 이렇게 많은 문화유적이 있는 줄은 몰랐었다. 답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문화재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었다. 그나마 많이 알려져 있는 향교와 인천도호부청사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학산서원 터나 패총, 백제우물터는 관심은 커녕 방치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 봉사반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다.

넷째주는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으로 문학산 답사에 대한 것들을 자신들이 찍은 사진도 보고, 전에 나누어준 자료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서형식으로 작성하여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도 갖었다. 교육이 주내용이었던 3월과는 다르게 4월 부터는 거의 모든 것이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4월에는 베드로 이승훈 선생의 묘소에서 답사 및 헌다식에 참여하였다. 남동 정수장 뒷편에 있는 초곡산, 이곳에는 이승훈 선생의 묘 뿐만 아니라 4대에 걸친 5명의 순교자들의 묘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그 형세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허술해 보였다. 유교를 국교로 하던 시대에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영세를 받고,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선교활동을 하다 순교하신 이승훈 선생의 묘소, 지금은 비록 가묘만 남아 있지만 4대에 걸친 5명의 순교자들의 묘가 한 자리에, 그것도 인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랑거리가 아닐수 없다. 이런 자랑거리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존한다면 더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5월에는 은율탈춤 전수관이 있는 수봉공원이 우리의 활동장소였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은율탈춤 공연장 주변의 쓰레기 처리와 공연 무대정리였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쓰레기만 모아와 버리는 것 같이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커다란 쓰레기 봉투도 금새 채워졌다. 또 공연을 하기 위한 곳은 무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우리의 임무가 끝날 때 즈음에는 그래도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힘이 든 것도 잊은채 은율탈춤에 빠져들어 갔다. 제1과장 사자춤에서 제6과장 미알할미, 영감춤까지 전과장을 모두 지켜본 후 우리의 두 번째 임무, 공연 후 뒷정리를 끝으로 이 날의 봉사활동을 마무리를 지었다.

6월은 문화재보호사회전문봉사반 2기가 돌아온 후 처음으로 실시한 활동으로 우리가 했던 활동중 가장 뜻깊은 활동을 했던 때로 소래포대지에서의 활동이었다.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대구산-(옛날에 대포를 '대구'라 불렀다하여 포대가 설치되어 있던 이산을 '대구산'이라 부른다.) 외세의 침입을 막기위해 이 곳에 포대를 설치하였는데,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갯벌을 메우느라 산을 깎으면서 포대가 없어졌다고 한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곳으로 정확한 위치조차 알 수 없었기때문에 우리는 조를 나누어 그 곳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을 찾아 나섰다. 두조 중 한 조만이 성공을 하긴 했지만 소래포대의 위치와 없어지게 된 배경 등 많은 것을 알아내어 사라진 역사의 일부분을 찾아낸 뜻 깊은 일을 하게 되었기에 긍지를 느낀다.

7월의 답사장소는 인천국제 공항이 설립중인 영종도였다.

아침 일찍 월미도 선착장에 모여 배를 타고 영종도에 도착,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과 합류하여 답사를 시작했다. 그곳에 마련되어 있던 차량으로 움직이면서 선사시대의 무기 제작소를 비롯하여 영종진성터, 왕자무덤, 백제성터 등 영종도의 이곳저곳을 답사하였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답사가 아닌 '탐사'를 했던 왕자무덤이었다. 왕산-왕자무덤이 있다하여 '왕산'이라 불리는 중턱에 위치한 이곳은 올라가는 길이 끊겨 길을 만들어 가며 올라갔던, 고생한 것에 비해 만족감을 주지 못했던 곳으로 다른 답사장소와 같이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 그리고 이날의 일정 중 나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한 것이 있다면 용궁사와 '용궁사 느티나무'일 것이다. 키 높이 자란 나무들 사이의 길을 따라 올라간 용궁사는 그 날 우리가 갔던 곳들 중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텅텅을 맞고 있는 느티나무와 주변에 널려 있는 쓰레기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이 날 우리의 활동은 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 의도와는 달리 끌려 다니는 것같은 적극성을 띄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을 해야할 활동이기도 했다.

8월의 봉사활동은 인천종합문화예술화관에서 열린 '세계문화유산 사진전'의 진행보조였다. 7월 28일부터 열린 이 사진전에서 우리는 팸플렛과 홍보전단을 배포하면서 관람안내를 하였다. 이 활동을 하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우리나라의 불국사와 석굴암, 종묘, 팔만대장경판전 등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문화유산을 사진으로나마 간략한 설명과 함께 볼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주최측의 무관심이었다. 관심을 갖는 것 이라고는 폐장시간이 되면 당일 관람인원수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다. 너무나 형식적인 관심이 아닌지... 이런 주최측의 무관심에도 많은 관람객을 바라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질 않는다. 비록 다른때 보다 편하게 한 활동이기는 했지만, 더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느낄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9월에는 월미도 문화의거리에서 활동을 하였다.

이 날 우리가 한 일은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의 진행 보조와 문화의 거리 환경정화 활동이었다. 황해도 평산소놀음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로 신청올림으로 시작하여 상산맞이 굿, 칠성굿, 소놀음굿, 터주거리 등으로 연회가 진행되며 마당굿을 끝으로 연회가 끝나는데, 평산지방 경사와 풍년, 장사의 번창, 자손의 반영을 비는 굿이라 한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장수거리에서 모든 잡귀들을 쫓는다는 뜻에서 쌍작두를 타고 그네뛰기를 벌이는 장면으로 보는 것 만으로도 아찔했다.

두 번째 임무인 문화의 거리 정화 활동, 처음 시작할때는 '이 넓고 긴 길을 언제 다 하냐' 하는 생각이었지만 우리가 지나간 곳이 깨끗해 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봉사하는 우리는 땀 좀 흘리고, 힘이 들겠지만 이런 활동을 정기적으로 했으면 한다. 우리의 손이 닿은 곳은 조금이나마 깨끗해지니 말이다.

올 한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3번째 가보는 문학산, 바로 이곳이 10월의 활동장소였다. 지난 두 번의 답사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답사를 시도했는데, 다른 분들의 도움없이 우리들 스스로 답사를 하는 것이었다. 학교에서의 향토연구반 활동으로 문학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봉사반 3기 친구들의 설명을 들으며 한 것으로 1·2기 친구들과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은 서로 의견을 나누었던 이번 활동은 우리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점에서 뜻깊은 봉사활동이 아니었나 한다. 활동 방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처음 답사 때와 같았다. 문화유적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다는 점 까지도.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장 실망했던 곳 역시 백제 우물터였는데, 3월에는 그나마 형태라도 알아볼 수 있었던 곳이 이번에는 여름 내 자란 잡초와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이 더욱 실망이 컸다. 문화유적을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에 대해 실망이 크긴 했지만 문화유적이 많지 않은 인천이기에 우리의 활동은 더욱 보람있는 일 이었다.

올 해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봉사활동에 대한 나의 막연한 생각도 개선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인천의 문화유적을 찾아다니면서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적에 대한 나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어 갔다. 많이 알려져 있는 문화재도 우리 역사의 일부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재 또한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일수록 더욱더 보존과 홍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다. 문화재는 오래되었다고 다 문화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관심을 갖고 보호하느냐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느냐, 그냥 오래된 것으로 아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보호는 중요하며 또 필요하다. 내년에도 '문화재보호 사회전문봉사반'이 계속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계속 남아 있었으면 한다.

얼마 전, 문화체육부에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휘장을 확정하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좀 더 많이 알고, 아는 것을 가르쳐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문화재보호 사회전문봉사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게될 많은 청소년들이 시간때우기식 봉사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참다운 의미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다.

호남 사람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

광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양 수 현

역사공부를 하면서 봉사 점수까지 정말 일석 이조였다.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우리를 지도해 줄 언니의 설명을 듣고는 호기심이 났다. 친구의 소개로 이런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호남 사립문화탐에 들어가서 지운 언니, 석원 오빠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들어간 이 곳은 조선 시대 사림인들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 역사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곳이었다.

처음으로 가게 된 곳은 많은 정자가 있는 담양이었다. 식영정, 환벽당, 취가정, 소쇄원 등이 있는 곳이다. 이 곳은 내가 중학교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가고 싶었던 곳이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게 부끄럽다. 식영정은 '그림자가 쉬어가는 곳'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 번 봉사활동 후에 '우리 문화 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었다.

식영정에서 보는 자연은 너무 멋졌다. 멋진 소나무가 옆쪽에 따뜻한 햇살이 정자 뒤쪽에서 정자 앞쪽에는 물 등등. 그 곳에 살았던 사람은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았을 것만 같았다. 우리가 갔을 때는 날씨가 추워서 나무 그늘이 싫었지만 여름에는 시원할 것만 같았다.

날씨가 쌀쌀해 떨어서 환벽당으로 향했다. 환벽당 역시 조금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내가 큰 키는 아니었지만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문을 지나 돌계단으로 올라가면 팔각지붕을 하고 있는 환벽당을 볼 수 있었다. 환벽

당의 설명이 적힌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아주 형식적인 것만 적어놓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 환벽당을 둘러 보고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가운 마루, 나무의 그늘은 날 좋게 만들었고 환벽당 방안에 누군가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없고 녹이 쓴 열쇠로 채워져 있는 방이 환벽당을 좋게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느 한 쪽에서 따뜻한 햇살이 정자를 비추고 있었다.

환벽당이 있는 곳에서 위쪽으로 길을 따라 가면 식영정, 환벽당보다 더 많이 손상된 취가정이 있다. 취가정은 최근에 다시 지은 것처럼 마루는 빨간 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고 지붕은 벽돌로 수리하고 옛날 정자라기 보다 요즘에 만든 건물 같았다. 우리 문화 유산을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훼손시키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안타깝지만 할 뿐이었다. 그래서 인지 이 곳은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취가정은 놀고 쉬는 곳이라 우리들은 이 곳에서 쉬고 간식도 먹었다.

쉬고 나서 우리는 담양 정자들 중 최고로 꼽히는 소쇄원으로 향했다.

소쇄원은 다른 세 정자들과 조금 떨어져 있었다. 소쇄원 입구 앞쪽에는 소쇄원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었다. 오늘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 같았다.

소쇄원 가는 길에는 담양에서 유명한 대나무들이 서 있다. 여름에 오면 시원함을 줄 것 같고 겨울에 오면 대나무 위에 쌓일 눈들의 모습이 소쇄원을 향한 사람들의 기분을 한층 즐겁게 할 것 같았다. 소쇄원은 조금 전에 본 정자들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양산보가 지었다고 하고 다른 정자들과 달리 양산보의 후손이 15대째 이어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양산보가 유언으로 절대 다른 이에게 팔지 말고 이어갈 것을 얘기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다른 정자들은 지금 누구의 소유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후손이 지내는 곳 이외에 두사람 정도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림이 거꾸로 된 것이 있었다. 이 정자 앞을 보면 지금은 많은 양이 아니지만 그 당시 많은 물이 흐르고 고이고 폭포처럼 떨어질 개울이 있었다.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었다. 옛날 이 곳에서 지냈을 양산보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활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멋진 건 축가였을 것 같았다. 충분한 자연의 혜택속에서 자연과 함께 조용히 살아간 것이 그에게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건축가라고 생각한 것은 자연과 조화롭게 건물을 지은 것 때문이다. 후손이 지내는 곳을 나오려면은 문을 통해야 하는데 문이 굉장히 낮았다. 언니말로는 과거에는 귀신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해주었다.(왜냐하면 귀신들은 허리를 굽히지 못하므로)

이런 부러움을 가지고 소쇄원을 나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내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문화유산도 보고 재미있는 얘기도 듣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맛보고 말이다.

이런 문화유산들이 계속 잘 보존되어서 후손들에게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손길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으면 한다.

2. 자원봉사지도자편

봉사활동을 마치면서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지도자

전 중 호

작년과 올해에 걸쳐 청소년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점을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처음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관한 기본 소양교육을 센터에서 마치고 터전에서 만나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선 약 30분간에 걸쳐 정신교육과 안정교육을 실시하였다.

봉사활동이란?

“자발적인 이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수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 시키고 난 후 활동에 들어갔다.

자원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채 친구가 자원봉사하러 간다고 하니깐 따라 온 친구들, 학점을 더 준다고 하니깐 참석한 친구들,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참석한 친구들 등 다양한 학생들이 참석을 하였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모른채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봉사하려는 친구들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참여 하였다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그래서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남을 도와 준다는 생각의 봉사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기자신의 존재와 의무, 자기존중 그리고 자기자신의 주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심, 미지의 일을 함으로써 얻는 자신감과 성공감, 공동체로서의 책임감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면서 활동에 들어갔다.

터전에서의 활동은 일거리가 단순작업에 한하여 봉사할 수 있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봉사활동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흐뭇했다. 또래들끼리 모여서 잡초도 뽑고, 휴지도 줍고, 정자각 내부 청소도 하고 맑은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봉사활동을 마치면서 그룹별로 간담회를 가져 보았다.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 하기전의 마음자세와 종사한후의 마음자세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들을 발견하고, 자신들도 놀라워 했다고 한다.

여럿이 모여서 봉사하니깐 좋다고 하는 의견, 일거리가 단순 작업이니깐 재미없다는 의견, 너무 힘들다는 의견 등 각양 각색의 의견들이 돌출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이 그저 마지 못해 신청하여 적당히 시간을 채워 보려고 하였는데 터전에서 소양교육을 듣고나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그중에 어떤 학생들은 앞으로 계속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 장차 커서 자원봉사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남을 위해서 봉사 했다는 뿌듯함, 또한 땀의 고마움을 느꼈다고 한다.

땀을 흘리면서 일한 보람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면 피부로 느낀 감정의 모습들이 남달라 보였다.

행동하는 모습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한층 더 성숙한 모습들이 제법 어른 티가 났다.

또한 청소년들의 고민들 진학문제, 친구문제, 성적문제 등을 화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면서 봉사활동의 하루를 아쉬움속에 마무리를 지었다.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재미있게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고 하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서로 아쉬워 하였다.

끝으로 청소년들에게 몇가지 당부 하고자 한다.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봉사의 참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

1. 봉사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자.

자원봉사란 말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행동양식이다. 배타적인 것이 아닌 이타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2. 시간약속을 잘 지키자.

한두사람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는 불편을 준다면 봉사자의 행동으로서 취할 것이 못된다. 약속은 지키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로의 신뢰요, 믿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만큼은 정확히 지킬 줄 알아야 하겠다.

3. 활동터전에서 성심성의껏 봉사하자.

친구들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데 주변에는 논다든가 장난치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

4. 봉사후의 마무리를 잘하자.

터전에서 쓰던 연장이나 도구들은 제자리에 갖다놓고 주변 정리를 깨끗이 정리해줘야 되겠다. 그리하여 깔끔한 인상과 좋은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5. 반드시 소감문을 쓰는 습관을 갖자.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터전에서의 활동사항과 보고 느낀 점, 반성 등을 글로 남김으로써 자신의 좋은 관점을 남길 줄 알아야 되겠다.

6. 봉사를 즐겁게 하자.

타성에 의한 봉사가 아니라 이성에 의한 봉사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여야, 하는 일들이 재미있고 애착을 갖고서 봉사할 줄로 안다.

이상과 같은 마음을 갖고 행동에 취한다면 함께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가 되고 우리의 지역사회가 진정한 인간공동체로 더불어 사는 사회, 살맛나는 사회가 될줄로 안다.

끝으로 같이 고생하고 봉사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21세기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기자리를 지킬줄 알고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이 나라의 주인들이 되길 바라면서……

아울러 같이 자원봉사지도자 선생으로 봉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봉사활동 지도 소감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지도자 (미성중 교사)

이 하 중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조치로 학교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제도화되었다. 나는 30여 년 간 보이스카우트, 청소년 적십자, 도덕재무장, 한국 청소년 연맹등 청소년 단체에서의 특별활동 부서에 자원봉사반을 조직하고 지도교사직을 맡았다.

일선 학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교육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며 시간 채우기, 점수 따기 식이라는 말이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마음 때문이었다.

처음 지원학생은 69명 이었다. 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문화유산 봉사활동으로 정하였다.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소중하게 보존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였다. 활동장소는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유적지인 한우물을 보호정화 활동장으로 결정하였다.

자원봉사반원 학생들에게 2·3차 시간을 보내면서 문화유산의 해 설정취지 문화유적지의 역사 내력 자원봉사반의 조직동기 활동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 정화보호 현장활동은 월 2회씩 연간 15회 레크레이션 게임 응급처치법 독도법 음식만들어 먹기 등 세부활동 계획을 학생들과 같이 세웠다. 드디어 경북에서의 문화유산의 해 발대식을 기점으로 활동은 계획대로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69명이 2시간여 사제동행 등산하여 한우물에 도착하여 문화재 보호정화 활동 전개 이렇게 계속하다보니 문화재 주변은 깨끗하게 변하였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로 학생들이 걷기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활동 장소까지 산길로 2시간, 8km를 걷는 것을 힘들어 한다. 나중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버스를 2정거장 타고 올라갔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봉사활동보다는 봉사확인증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다. 봉사확인증을 받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

세 번째로 방과후 활동의 어려움이 따랐다. 학생들의 과외 학원 시간에 맞추다보니 시간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존재를 하였다.

네 번째로 사제동행의 운영이지만 사고의 위험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향후에는 극복하여 좀더 질 높은 봉사활동, 진정한 체험학습과 봉사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선학교의 전문지도자(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교사들이 부담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한다.

서오능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지도자

최 희 은

민족의 얼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자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문화재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각 고궁에서의 봉사활동이 12월13일로 마무리 되었다.

그 동안 고궁에서의 봉사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국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연계 하에 각 고궁으로 배치된 자원봉사지도자의 책임하에 봉사활동을 하였고 나에게는 서오능으로 배정되었다. 서오능 자원봉사를 마치며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지도자에게 더욱 불람되고 알찬 자원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활동을 돌이켜 본다.

우선 서오능에서의 활동거리로는 첫째 주변환경의 활동 정화이다. 룡주변이나 매점 매표소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일 이었다. 둘째 각 능 주변 잡풀제거활동이다. 반장님께서 시범을 보이고 도구를 주었는데 잡초와 잔디를 구별 못해 뽑아 놓거나 구멍이 나도록 해서 다시 메우기도 했다. 웬만한 비는 맞으면서도 하고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풀뽑기에 열심들이었다. 셋째 방화선작업이다. 가을이 되면서 나뭇가지도 치고 낙엽나르는 천막 등 활동을 도와줄 장비가 마련되어 있어 한결 수월했다. 나뭇가지 치고 나르는 일은 거의 남학생들 차지였다. 낙엽 치우기를 열심히 한 학생은 허리가 아플 정도로 일의 양이 많았다. 덜 할 수 도 있지만 3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었다. 쉬엄쉬엄 조심해서 하였다. 넷째 각 능을 돌아보면 능에 대해 알고 가기이다. 쓰레기를 주우러 다닐 때는 그것이 가능했으나 낙엽 치우거나 잡초를 뽑을 때는 활동한 능밖에 몰라서 인쇄물을 이용하여 조별로 보도록 하였다. 다섯째 활동기록서 쓰기이다. 30분정도 일찍 끝내고 기록서를 받으면서 확인증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필기도구를 안 가져오거나 작업이 힘들어서 몇 명만 받았다. 반장을 통해 우편으로 보내오길 바랬지만 잊은 듯 했다. 또 한가지 매주 반별로 돌아가며 한 번씩 활동하고 쓴다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95년 7월 중학교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되면서 함께한 시간들 잊을 수 없는 것은 신청 6동 청소년봉사대 활동이다. 지금은 그때의 교육과 활동을 추억하며 각자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2차례의 복지관의 교육속에 더욱 열심히 하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서오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몸과 마음이 따로인 학생들을 데리고 인솔하기 바빴다고 해야할지...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도 눈에 띄었지만...

특히 고 3여학생들은 봉사활동을 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시간 해도 3시간 쳐준다 고 선생님께서 그러셨다며 뽑아 놓은 잡초를 그대로 둔채 1시간 됐어 갈사람!하며 말할 때 나의 자원봉사에 대한 보람은 눈 녹듯 사라져 돌아오는 버스속에서 눈물지은 적도 있다. 몹시 아파 시어머님께 꾸중들으며 온 지라 더욱 그랬다.

손을 놓고 있는 학생들을 다독여 가며 또 칭찬도 하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결국엔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 함께 열심히 하며 아이들을 웃기기도 하였다.

“봉사기관이 부족하고 성적에 포함됨에 따라 학부모 학생들이 점수 확보에 급급해 파행적으로 흐르는데다 실질적인 교사의 지도가 불가능한 상태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관계자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어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라 기대하며 준비했던 기관들이 더 많았는데...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까지 흐려져 대충 15시간 채우지로 바뀐 것은 아닌지 싶다.

사무장님에게 그동안의 학생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소감을 여쭙니 “학생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저희 능원의 관리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이 활동이 학업성적의 반영으로 타율적인 경향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오는 봉사활동시에는 통제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 말씀해 주셨다. 소장님께서도 은근히 문화유산의 해가 지나도 계속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셨다.

그러나 나의 의견은 다르다. 학교와 서오능을 직접 연계시켜 반장님의 지휘감독아래 작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매주 참석자를 확인오르 학교측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각에 꼭 모일 수 있게하면 그뒤의 일은 서오능에서 작업지시 및 확인 절차도 해야 일의 분담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도자는 원활히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만 하면 될 것이며 새로운 봉사활동거리를 찾는 일에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 활동에 대한 소감문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지도자 (동부화재)

이 원 상

먼저 쑥스러움을 감출길 없다. 다른 이를 위해 손을 빌려주는 일이란 것이 꼭 “봉사”라는 말로 포장되어 버림도 씁쓸하고, 더욱이 이웃과 나 아닌 다른이 까지 “한울이”로 부르며 살아온 우리들이다. “나”, “너” 보다도 “우리”라는 말이 먼저 나옴도 그에 기인한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전에 살아온 그때의 “우리”보다 훨씬 미가치의 단어가 되어 버려, 썩 마음이 편치 못한 시대속에서 봉사 그것도 “자원봉사”를 “지도” 한다는 것이 쑥스럽기에 당연하다 하겠다.

많은 선배, 선생님들께서 그러하셨듯이 좀더 나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자리에 미력하나마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향수를 찾는 듯 싶어 기회를 준 이와 터를 허락한 이 모두에게 감사함을 새삼 전한다. 더불어 지내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해 정진해 나아가는 학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음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작은 부분에서도 여러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함을 느꼈고, 비록 어른들의 불성실과 무관심에 접혀 버린 많은 부분들이 내일의 주인인 우리 어린 학생들 손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고, 알려지고, 지켜지고, 또 보존되는 일이 이제 시작이라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무척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하여져온 실수나 오류가 앞으로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간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학생에게 시키고 가르치는 일로만 권위적 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마음과 자세로 우리학생들과 서로의 노력으로 조금더 나은 환경, 조금더 나은 문화, 조금더 정확한 계승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길목의 이정표임을 자신한다. 이렇게 크나큰 비전을 안고 게다가 학생들과 함께 봉사에 참여하는 지도자로서 뿌듯함과 큰 보람이 함께 하여 정년코 “우리”다운 “우리”의 내일이 기다려 진다.

아울러 더 생활화 되기를 기대하는 많은 “우리”들의 격려와 기도를 기대하며 함께 참여하는 많은 “우리학생”들과 또한 더불어 동참하는 “우리지도자”들에게 한껏 힘을 모아 보자고 권하고 싶다.

창덕궁(昌德宮) 자원봉사를 하면서 ...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지도자 (용문고 교사)

김 민 영

1996. 11월에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지도자 연수를 받고 봉사할 날을 기다리던 중 1997년 3월 29일에 경복궁에서 힘찬 출발을 알리는 97청소년문화유산 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구역을 기쁜 마음으로 담당하고 있다.

나는 창덕궁(昌德宮)을 맡게 되었다. 나의 직장과 가장 가깝고 출퇴근시 항상 지나치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고 친근하기 때문이다. 창덕궁에는 토요일 2~5시까지 봉사하게 되었다. 자원봉사지도자가 하는 일은 자원봉사를 하러 온 학생들에게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봉사지역을 할당하고 봉사방법을 설명하고 장비를 지급한 후 작업상태를 확인·감독하고 작업이 끝나면 집합하여 소감문을 쓰게 한 후 봉사확인증을 나눠주고 귀가 지도를 하면 하루 일이 끝나게 된다.

창덕궁 자원봉사는 매우 매력이 있다. 흔히들 비원이라고 하는데 창덕궁 후원이 비원이지 창덕궁 전체를 비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주위 환경이 너무나 아름답다. 도심속에서 보기 힘든 우거진 수풀, 아름드리 나무, 웅장한 궁궐, 아기자기한 정자와 기와집들, 어느곳 하나 잘못 배치된 곳이 없는 듯하다. 창덕궁은 88,238평으로 비원 61,937평보다 조금 더 넓다. 창덕궁의 건축 연대에 대해서는 구구하며 <역대 총목(歷代總目)>에는 경복궁 건축 연대인 태조 4년(1395)에 별궁으로 지었다고도 하고 태종 4년(1404)에 지었다고도 한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창덕궁이 거의 소실되고 말았다. 광해군은 경복궁을 재건하지 않고 창덕궁을 7년(1615)에 재건 완성하고 여기에 거처 하였다.

창덕궁은 볼만한 곳이 많다. 낙선재, 회정당과 대조전, 부용정과 주합루, 인정전, 선정전, 편전, 집상전, 옥화당, 수정전등 보배와 같은 귀중한 문화유산들이다. 우리 자원봉사 학생들은 이곳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관광코스 쓰레기 줍기 및 배수로 작업도 하고 낙선재의 방청소와 마루청소를 하고 거미줄 제거를 하였다. 봉사활동에서 흘리는 학생들의 땀방울은 매우 고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문화재를 감상하고 전문을 넓히며 문화유산의 귀중함을 깨닫는 좋은 경험은 평생의 추억이자 재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창덕궁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싶다.

“자원봉사학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지도자
이 중 세

사랑하는 학생들아! 세월은 참으로 빠르구나. 선생님이 너희들과 경복궁 근정전에서 청소년문화유산 봉사활동 발대식을 지휘하던 때가 어제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되었구나. 세월이기는 장사 없다더라. 촌음을 아껴서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환절기 체력관리도 자신과의 싸움의 한 과정이란다.

자기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한다. 모두 건강하자꾸나! 너희들의 숨은 노고에 문화재가 더욱 밝고 윤기가 나며, 생동감이 넘치어 많은 어른들로부터 격려가 있었단다. 너희들의 노고에 선생님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구나. 금년은 문화체육부가 지정한 문화유산의 해였단다. 정도 600년이 된 우리의 수도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 못지않게 고색 창연한 역사의 맥이 흐르는 문화유산의 도시란다. 너희들과 함께 서울의 5대 고궁에서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동이 참으로 보람되고 의의가 크며, 문화민족의 위상을 심어주는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되는구나. 그동안 우리의 청소년이 과보호속에서 자라나 나약하고 의지력이 없는 소심한 아이들이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고립된 아이들이라는 일방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단편적인 편견은 이번 봉사활동지도하면서 산산히 무너지고 말았단다. 할 수 있다, 하면된다, 해보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와 솔선수범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다는데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단다. 온 나라가 청소년 문제로 별집썰서 놓은 듯 뉴스의 머리기사로 등장한지도 오래되었고, 청소년문제는 일상생활에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그 폐해와 심각성은 한계를 초월했단다. 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지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하며, 보람을 찾고 더불어 사는 인생을 느끼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협동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너희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 든든하며, 누가 우리의 청소년을 정죄할 수 있을 것인가? 반문한단다. 그러면 그렇지! 사랑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아!

바로 너희들이 있기에 이 선생님은 힘과 용기와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대견스럽단다. 너희들이 뜻뜻한 인간애와 인생의 뚜렷한 목적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개척의 길을 바라보며 무지한 어른들의 행위를 탓하지 않는 너희들의 인내심과 관용에 부끄럽기 한이 없구나. 고궁에서 어른들의 부질서는 이제사라지겠지……

푸르름의 청춘으로 피어오르는 너희들을 바라보며 선생님은 홀로 중얼거린다. 다시 한 번 청소년은 이 나라의 보배요, 기둥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곤 한다.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스며있는 파란만장한 조선의 정궁에서 우리는 만감이 교차되는 역사의 뒤편길을 찾으며 자랑스런 문화민족임을 자부하기도 하였고, 국모(민비)의 시해장소에서는 그날의 통분의 함성이 들리는 듯 숙연하여 눈시울을 적시며 치욕의 역사가 재연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 다짐하기도 하였지!

너희들과 함께 봉사현장에 나가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강년전, 교태전, 자경전, 중화전, 근정전 등에서 마루, 방, 벽청소, 창호지 붙이기 등을 하며 임금과 대소 신료들의 역할도 해보고 특히 향원정 연못에서 부유물과 오물을 건지다가 실족하여 선생님이 물에 빠졌을 때 모두가 와~하며 놀라며 웃음꽃을 피우던 추억, 세종대와 직위식 행사지원, 국립민속박물관 등을 관람하면서 역사와 정기가 어린 우수한 문화유산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곤 했었지!

규정된 봉사시간에 지각한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 나무에 매달리어 매미 울음소리와 개구리처럼 웅크리고 앉아 개굴~개굴~ 울음소리를 내게하여 너희들 모두는 피나 즐거워하며 웃었지!

봉사활동중 소나기가 쏟아져 궁중놀이 게임 재현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애환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구나.

사랑하는 학생들아!

아직도 경복궁을 비롯한 5대궁은 너희들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의 문화재를 길이 보존하고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노력도 하자구나!

문화유산 자원봉사를 하면서 선생님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준 일도 적지 않았단다. 서울의 5대고궁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며 경복궁은 거의 일본인 관광객으로 가득 메우고 있는데, 복장이 불량한 학생(힙합바지, 핫팬츠 복장,

슬리퍼차림 등). 시산개념이 희박한 일부학생들이 봉사활동 분위기를 저해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동료친구가 열심히 봉사활동하는데 한가로이 취식하는 행위, 적당하게 시간만 채우겠다는 학생, 봉사내용에 불평불만하는 학생 등 소수의 이런 학생들로 인하여 선생님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였단다.

또한 이런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별로 반성이 없다는데 실망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하고 격려하고 싶단다. 소수의 몇몇 학생들이기에……. 앞으로는 관광객에게 질서있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자구나.

선진국에서는 자신의 행위로 조직이나 단체에 절대로 피해를 주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교육되어 생활화되었다고 한다.

너희들이 가끔씩 봉사내용이 단조롭다고 이의제기도 하였으나 봉사의 매용, 성격, 범위,

안전, 남녀구별 등 봉사의 제약사항도 여간 만만치 않단다.

우리나라 봉사활동은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하고 보완·개발하여 절적인 봉사, 다양한 봉사내용 발굴 등으로 봉사의 기쁨과 더불어 사는 밝고 맑은 사회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햇불을 높이 들 것이다.

사랑하는 학생들아!

선생님은 너희들을 믿는다. 저희 들의 미래는 이웃과 우리사회를 도울 수 있는 헌신과 봉사정신이 충실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성장에 대한 바람으로 성숙되고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리라 믿는단다. 그동안 문화유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각급 학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보다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질서정연한 협동정신배양과 인간애가 살아있는 밝은 내일의 초석이 될 것이며 다음에 선생님과 만날 때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남에게는 너그러우며 자신에게는 엄격한 청소년이 되어 있겠지? 기대가 크구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지도선생님이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 보낸다. 안녕.

’97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지도를 마치며 ...

부산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북구지역 자원봉사 지도자

김 인 남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정부나 각 기관에서 많은 행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정작 조상의 일을 알고 지켜야 할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은 문화유산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씁쓰레함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 중년의 나이테를 두르고 십년 가까이 우리네 문화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이 진정 올곧은 역사 의식과 민족 의식 속에서 자신을 찾아보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게 된다. 나 역시 그러한 노력 속에서 내 삶을, 그리고 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살지게 할 수 있는가를 배웠기 때문이라. \내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 것은 올해 3월 문화유산봉사활동에 관한 신문보도를 접하고부터였다. 평소 문화유산에 관한 세미나, 답사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활동에 나서기도 했던 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내고장 부산, 그것도 내가 살고 있는 북구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하면서 문화재사랑을 확인한다는 봉사활동내용이 무척 인상깊게 다가왔던 것이다. 한달동안 주말 오후만 되면 외례히 북구지역의 청소년 약 50여명과 함께 문화유적지 답사를 하고, 각자 생각을 나누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벌써 7개월째로 접어든다. 물론 나의 사랑스런 두 아들도 함께 그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아이들 역시 많은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듯 하다.

각급 학교에서 참가한 문화유산봉사활동 봉사자들은 처음에는 봉사활동 자체보다 점수·시간을 중요시하면서 대충 시간을 떼우고 청소만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첫 주에 있는 봉사자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깨우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점점 책임있는 자원봉사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평소 문화재에 대해 스크랩해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학생들과 함께 문화재의 유래와 역사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즐겁게 배우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북구지역은 구포왜성, 만덕사지터등 많은 문화유적이 있어 장소를 바꾸어가며 주변정화활동은 물론, 삼행시짓기, 문화재 주변 지도 그리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구포왜성(구포의성)의 문화재를 탐방하면서 직접 학생들과 함께 그 지역의 유물을 발굴하는 패거리를 올렸다. 그저 산언덕에 있는 옛날 성이려니 생각했던 아이들은 주변에 흩어져 있던 기왓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차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 그기와 파편조각들은 무너로 보아 고려말기부터 조선중기까지의 기와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그 기와조각들을 들고 시립박물관 최정혜연구사를 찾아갔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말이다. 최정혜연구사로부터 특별강의와 함께 기와조각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듣는 가운데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고려시대 때는 어골무늬가 많이 있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파도무늬가 많고 기와를 지붕에 얹는 방법과 압기와, 숫기와 등 전문적인 것에 대해 듣게 된 아이들! 시립박물관에 견학왔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우리가 진지하게 강의듣는 모습과 직접 유물을 발굴했다는 얘기에 뿌러움을 느끼는 듯 했다.

우리가 발굴한 유물들을 고스란히 시립박물관에 기증하고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뿌듯함 그 자체였다.

지도자로서 아이들과 함께 호홉하면서 자원봉사의 틀속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이 되어 몇 개월째 계속 나의 주말을 보내고 있고, 가끔 지난 달에 활동한 아이들이 연락을 해 올때는 남다른 기쁨에 젖기도 한다. 다만, 점수와 시간 때문에 편하고 쉽고 별다른 고생이 없는 활동을 찾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 그래서 주말마다 집근처 문화유적지를 찾아 다니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는 아이들, 그리고 극구 이런 활동을 공부를 이유로 못하게 하는 학부모들의 얘기가 전해질 때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쩌면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바로 내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기에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얻어내어야 할 가치일 것인데....

한달동안 20시간이라는 빠듯한 활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몇몇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북구청에서의 여러 가지 배려로 활동이 더욱 알차게 진행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정부와 학교, 각 단체, 학생자신이 한테 어우러져 진정 문화유산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문화유산 알기, 찾기, 가꾸기는 결국 이러한 우리들의 몸짓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네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이기에.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

대구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경산대 3학년)

박 태 순

1997년 나에게는 벽참과 힘겨움, 설렘, 두려움, 좌절, 재기의 기쁨, 희망이란 이러한 감정동사를 맘껏 누려 본 잊지 못할 한해라고 결론지어도 조금의 과장됨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청소년 지도학과”, 막연히 머리 속에 그려져 있는 지도자의 역할,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한해였기 때문이다.

훌륭한 청소년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무수한 이론들. 그 이론들 속에서 ‘나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꺼야’ 라는 자만과 기대감을 가졌던 나였다.

여기서 갑자기 ‘말이 쉽지’ 라는 평소때 입버릇처럼 하던 어휘가 스쳐 가는 이유는 뭘까? 정말 말이 쉬웠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누가 그랬던가? 용감하게 부딪친 나의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활동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장난이 아님과 생각만큼 행동으로 옮기는 일 또한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한 행사, 한 행사 진행하며 지도하고 돌아서면 그제야 오늘 내가 뭘했는지 뒤돌아 볼 수 있는 그 정도였다. 경험의 부족, 처음부터 잘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일까?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역할이 나에게는 쉽지 않았던 활동 이었던 것 같다.

처음으로 내가 맡은 자원봉사단 학생들은 안심여중 자원봉사단, 문화유산봉사단이였다. 사전 답사없이 대충 알고 문화유적지를 찾아 나섰다가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보게 했었던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경험, 같이 도시락을 먹을 때 나눠 먹었던 경험들 모두가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활동들이었다.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문화탐방활동이 끝나고 나서 같이 롤러스케이트장에 가자고 때 쓰는 학생들을 뒤로하고 개인적인 볼 일을 보러 갔었던 일이 아직 가슴아픈 일로 남아 있다. 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나는 이론에 치중하지 않는 융통성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극복하는 방법도 알게 된 것 같다. 막무가내로 힘든 것처럼 느껴졌고,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들을 챙기고 리더해야 한다는 의무감 또한 나에게는 중압감으로 느껴졌었던 첫 자원봉사 지도자 경험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맞볼 수 있게 해 주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학생들의 열의와 무엇인가 느끼고 배워가려는 학생들의 태도,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엽서 한 장이 나의 좌절과 실망감을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말끔히 씻어 주었

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해주었으며 기쁨과 뿌듯함을 맛보게 해 주었다. 이것이 자원봉사 지도자 활동의 참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처음을 마무리하고 2학기때 새로이 지도하게 된 문화탐방 봉사단 학생들. 다시금 열의와 기쁨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첫 경험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의 깨달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두 번째는 A팀의 조장 지도자로서 처음 경험이 큰 욕심에서 빚어진 좌절이었다면 이번 활동 때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으며, 물 흘러가듯 상황에 대처하면서 주위를 돌아보고, 작으나마 지도자 선생님들을 배려해 줄 수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문화재를 탐방하면서 학생들만 그 문화재를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값진 문화재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 선생님' 하며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겠구나' 하는 책임감도 느끼게 해주었다.

점심을 먹고나서 야외에서 함께 하는 손 야구와 차안에서의 게임과 그들이 즐기는 음악을 접하면서 그들의 순수함을 배우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내가 꼭 중학생이 된 듯한 착각을 가지게 해 주는 그들이 사랑스러웠다.

비록 육체는 잠이 쏟아지고 빠근했지만 정신은 깨끗해지는 것 같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들을 통해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활동에서 많은 것을 봉사하기보다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뿌듯함과 미안함을 가진다.

얼마남지 않은 활동이지만 유종의 미를 맛보고 싶은 욕심을 가지면서 이 글을 마치겠다.

청소년 문화유산 봉사활동 활동지도를 마치고 ...

영진전문대학교

정보통신과 1년

이 미 경

처음 봉사활동을 하러 갈 때는 그냥 학점도 있고 하니, 대충 대충 해야지 하는 마음이 더 컸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한 학기하고 나니 처음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 가짐이 들었다. 중고등학생들도 봉사하는 입장이고 나 또한 학생으로써 봉사하는 입장이니 별 다른 점은 없지만 봉사활동에서는 나는 지도자의 입장이 된다니 책임감도 느껴졌다. 한 조직의 지도자로서 책임감과 의무감도 배웠고, 나 보다 어린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와 그들에게서 배울 점도 있었다.

비록 나 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무슨 일이든지 진지하게 배우고 듣는 태도도 보기 좋았다. 봉사란 그냥 남을 도운다는 의미로 다들 생각할 것이다. 나 또한 그러했으니까. 하지만 청소년자원봉사를 하면서 봉사란 단지 남을 도운다는 의미보다는 나 자신을 배운다는 것과 세상을 배운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고 이미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다.

팔공산에서의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해 주었다. 문화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환경미화도 하면서 나 자신도 몰랐던 대구의 문화재도 조금 알게 되었다. 대구에 20여년을 살아왔어도 이러이러한 문화재가 대구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팔공산에 다니면서도 '이것이 문화재구나' 라고 느꼈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물론 홍보도 미흡했던 점도 있었겠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우리 주위의 문화재는 얼마든지 있다고 느낄 것이다.

문화유산 캠프 때에는 더 많은 학생들과 지도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캠프 1박2일 동안 느낀점도 배운점도 참 많았다. 내가 맡은 학생들도 배로 늘어났고, 책임감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중고생들은 요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으며, 순수한 생각을 가진 어린 학생들이 더 어른스러워 보였던 적도 있었다. 학생들과 지도자들이 어울린 놀이마당 시간엔 더욱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거리감이 생긴 학생들과도 더 많이 어울릴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문화재를 탐방하러 갈 때에는 나도 모르는 문화재들이 우리 지방에 많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더 많이 소개되어서 널리 알려질 것인데, 보존조차 무색해져 가는 문화재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기분이 들었다.

짧은 봉사활동 기간이었지만 보고 듣고 행동하면서 느낀점도 많았고, 짧은 만남이었지

만 중고생들과의 만남도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다. 비록 지도자와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 사이로 만났지만 친동생과도 같았던 그들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처음에는 말도 잘 안 듣고 힘든 것이었지만, 나도 봉사하는 입장에서 서로 잘 지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고, 지금은 조금의 정돈된 상태로서 만나서 더욱 더 반가웠다. 그들도 '선생님' 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니 나도 지도자로서의 뿌듯한 느낌도 있었다. 나도 봉사하는 입장에서 빨리 시간이나 채워야지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봉사가 힘이 들어도 학생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봉사를 하고나서는 느끼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서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봉사는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학점 때문에 시작한 봉사활동이지만 지금은 학점과 상관없이 봉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과정인 것 같다.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도 같은 것이 되었으면 한다. 필요해서 하는 봉사가 아닌 나 자신이 먼저 스스로 해야 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 한다.

화폐박물관 자원봉사지도활동을 마치며 ...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목원대 컴퓨터교육과

박 정 용

오늘 처음으로 학생지도라는걸 해보았습니다. 봉사점수를 얻기위해 학생들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났죠? 전 그 학생들이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의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화폐박물관에 간 목적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봉사점수를 얻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가장 뚜렷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자 전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가 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ய요. 전 그 아이들에게 그들의 봉사점수만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나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몇몇 사소한 것들을 물어 친근해지려고 노력했고, 아이들도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 마음속 한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아마 각 학교에서 각 유치원이나 교육원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느꼈던 그리고 맘속에 자리잡고 있을 그런것인 것 같았습니다. 화폐박물관을 견학온 아이들이 견학보다는 봉사점수에 더 치중해 있다는 것을 여전히 떨쳐버릴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봉사를 해야하는 이유나 자기 만족감을 얘기해 주고서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얘기를 듣고서는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알았습니다. 뭐랄까 내가 지금까지 선생님들한테 바라왔던 그 무언가가 그 속에는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견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즈음에는 어느덧 친해져서 아쉬움과 공허함이 맘 한구석에서 저를 힘껏 빠지게 했지만 밝게 웃으면서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이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그저 점수에만 연연한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어떠한 목표나 그 이상의 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점수보다는 자기의 만족감과 봉사했다는 느낌을 더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더 드높여준 희망찬 하루가 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 청소년의 만남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정 지 운

97년 유난히 따뜻했던 봄 햇살처럼 그렇게 나의 대학교 1학년 생활도 밝고 따뜻하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봄 햇살처럼 따뜻했던 시작과는 달리 나의 대학생활은 내가 의도한대로 되지 않았다. 오직 대학만을 목표로 너무나 짜들리게 공부했던 탓인지, 학과의 분위기는 어느덧 공부는 뒷전이고 노는 문화, 술문화가 정착되어 갔다. 그래서 많은 회의감 속에 보냈던 3월, 4월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4학년 선배의 권유로 자원봉사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이 자원봉사와의 만남은 내게 있어 그동안 답답했던 대학생활에 있어서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 중에서도 문화유산보호 자원봉사는 나의 전공과도 맞다는 생각에 더욱 구미가 당겼다. 이제는 내가 학생으로서 배우는 위치가 아닌 지도자의 입장에서 서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있어서,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조금은 두려움 마저 들었다. 이렇게 시작했던 나의 문화유산 자원봉사는 내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느끼게 해 주었다.

먼저는 학교에만 갇혀있던 내가 사회집단이라 할 수 있는 봉사단체 생활속에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특히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즘 아이들의 고충과 생활상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이런 부분이 장차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되었다. 처음에는 어려우리라 생각했던 청소년과의 만남속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고 부딪히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또한 청소년들도 나를 잘 따르게 되었다.

문화유산 보호 봉사활동은 그동안 학교생활과 공부에 지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맑은 공기와 자연을 호흡하면서 정서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호남사람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담양 주변의 가사문화권과 천불천탑으로 잘 알려진 운주사를 돌아보게 되었다.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라 그런지 특별히 청소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문화유산의 관리 실태의 헛점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담양에 있는 송강정의 지붕은 우리 고유의 한국적인 멋과는 맞지 않게 벽돌과 시멘트로 보수해져 있었다. 우리 민중불교의 원산지라 할 수 있는 운주사는 이름에 맞지 않게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고 균형미도 맞지 않는 큰 대문이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탑과 부처의 보존 상태.... 지금은 많이 남아버린 옛 선현들의 글씨현판이 있는 식영정을 보면서 우리 문화유산이 얼마나 함부로 관리되고 방치되고 있는가 알 수 있었다.

외형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산뜻하게 잘 정돈되는 문화유산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문화재의 보호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점을 지도자의 위치에서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 문화유산을 바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준 다음에 보호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화유산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국적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체감을 심어주고 우리의 것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힘을 키워 줄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접수따기 위한 봉사활동이 대부분이나 이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앞으로 진정한 봉사인이 양성될 날이 오리라 기대한다.

